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 주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기획, 진행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획하는 교육, 사람의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책을 함께 읽고 성찰하는 교육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스스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함께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교육주체들이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를 진행한 결과, 광주, 구리, 대전, 서울, 울산, 양산, 인제, 인천, 청주, 파주에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공부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과정, 아카데미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단단해진 네트워크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한 교류를 만들어냈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에 둔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겨나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공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가슴에 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6~12월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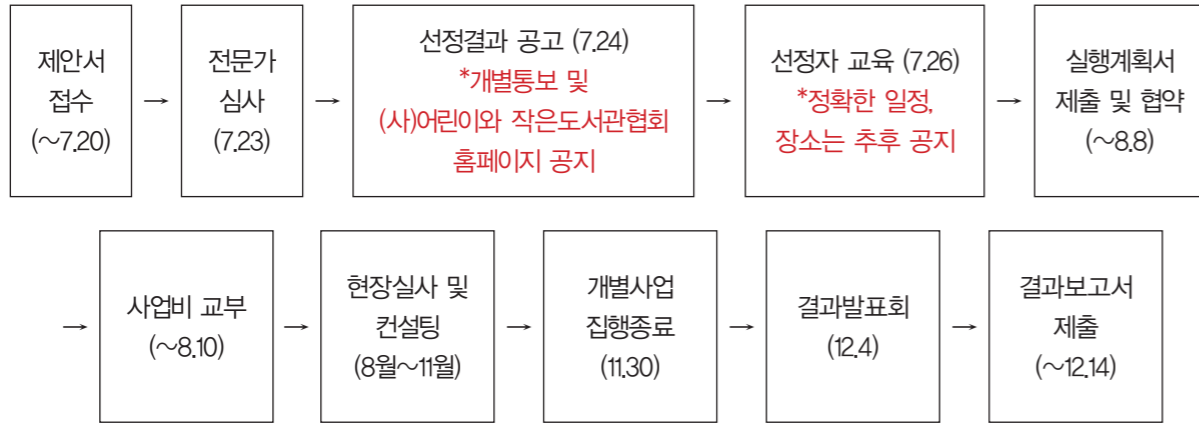
- 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 현장 실사와 컨설팅을 통한 교육지원
- 아카데미 결과보고회를 통한 교육내용 공유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 20,000,000원 (기획 : 단위별 3백만원, 일반 : 단위별 1백만원)

| | | |
|----|--------|-------------------|
| 기획 | 광주 | 책들이도서관 |
| | 대전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
| | 서울 | 서울5개권역작은도서관 |
| | 울산 |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
| | 청주 | 청주지역 독서문화활동가들의 모임 |
| 일반 | 경기 구리 | 구리시 4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
| | 경남 양산 | 양산시 3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
| | 강원도 인제 | 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 |
| | 인천 |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
| | 경기 파주 | 파주시 4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

■ 사업추진일정



※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선정자 교육 시 안내



■ 추진 현황

| 날 짜 | 내 용 |
|------------------|---|
| 6/27(수) 사업 공고 |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공고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공고 |
| ~7/20(금) 제안서 접수 |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 7/23(월) 전문가 심사 | - 15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에서 진행 |
| 7/24(화) 선정 결과 공고 |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공지 |
| 7/26(목) 선정자 교육 | - 교육아카데미 선정자들의 내용공유, 예산집행안내, 이후 일정공지 - 최혜자교수(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작은도서관에서 세상을 보다 강의 진행 |
| 8/8(수) 실행계획서 마감 | - 실제 아카데미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서 접수마감 |
| 8/10(금) 사업비 교부 | - 기획, 일반 부문 선정자들에게 사업비 일괄 지급 |
| 10/5(금) |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서울실사 |
| 10/10(수) |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인제작은도서관협의회 실사 |
| 10/22(월)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 실사 |
| 10/23(화)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양산 실사 |
| 10/27(토)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광주 실사 |
| 10/29(월)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청주 실사 |
| 10/31(수)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대전 실사 |
| 11/5(월)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파주 실사 |
|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울산 실사 |
| 11/22(목)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인천 실사 |
| 11/30(금)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집행 종료 |
| 12/4(화)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발표회 |
| 12/14(금)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선정 사업 소개

기획

- 광주_책돌이도서관
- 대전_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 서울_서울5개권역작은도서관
- 울산_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 청주_청주지역 독서문화활동가들의 모임

일반

- 경기 구리_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 경남 양산_양산시 3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 강원 인제_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
- 인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 경기 파주 - 파주시 4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각각의 스스로아카데미 선정 사업 말미에 실린 강의원고는 공개에 동의하신 일부 강사님들의 원고만 실렸습니다.

기획 공모 1 - 광주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광주

책돌이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평소 듣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들을 수 없었던 강의를 중심으로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기획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책 함께 읽기'는 든든한 동지를 얻는 기회가 되었고, 함께 만든 컬렉션으로 '광장에서 만나는 책돌이도서관' 책잔치는 우리의 숨은 재능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책돌이도서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됩니다. (사)어린이도서관협회광주지부 부설도서관으로 회원들과 지역주민의 재능기부와 후원금,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동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꿈꾸며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여 나누고,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자원활동가들이 평소 듣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들을 수 없었던 강의를 중심으로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기획에 참여하며, 항상 운영자이자 진행자였던 활동가들에게 참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 사업이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도서관 활동가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한 책 함께 읽기'는 든든한 동지를 얻는 기회가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컬렉션으로 시청광장으로 나가 펼친 찾아가는 책 전시 '광장에서 만나는 책돌이도서관'은 우리의 숨은 재능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짬을 낸 터라 더 소중한 시간이었고 강의 막바지에

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신청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던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의 공고 시기가 늦어 연대하는 각 도서관의 여건을 맞출 수 없어 더 많은 기관이 함께 하지 못 한 것입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이번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동안 그동안 염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한 번 도모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고 앞으로 10년, 다시 시작하는 길에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동지를 만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끝까지 참여해주신 활동가들 모두 고맙습니다. 어디서든 다시 만나면 제가 차 한 잔 사 드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스스로 아카데미 이렇게 진행했어요

| 일 시 |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 강사 혹은 진행자 | 비 고 |
|-------------------------|--|---|--|
| 8/10 (금) (오후 5시~8시) | 1강의명 : 김병하 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산책 2형식 : 강의와 좌담 3강의내용 : 도서관과 인연 만들기 | 김병하 그림책 작가 | 책돌이도서관, 자미원 일대 |
| 8/31(금) (오전 10시~12시) | 1강의명 함께 읽는 한 권의 책 2형식 : 토론 3모둠 토론 4.도서명 : 『사서 빠뜨』 즈브비에브 빠뜨/재미마주 | 1진행자박경희 (어도연 강사, 초대 관장) 2.보조강사:전선예 (어도연 강사, 사서팀장) | 책돌이도서관, 토론 참여자 확정 도서비 지원 (김영주 관장 토론진행자 섭외 중) |
| 9/14(금) (오전 10시~12시) | 도서관에서 책을 권하는 99가지 방법 1강의명 : 내가 만드는 도서관 책 컬렉션 2형식 : 강의와 워크숍 3강의내용 : 도서관 컬렉션 기획의 이해 | 박경희 (어도연 강사, 초대 관장) | 책돌이도서관 |
| 9/28(금) (오전 10시~12시) | 도서관에서 책을 권하는 99가지 방법2 1강의명 : 책 공간 운영과 디스플레이 2형식 : 강의 3강의내용 : 북큐레이팅&디스플레이 | 신현창 (책과생활 독립출판 및 책방 대표) | 책돌이도서관 |

| | | | |
|--------------------------------|---|--|---|
| 10/12(금) (오전 10시~12시) | 도서관에서 책을 권하는 99가지 방법3 1.강의명 : '책 축제 기획' 어렵지 않아요! 2.형식 : 강의와 워크숍 3.강의내용 : 다양한 책 축제 기획의 실제 | 신현창 (책과생활 독립출판 및 책방 대표) | 책돌이도서관, 책과생활 책방 조울 중 |
| 10/26(금) (오전 10시~12시) | 1.강의명 : 우리 도서관을 알려라! 2.형식 : 강의와 워크숍 3.강의내용 : 도서관 홍보 영상 만들기과 전시의 실제 | 노미영 (책돌이도서관 영상제작, 홍보활동가) | 책돌이도서관 |
| 10/27(토) (오전 10시~ 오후 5시) | 1.강의명: 광장도서관 (광장에서 만나는 야외 도서관 책 축제) 2.형식 : 다양한 전시 펼치기 -2018 어린이책을 말하다 -컬렉션 기획 전시 등 | 진행자 : 임미정 (어도연 광주지부 지부장 외 임원 6명) | 광주시청 시민광장 일대 20여개 이상 부스 컬렉션 전시 및 참여 도서관 제작 동영상 홍보 운영 |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 후기



모듬 토의 내용 정리

- 10명씩 두 모듬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 발제문 중 주제 1,2,3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서 빠뜨〉, 즈느비에브 빠뜨, 재미마주

1팀 후기정리 : 책돌이도서관 사서 김 미



1.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선정해 줄 것인가?

- 발제문 중 4살짜리 꼬마아이가 책을 읽어주니 “어른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라는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됐다. 책을 읽어주는 어른으로서 나와 책을 좋아했던 어릴 때 나의 경험이 떠오르는 부분이었다.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며:
- 5학년 때 읽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다.
- 「빨간 머리 앤」과 「홀리스 우주의 그림들」 그리고 「두 친구 이야기」이다.
어릴 때 읽었던 책이 기억에 오래 남아 어른이 된 뒤에 다시 읽었지만 그 때 그 순간만큼의 감명은 받지 못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은 처음 마주한 그 순간에 받았던 감명으로 소중한게 오래오래 간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도서관의 책은 자료와 정보이고 책 읽기는 관계이며 해석이다.
요즘 아이들은 집에도 책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학부모가 알아서 구입한 책으로 책에 대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골라보는 선택권이 없고 온라인으로 구입한 책이 대부분인 경

우가 많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장으로써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서관의 사서들 중에는 사서인가? 관리자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책돌이는 그나마 이용자에게 책을 잘 읽어주고 소통하는 사서가 있는 편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특급이라 생각한다. (다른 도서관 활동가 말)

- 사서빠뜨 책 내용과 우리 작은도서관의 상황에선 이상적이지만 하다. 빠뜨가 실천하고자 하는 도서관 운영철학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어있다.

* 부주제 1) 우리(어른, 사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까?

- 내가 읽고 재미있었던 책
- 책을 읽고 나서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적 독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해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사서에게 좋은 책을 건네받아 읽고 감명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누구나에게 좋은 책을 권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 문제는 요즘 학부모들이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출해 가는 책들이 지식 관련 책이 많아 의외로 문학에 대한 아이들의 독서경험이 빈약하다. 감성을 건드려 주는 독서량이 부족해서 문학책을 읽어주면 오히려 책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문학적 상상력이 결여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과와 연계된 책 말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책을 읽고 어린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은 글을 자료집으로 묶어 두면 어린이들이 책을 고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 사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 운동가 = 관계개선, 기록자, 중재자이다.
- 사서 업무에 가장 기본은 이용자와의 소통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 관리자 마인드를 내려놓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빠뜨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서관운영을 하고자 해도 요즘 도서관의 문제는 이용자들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용자와 관계를 맺고 좋은 책으로 소통할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이용자가 찾는 책이 없는 경우 구입, 시립으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사서의 역할은 관찰자, 중재자 기록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책돌이도서관은 어린이집에서 단체 방문을 하는 경우 혼자 근무하는 사서가 아이들 하나하나와 소통하기는 쉽지 않다. 모이게 해서 책을 읽어주는 경우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에 집중하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함께 온 어린이집 교사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 사서가 근무시간에 책을 읽는 행위 : 사서의 기본은 책을 좋아해야 한다. 개인적인 책임기보다 도서관 신간 파악이나 이용자와 연결해 주기 위한 책임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근무하다 보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 분배도 되고, 이미지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도서관 역동적인 변화

지역사회와 도서관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도서관들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 도서관은 민주화 운동이다.
- 관리자 철학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일례로 주변 작은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책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광주시에 의견을 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마을 어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간자 역할을 했던 어른들의 사업 추진내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문화와 입시를 접목하자는 것이어서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난관이 생겼다.(타 기관 활동가 사례)
- 도서관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투사가 돼야 한다.
- 도서관이 변화하려면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 도서관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거점도서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같이 상생하려면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연대해서 운영 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

광주 지역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 :

- 공동체의 경험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이 많은 상황이다. 내 것만 옳다는 생각을 가져서이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있다. 고액의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후 운영자가 승진을 하게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린 후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하고 가버리니 도서관 운영실태가 엉망인 곳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봤다. 지금

은 유명무실한 도서관이 돼버렸다. 그런 곳이 많을 것이다.

- 도서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를 쓰면서 운영은 부실하게 하는 곳이 많다.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점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것 같다. 기본적인 업무 상황 파악만이라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화통화 관리, 횡수를 정해서 방문 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라도 관리가 필요하다.
- 빠뜨가 언급한 야외도서관은 관이 주도하는 도서관에서 실행해보면 좋겠다. 예산이나 인력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일이라 생각한다. 작은도서관은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양한 책을 선정해서 누구나 지나가는 길에 발길 닿는 길에 책을 비치해두고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오늘도 작은 관계의 기적을 기대하며

책문화공간 봄: 관장 김영주

사서 빠뜨와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서울 지역에서 정말 감동적인 책이라는 추천에 큰 기대를 걸고 책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책의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문체는 꼬일 대로 꼬아서 쉬운 말들을 왜 그리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마치 마른 목구멍에 커다란 알약을 삼키듯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아~~~ 마치 잃어버린 두근거림을 찾은 느낌일까?

작은 관계의 기적... 우리 역시도 그 기적의 힘으로 매일 도서관으로 오지 않을까?

사서빠뜨는 가장 소박한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선별하고 책을 읽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는지 관찰자 역할을 통해 공감해주는 것, 행복한 책임기가 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용자와의 소통... 작은 관계의 기적이란 이런 소박한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동안 나 자신과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도서관에서만 맺을 수 있는 진실한 관계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사서 빠뜨의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작은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간들이었고, 대단한 명분과 비전이 보여서라 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책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순간순간들에 매료되어 도서관을 못 떠나는 우리로서는 결국 우리가 느꼈던 진실한 순간들이 빠뜨의 60년 삶을 통해 맞다고 잘하고 있다고 증명되고 있는 셈이므로 우리세대 그 다음세대까지 작은도서관이 이어갈 수 있도록 신념을 준 셈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 멀리 프랑스의 빠뜨 여사가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깨우침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확신한다.

우리는 이렇게 또 누군가의 작은 기적을 기대하며 내일 아침이면 밝은 얼굴로 도서관 문을 열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작은' 의미의 재발견

기아컴퓨터작은도서관 운영자 이미정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온 지 햇수로 7년째가 되어가지만 날마다 눈을 뜨면 새로운 배울 거리가 없나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이번에 광주 책돌이도서관 주관으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스스로' 아카데미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달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마을 활동에 대한 강좌는 다양하게 열리는데 비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은 많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으니까요.

총 6번의 강좌를 차례차례 들으며 김병하 그림책 작가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책과 생활 신현창 대표의 <책공간의 디스플레이> 강좌를 듣고 작은책방을 직접 방문해 본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 외 홍보 영상 실습까지 매 강좌마다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박경희 강사님의 <도서관 컬렉션 기획의 실제>와 <사서 빠뜨>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에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북큐레이팅의 사례가 새로운 제안이 아닌 책돌이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연구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경험으로 이미 축적된 것이었기에 감동적이었다는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 도서관 북큐레이팅의 나침반이 되어주실 거라 믿으니 든든하기만 합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이 더불어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이제는 소리를 내고 같이 웃고 울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했던 시간도 소중했고, 작은도서관의 '작은'의 의미가 작아서 응축된 점 같은, 강력한 '작은' 입을 가슴에 또렷하게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돌이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하며

책과생활 독립서점 대표 신현창

자고로 '초연결' 사회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혹은 기계),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란 말이다. 영역과 경계를 초월한 연결되려는 욕망이 기술 진보와 맞물려 가시화된 시대이다.

최근의 독립서점 혹은 동네서점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구석진 골목에 있는 서점이든, 아날로그적 지향을 강조하는 서점이든, 모두 초연결하는 사회의 어느 한 자락을 쥐고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 힘들다. 저마다 SNS 계정을 하나씩은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연결된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 서점과 도서관만은 서로 연결을 하지 않는다. '납품'이라는 갑을관계가 지배하는 연결만이 있을 뿐이다. 도서관은 서점에 구매할 리스트를 주고, 서점은 도매서점 또는 출판사에서 책을 구해 도서관에 납품한다. 그리고 끝이다. 도서관은 서점에 10% 할인과 납품 기일 빼고는 바라는 게 없다. 서점 역시 도서관에 바라는 게 없다.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독서문화의 양대 주체가 아직도 이렇다 보니 독자는 어느새 출판사 또는 창작자와 직접 연결을 시도한다. 언리미티드 에디션, 오늘산책과 같은 북페어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책돌이도서관에서 주최한 '스스로' 아카데미는 지역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나에겐 매우 감사한 기회였다. 평소에 하던 생각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고, 거기에 바로 도서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는 독립서점의 운영 방식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점과 도서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제안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좀 더 흥미로운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스로 아카데미 강의 원고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사서도 이용자도 신나는 도서관 문화를 위해-

책돌이도서관 박경희
책문화공간 봄 김영주

소박함의 소중함

책의 표지가 책을 읽는 빠뜨와 어린이의 캐리커처로 시작된 것처럼 이 책은 즈느비에브 빠뜨(이하 빠뜨)가 60여 년 동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백만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게 한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풀어낸다.

빠뜨가 만나는 사람들과 도서관들은 개방적 자세와 자유의지만으로도 바람직한 독서의 기준과 도서관의 역할을 잘 펼쳐간다. 만사가 그렇게 잘 풀리지만은 않았을 텐데 정책과 문화인식이 다른 우리와는 먼 이야기일까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 사회의 도서관문화 정착과 상관없이 도서관에서만 맺을 수 있는 진실한 관계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프랑스 사서 빠뜨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작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한다. 우리는 대단한 명분과 비전이 보여서 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책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순간순간들에 매료되어 도서관을 떠나지 못 한다. 우리가 느꼈던 진실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는 셈이므로 마음이 놓이는 것이다.

긴 세월 동안 빠뜨가 겪은 많은 것들을 결론 위주로 서술해서인지 책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서 빠뜨』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결국 좋은 것은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과 세상과 책을 훌륭하게 이어간 한 사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이다.

우리 모두 도서관을 통해 얼마나 새롭고 신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빠뜨가 클라마르의 취락지구에서 세운 '책을 통한 즐거움' 도서관은 어린이와 개별적인 만남, 항상 책이 중심 내용이 되는 만남, 한편으로는 아틀리에 같기도 하고 예술 또는 예술적 표현들과 잘 어울리는 장소, 집처럼 편안한 도서관, 어린 독자들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도서관이다. 1장과 2장은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노천형, 개방형 도서관 등 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을 경험한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책을 통한 즐거움에 대한 경험을 대물림하고 있으리라 짐작이 간다.

3장부터 5장까지는 문자 습득 전의 책부터 사춘기 전까지의 다양한 책을 소개하며 책이 주는 관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 6장은 도서관에서의 책임기와 사서의 역할에 대해 7장은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중요해지는 도서관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도서관 일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명확히 주제를 나누기 힘들다. 그래도 아래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모두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1.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선정해 줄 것인가?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위안을 주고 어루만져 주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필자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라스무스와 방랑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몇몇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여덟 살에서 열 살까지의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네 살짜리 꼬마가 다가와서 편안한 자세로 내 무릎 위에 앉았다. 그 애는 즐겁다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책을 읽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 애가 과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위한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나는 궁금하여 아이에게 물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니?”

아이의 대답은 명쾌했다.

“어른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p.215)

‘새로운 활동은 좋은 문학텍스트와 작품과 함께 하면서 감수성을 열어 주는 것이 아끼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살리고 서로 간의 신뢰감을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39p)

‘어린이를 위한 주요 명작들을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다.’ (42p)

‘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개인적으로 나를 감동시킨 책들을 추천한다. 거기엔 진정한 변화의 결과가 있다. 어른과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 흥미를 느낀다. 그들에게는 교류와 상

호작용이 있다. 극히 제한된 수의 아이들만 감동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서들과 함께 경험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하게 한다.’(50p)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과정

책읽기는 소박함과 신뢰, 친밀감 속에서 활짝 피어나기 때문이다.(35p)

좋은 문학텍스트나 작품과 함께 하면서 감수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끼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살리고 서로간의 신뢰감을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39p)

도서관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가능한 한 가장 소박하게 책읽기의 현실을 보여주고 유지하게 해 주어야 한다.(31p)

‘그들은 책을 배열하고 대여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을 찾아냈다. 말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이들이 책을 소유하는 방식에 흥미를 가진다. 아이들 또한 책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도서관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37p)

책읽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동일한 관심, 같은 텍스트에 대해 다른 견해를 토론하는 일이라고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혹 이 책의 일부를 읽고 소개되는 책들을 검색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 단편만을 보고 구입하여 마치 추천 도서인양 권한다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빠뜨가 강조하는 책읽기를 통한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 이것이 바로 많은 아이들로부터 도서관을 찾게 하고 책을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스무 살이 되어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시 도서관을 찾게 되는 힘인 것이다.

책은 자료와 정보이고 책읽기는 관계이며 해석이다. ‘정보제공만으로는 소통이 창출되지 않¹⁾기 때문에 도서관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자료를 통해 관계를 맺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해석하는 힘을 갖기 바란다.

그런 과정에서 도서관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 때문에 빠뜨는 좋은 책을 선별하고 그 책을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지 관찰하고 활동 수첩을 통해 공유한다.

이런 단순한 원칙은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일인데 이루어졌고 이는 독서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과잉된 지침과 의미부여에 휘둘리지 않고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문학과 독서교육연구, 소규모 독서단위의 활발한 운영으로 이어졌다.

1.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까?
2. 직접 이용자에게 책을 추천해보고 책 이야기를 나눠 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나 되돌아보자.
3. 내가 읽지 않았더라도 좋은 평을 받은 책들의 리스트나 정보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자.
4. 어린이에게 책을 추천하고 읽어주면서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나 되돌아보자.
5. 지금 우리 도서관의 중심에는 책이 있는지 책읽기가 있는지 돌아보자.

2. 사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고 변화해 가는 세상에서 새로워지고 적응하도록 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소명이다.(45p)

도서관의 새로운 이미지는 모든 이들의 손에 닿는 친근한 곳이며 다양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장소여야 한다.(31p)

도서관과 열람자가 큰 혜택을 누리고 출판에 유익한 자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책 목록선별 소개하는 자료로 연간 회보 간행 작업, 책의 작업은 모두를 동원한다.(37p)

“도서관과 책읽기 안에서 ‘만남, 다양성의 인식, 상호보완성, 소통,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253p)

최근에 방문한 작은도서관에서 한 운영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도서관에서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나요?”

1) 본문 249p. 재인용 도미니크 불통 “불통의 시대 소통을 읽다” 채종대 김주노 원용옥 옮김, 살림,2011.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업무가 사서의 업무로만 보는 것이기에 이용자가 하루에 채 10명도 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질문이다. 대출반납이 사서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도서관의 사서가 아니라 책 관리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사서는 도서관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도서관을 기획하고 이용자들의 관찰자뿐 아니라 중재자 때로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것이다.

빠뜨와 사서들은 이런 도서관을 만드는 기획자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법, 선호하는 것, 어떤 이야기가 감동적인지를 비밀스레 간직한다. 관찰자로서 아이들이 어떤 장면에서 독서의 속도가 느려지는지, 어떤 책들을 다시 찾는지를 관찰하여 공감해주고 또 다른 관심 분야를 찾게 책과 아이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런 활동들은 기록으로 공유되어 생각할 거리와 고민거리들을 제기하며 도서관 운영에 반영된다.

도서관의 일상 업무는 너무도 많다. 그래도 그 중 기본업무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 언제나 이야기를 나누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빠지면 가장 먼저 놔버리는 업무이기도 하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용자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차' 하는 순간 관료적인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해버린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하는 시간이 많아서 이용자가 대화를 나눌 상대라기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홀대받는 느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쉽다.

1. 사서는 근무시간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까?
2. 사서가 근무시간에 책을 읽는 것은 업무인가?
3. 사서가 근무시간에 이용자와 수다를 떠는 것은 업무인가?
4. 이용자를 관찰해보고 그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자.
5.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 있는지 실제로 시도해 본 적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자.

3. 도서관, 역동적인 변화

지역사회와 도서관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도서관들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도서관이 모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공동업무를 통한 유대 관계를 추구한다면 걸보기엔 그들의 제안이 작고 소박하다 할지라도 도서관이라는 기관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꿈꾸게 해 줄 수 있다.(30p)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고 변화와 성공사례를 따르고 실패를 참고해 나가며 아울러 프로그램의 대중화에 필요한 사고를 모아 심화시키는 데 용기를 준다.(31p)

우리가 단순히 전문 처방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 스스로 나선 주체였기 때문이다.(31p)

어디서나 가치가 있는 접근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활동은 ... 항상 같은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책이란 세계의 중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31p)

이주민 위주의 영세민거주지역에 세워진 아름다운 클라마르 도서관은 개관 이후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프랑스의 6차 경제사회도시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쳐 대단지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빠뜨는 대규모 미디어 자료실과 마찬가지로 도처의 작은도서관들이 매진하고 있는 이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리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은 사회가 창조하고 사회가 보존한다.2) 사회의 지지를 받는 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도서관끼리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독서단위나 작은도서관끼리 연결된 네트워크는 저렴한 비용과 소박한 규모로도 가능한 활동을 일반화하고 각자 지역에서 필요한 최선의 도서관서비스를 펼친다. 이런 네트워크는 마치 곤충의 안테나처럼 다른 사물과 미지의 환경에 대해 섬세한 정보를 교류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2) James Thompson의 도서관 제1원리, 제2원리

도서관에서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작은 모임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은 확장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도서관 내부뿐 아니라 SNS, 웹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도서관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선거가 있던 날, 선거개표 방송을 도서관에서 함께 보며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다든지 마을의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며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책을 함께 읽어내야 하는지 등 도서관은 마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도서관은 다양한 면모를 지니게 될 것이다.

1. 우리 도서관은 과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
2.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도서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 지역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우리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통해 무엇을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4. 소규모 독서단위와 작은도서관이 가진 잠재력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

기획 공모 2 - 대전

작은도서관 꽃들의 스스로 아카데미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사회적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참여를 만드는 길을 지역공동체운동에서 찾고자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대전의 마을공동체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어린이도서관만들기 운동이 등장하였다.

도서관의 꽃은 사서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근 2년 동안 사서분과의 활동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시급했던 사서의 역할과 우리도서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것을 토대로 매월 학습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운동이 등장할 때 대전지역에서도 사회적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참여를 만드는 길을 지역공동체운동에서 찾고자 하였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대전의 마을공동체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어린이도서관만들기 운동이 등장하였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고 이 작은도서관들이 모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2007년 3월에 창립되었다. 대전시의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배우고 알권리를 누리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그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현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대전지역의 15개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반적인 사업의 실무를 운영하는 사무국, 작은도서관의 사서활동가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서분과와 도서관의 어린이와 청소년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교육분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향을 모색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정책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의 작은도서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며 마을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작은도서관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활동가들은 공익활동을 통해 높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개별도서관에서는 운영의 어려움과 활동가들의 부재로 도서관내에서 사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사서의 역할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도서관의 꽃은 사서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협의회의 사서분과는 각 개별 작은도서관의 사서팀장이나 관장이 주축으로 모여 있는 분과다. 사서는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책을 전시할지, 넓게는 어떤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할지도 기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또한 다른 활동과는 다르게 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사서분과의 역할은 이러한 사서팀장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 함께 공부하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개별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근 2년 동안 사서분과의 활동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사서분과장의 부재로 협의회의 사무국에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의 사업종료로 평가회의에서 천동 꿈샘도서관의 사서부장 권○혜는 사서분과의 2018년 첫 회의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했다. “각 도서관의 요구들이 너무 다양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고 난감해하는 사무국장의 얼굴을 보니, 앞으로 사서분과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요즘 소위 말하는 “갑분싸”를 잊을 수 없다고..”

2018년 상반기에는 각 도서관의 요구들을 정리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몰두하였다. 가장 먼저 시급했던 사서의 역할과 우리도서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것을 토대로 매월 학습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하고 각 마을로 가져가 각 마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욕구를 키워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지원사업 공고를 계기로 각 도서관의 사서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마을도서관에서 사서팀장의 역할을 인식하여 '스스로' 학습하여 책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자발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사서활동을 기획하여 책 읽는 문화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였고 마을과 마을간의 공동체, 나아가서는 활동가들간의 네트워크 기반을 다져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함께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해야 했다. 각 도서관의 사서팀장 또는 신입관장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개별도서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욕구를 토대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선진지 탐방을 통해 우리마을도서관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스스로 아카데미 이렇게 진행했어요

| 일 시 |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 강사 혹은 진행자 | 비 고 |
|--------|---|---|----------------|
| 8월29일 | - 각 마을도서관 사서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습계획 세우기 위한 워크숍 | 강사 : 박지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전대표) | 짜꿍마을 어린이 도서관 |
| 9월5일 | - 그림책에 대한 이해 - 어린이와 그림책을 학습하고 토론(발제, 토론) | 진행 : 여선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전체 발제 및 토론 | 진원 작은도서관 |
| 9월19일 | - 그림책의 그림과 언어에 대한 이해 - 어린이와 그림책을 학습하고 토론(발제, 토론) | 강사 : 조미연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 꿈샘마을 도서관 |
| 10월10일 | - 우리마을 책전시 방법론 연구 - 세미나 | 진행 : 여선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세미나 발표 | 작은나무 마을어린이 도서관 |
| 10월24일 | - 마을어린이도서관과 지역사회프로그램 이해2 - 아동서비스론을 학습(발제, 토론) | 전체 발제 및 토론 | 대전 중구문화원 |
| 10월31일 | - 우리마을 사서활동가 매뉴얼 연구 - 세미나 | 진행 : 여선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세미나발표 | 또바기 어린이 도서관 |
| 11월7일 | - 마을어린이도서관과 지역사회프로그램 이해1 -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학습 (발제, 토론) | 강사 : 박소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 짜꿍마을 어린이 도서관 |
| 11월21일 | - 선진지탐방 1. 천일어린이도서관 옷는책 2.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 진행 : 여선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 서울탐방 |
| 11월28일 | -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 및 추후계획 공유 - 전체 학습과 실천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사서팀 운영에 대한 계획 공유하기 | 진행 : 여선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 꾸러기 어린이 도서관 |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은 하반기 8월 말부터 11월까지 3개월 진행되었다. 작은도서관에서 사서역할의 중요성과 팀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단기적이지만 기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와 참여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1차시에는 전체 계획안을 공유하고 전 구성원들이 '스스로 아카데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서와 사서팀장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사서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워크숍을 통해 정리하고 각자에 맞는 학습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작은나무 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이○경은 “사서팀장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나 혼자

만의 고민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것에 시너지효과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도서관은 마을어린이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도서관의 장서 또한 그림책과 동화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매우 부족하였다.

2차, 3차시에는 마쓰이 다다시의 “어린이와 그림책”을 분담하여 발제하고 토론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같은 책이라도 출판사마다 다른 점과 좋은 그림책 선별기준에 대한 방법 등을 토론하며 어떤 책이 더욱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들을 나누었다.

또, 크리스마스 관련 동화책을 읽고 난 후 캐롤을 들으며 아이들과 쿠키를 함께 만들어 보며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생활 속 여러 물품을 가지고 자기만의 변신무기로 만들어 보았다.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등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책놀이 시연을 진행하였다.

추후에는 책놀이 만들 주제로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평이 나올 만큼 좋은 영감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림책 하나만으로 다양한 시선과 생각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 도서관에서 그림책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땅콩도서관의 사서부장 김○희는 “기존의 고정적인 생각들을 탈피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그림책의 매력에 다시 한 번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4차시와 6차시에는 “우리 마을 책전시 방법론”과 “우리 마을 사서활동가 매뉴얼”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와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각 도서관마다 규모나 마을의 특성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사서에 따라서 도서관의 모습과 풍경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의 일상적인 책 전시와 이벤트형 전시, 테마형 전시 등을 소개하고 타지역과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경험했던 책전시도 함께 공유하였다.

다른 도서관의 책 전시 방법을 공유하면서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영감을 받고 또한, 좋은 책을 선별하는 기준만큼이나 각 도서관에 맞게 제대로 전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작꿈마을어린이도서관 사서팀장 윤○은 “우리 마을 도서관 전시방법을 발표하기 위해 우리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살아나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전시 할 수 있는 것에 설렌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마을 사서활동가 매뉴얼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각 도서관을 파악하여 우리 도서관에 적절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바기어린이도서관 관장 곽○숙은 “도서관 운영이 급급하다보니 놓치고 갔던 것들에 대해 이번기회를 계기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파악과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며 사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다.

5차시와 7차시에는 마을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호리카와 테루요의 “아동서비스론”과 카렌M. 벤추렐라의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발제하고 토론하였다. 전국 작은도서관은 어떤 과제를 직면하고 사회적인 흐름을 대하며 마을도서관이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과제를 직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진원작은도서관 사서팀장 김○원은 “시야가 확장되었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며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하였다.



8차시에는 “마! 이게 서울작은도서관이다.”라는 주제로 “난곡주민도서관 새숲”과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에 선진지탐방을 다녀왔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도서관의 활동과 책 전시방법, 그리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직접 경험해 보고 우리 도서관에 맞게 적용을 해보기 위함이었다.

| 시 간 | 내 용 | 장 소 |
|---------------|-----------------------------|--|
| ~7:50까지 집결 | 인원점검 | 서대전공원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주차장 맞은편 |
| 8:00 ~ 10:40 | 출발 일정안내, 자기소개 | 이동(난곡주민도서관 새숲) |
| 10:40 ~ 12:00 | 난곡주민도서관 이야기 (지역사회 프로그램)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서울 관악구 난곡로 78 난행꿈동지2~3층) |
| 12:00 ~ 13:00 | 맛있고 따뜻한 점심 | 김영희 동태집 |
| 13:00 ~ 14:30 | 일정안내 | 이동-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42길 60 천호동 노외주차장) |
| 14:30 ~ 16:00 | 천일어린이도서관 (책전시내용, 프로그램소개) |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
| 16:00 ~ 18:00 | 소감나누기 | 이동(서대전공원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주차장) |

난곡주민도서관은 현재 30년 된 도서관으로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활발하게 교류하였는지 등 강연을 들으면서 자신이 속한 도서관이 당면한 과제와 또 도서관 활동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책 전시에 대해서 강연도 듣고 직접 둘러보며 각 도서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해뜰도서관 사무국장 권○주는 “두 도서관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라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꿈샘도서관 관장 서○주는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의 형태도 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9차시에는 전체 학습과 실천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사서분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소중하고 감사한 회의(소감회)”를 진행하였다. 매년 사업의 마무리는 총평으로 정리하며 추후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회의로 진행되지만 3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학습한 우리 모두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주는 회의로 기획하였다. 참여자들의 낭독공연과 기타공연, 분과원들의 화합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즉석 타악기 공연 등 재미있게 파티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기획과정에서부터 '스스로' 참여하며 분위기가 상승되었고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사서분과에 대해 계획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꾸러기어린이도서관 관장 강○희는 “신임관장으로 사서분과에 참여한 것은 행운이었고, 다양한 커

리큘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은나무마을어린이 도서관 관장 이○경은 “신임관장으로서는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아카데미, 사서분과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흐름과 운영의 어려움, 활동가의 부재로 작은도서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초심을 다지게 되었다.

또, 사서분과원들의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19년 사서분과를 지속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서팀장 역할의 중요성과 책에 대한 시선 확장으로 책에 대한 선별의 기준을 세우고 사서교육의 필요성과 도서관의 활동가들에게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해준 도서관의 사서팀장과 관장님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당신이 있어 마을은 행복합니다. 마을도서관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기획 공모 3 - 서울

“그림책 깊이 읽기”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작은도서관과 책, 2018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간담회**
 2018년 10월12일(금) 10-13시

마음열기 진행: 안미경(인디언 이블릿기)
사례발표

- 도서관의 다양한 전시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 방학에 매일매일 책읽어주기
아름드리 작은 도서관
- 그림책 작가와 만나요
진일 어린이도서관 웃는책
- 0시부터 100세까지
홍부내그림책도서관
- 성북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공세마리 어린이도서관

지금 이 시대 작은도서관의 현황 이사장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강무홍작가의 함께 하는

그림책 깊이 읽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활동으로 2018년에는 그림책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하고 직관적 활동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림책 강좌와 견학도 진행합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강사 | 담당장소 |
|----|---------------------------|------------------|-------|------------|
| 강의 | 10월 5일(금) 10:00-12:00 |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 | 강무홍 | 경신교리무림도서관 |
| 견학 | 10월 12일(금) 10:00-12:00 | 작은도서관과 책, 2018 | 서울지부진 | 경신교리무림도서관 |
| 강의 | 10월 19일(금) 10:00-12:00 | 그림책의 출판 분석 | 강무홍 | 느티나무도서관 |
| 강의 | 11월 2일(금) 10:00-12:00 | 그림책의 여러 가지 출판 | 강무홍 | 느티나무도서관 |
| 강의 | 11월 9일(금) 10:00-12:00 | 그림책의 인물 분석 | 강무홍 | 공세마리어린이도서관 |
| 강의 | 11월 16일(금) 10:00-12:00 | 그림책의 서정적 배경 | 강무홍 | 공세마리어린이도서관 |
| 강의 | 11월 23일(금) 10:00-12:00 | 논픽션 그림책의 세계 | 박정신 | 홍부내그림책도서관 |
| 강의 | 11월 30일(금) 10:00-12:00 | 그림책에 담긴 예술적, 문화적 | 강무홍 | 홍부내그림책도서관 |

주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주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 협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1) <스스로 아카데미 “그림책 깊이 읽기” > 지원배경

- 서울지역 작은도서관들이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질적 안정화가 되지 못한 현실
- 그것은 작은도서관 지원이 사업비 지원에 머무르고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더 이상의 지원사업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 인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기획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권역지기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지부를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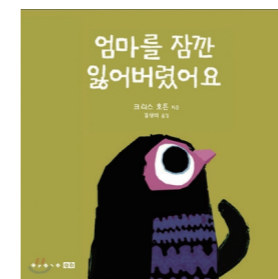
2) <스스로 아카데미 “그림책 깊이 읽기”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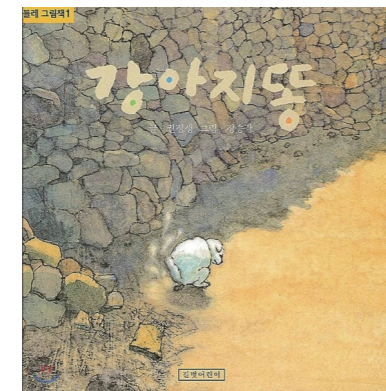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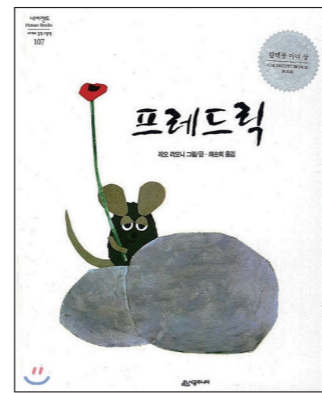
-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의 ‘모색’
- ‘그림책 깊이 읽기’를 통한 ‘모색’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장르인 그림책에 대해 운영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관점을 가지므로써 책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 ‘작은도서관 책 활동 나눔’을 통한 ‘모색’
2016년 서울지부 포럼 이후 꾸준히 작은도서관 책 활동을 공유해온 것을 이어감
회원도서관들이 각자 도서관에서 해온 독서활동의 사례를 나누고 각자의 도서관에서 계속 이어가기

3) 깊이 읽은 그림책 소개

1. 강무홍 작가의 주제별 추천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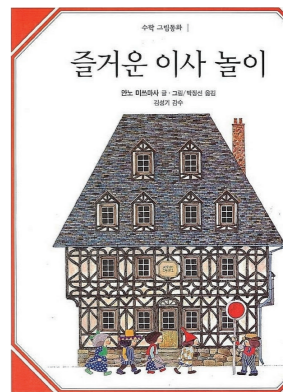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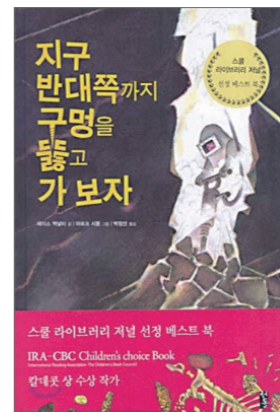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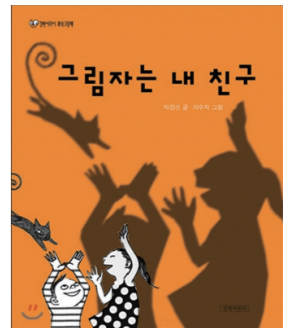
- 내가 자라는 동안 : 나의 엄마 (강경수)
- 삶의 등지 :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 부재가 초래하는 것 : 엄마 마중 (김동성)
- 인생은 실수투성이 :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크리스 호튼), 고태쟁이 엄마(유타 바우어)
- 세상을 떠받치는 작은 생명들 : 프레드릭(레오 리오니), 강아지똥(권정생)
- 어린이의 세계 : 녀점반 (이영경)
- 행복한 판타지 :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 표현하는 용기 : 까불지마 (강무홍)
- 의지 할 곳 없는 생명 이야기 : 말론 할머니 (엘리너 파전)
- 남пля야 하는 이야기 :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 어린이의 이웃 :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이타니 겐지로)
- 인류의 문명,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 : 잘 가, 안녕 (김동수)
- 동물원에 대한 다양한 시선 : 새끼 표범(강무홍), 동물원(이수지)





2. 박정선 작가의 추천 논픽션 그림책

- 문, 문, 문을 열어 보아요! : 열려라 문 (박정선)
- 물질의 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주는 그림책 : 앓 바뀌었어! (박정선)
- 한 동물의 죽음을 통해 살펴본 생태계의 삶 : 와글와글 떠들썩한 생태일기 (곤도구미코)
- 수에 대한 개념을 즐겁게 : 즐거운 이사 놀이 (안노 미쓰마사)
- 물, 어디 어디 쓰일까? : 물 좀 주세요! (박정선)
- 인류의 오랜 지혜가 담긴 발명품들의 원리를 찾아서! :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 (박정선)
- 무엇이 숨어 있는지 맞춰 보자 : 뭐든지 파는 가게 (박정선)
- 놀이하듯 배우는 빛과 그림자의 과학 : 그림자는 내 친구 (박정선)
- 색깔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 :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 (박정선)



3, 모듈별로 깊이 읽은 그림책



① <알도>

존 버ingham 글,그림

발표 : 동1모둠 김자영

현실에서는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주인공 아이가 상상속의 친구인 '알도'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다. 즉 현실 이야기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오간다.

주인공 아이가 실제 겪는 현실과, 아이가 알도를 만나 신나게 노는 상상속의 장면이 교차로 나타난다. 현실의 이야기는 색채 없는 바탕에 뚜렷하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의 축 처진 어깨와 어두운 표정이 보이고, 상상속의 이야기는 전면에 칠해진 바탕색 위에, 자유로이 뛰어노는 두 아이의 모습이 등장한다. 힘든 현실과 그것을 잊을 수 있는 상상이 교차로 보여 지고, 그것이 단조로운 색상과 화려한 색상을 통해 전혀 다름을 나타내면서, 상상속의 즐거움을 강조한다.

글과 그림의 불일치도 눈에 띈다. 아이가 부모로 인해 힘듦을 겪는 장면에서, 글에서는 태연한 척, 즐거운 척 쓰였지만, 그림에서 아이의 시무룩한 표정, 부모의 부부싸움 장면 등이 나타나 글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작가의 노련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은 말로 인정하기 어려워, 괜찮은 척하며 외면하기도 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의 부부싸움을 보면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그 상황을 외면할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어질 만큼 큰 고통을 겪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과는 전혀 다른 고통스런 상황의 그림을 통해 더 아프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아이는 노란색으로 계속 표현된다. 노란색은 어린아이, 연약함, 밝음, 부드러움 등을 나타내는 것 같고, 알도의 연두색 목도리는 편안함, 치유, 정서적 안정감 등을 나타내는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색상으로 표현한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선택한 것은, 알도가 없이도 아이가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 장면이다. 이제는 알도가 없이도 스스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아이도 성장한 것이다. 아이는 성장했고 이제 행복하구나 생각하며 안도감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나 어린 시절 상처가 있고, 이런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알도가 있었지 않았겠냐는 이야기도 나눴다.

결말부분-주인공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면 알도가 나타나 구해줄 거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분이 우리가 어린 시절 기억에 너무 오래도록 의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어린 시절 상처, 아픔, 슬픔의 기억들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성장하지 못할 경우 집착이나 강박 등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것이다. 명품중독, 사교육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에는 어린 시절 결핍이 잘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아닐까. 건강한 알도와의 관계맺음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였다.

끝으로 한 분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아이가 잠들 때도 알도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장면인데, 굉장한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내가 잠이 들어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될 때조차 안심할 수 있는 존재, 잠이 들어도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존재가 주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책을 읽어주며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책은 어른인 우리에게 더 좋은 책이며, 알도는 어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이야기를 나눈 우리 모두가 이 책의 오래된 팬이었다. 한 분은 특히, 첫 눈을 맞춘 그림책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책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② 어느 개 이야기

가브리엘 뱅상 /글,그림

발표 : 동2모둠 안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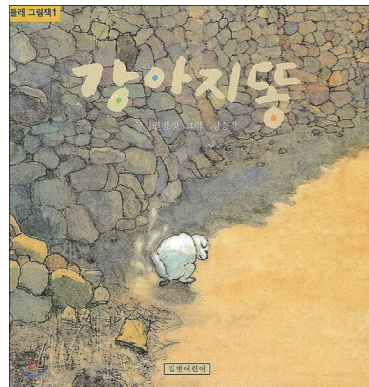
책을 읽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든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알려줘서 힘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칭찬을 통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가 도로 한가운데로 개를 던져버리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개를 정말 버린 건가?' 당혹스러움에 그림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 내 마음과 '내가 버려진 건가?' 차를 뒤따라 가보지만 덩그러니 남겨진 개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쿵! 하고 맞닿습니다. 개의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연필 한 자루의 매물찬 데생으로 어찌나 절절하게 표현됐는지,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고, 그렇게 떠돌다 자기와 같은 외톨이 아이를 만나 외락 안길 때 다행스런 마음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예상된) 마지막 이 장면이 아니었다면 정말 작가를 미워했을 거예요~. 개의 몸짓, 멍한 시선을 통해 버림받은 개의 내면을 어찌나 먹먹하게 표현해 냈는지. 반려견, 반려묘, 기니피그(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리고 사람인 우리들, 모두

다르지 않죠. 생명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듬고 함께하는 삶은.

어느 개가 실수로 차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탄 차를 쫓아가기도 하고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찾지 못하다가 차 사고를 맞닥뜨리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후 새로운 세상인 바닷가도 가보지만 반겨주는 이 없어 실망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만 합니다. 상가와 주택가를 돌아다녀 봐도 여전히 자기에게겐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찾은 바닷가. 그곳에서 소년을 만나 무척이나 반갑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 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소년이 다가와서 팔을 내밀어 줍니다. 동병상련이었을까요? 가정과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주위로부터 무관심속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건만 다시 인간에게 머뭇거리며 다가 가야하는 개의 숙명. 키우던 애완견을 차창 밖으로 집어던지고는 개가 쫓아오는지 차를 세우고 확인하는 주인. 인간의 잔인성을 봅니다. 한줄기 실낱같은 희망이었을 그 상황. 조금 전까지도 가족이었을 텐데. 무슨 연유로 버려졌을까? 그저 주인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리고 개는 다시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됩니다. 목탄화와 연필로 쓱쓱 그렸는데, 슬프게도 주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의 갈등, 외로움, 고뇌와 그 처절한 눈빛이 읽힙니다. 참 슬프습니다. 어제는 우리 집 애완견 밀크를 목욕시키고는 예쁘게 롤 빗으로 빗어 드라이까지 마치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을 때 글자가 없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며, 뭐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할까요? 나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의 숙제 일듯. 마지막 희망인 듯 보이는 소년. 하지만 개는 머뭇거립니다. 다시 또 반복될 버림을 생각하는 걸까요? 동화책을 읽고 상상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상처 준 얼굴들이 오버랩 됩니다. 반면 따뜻한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세상과 뭐가 다를까? 관계들. 우리의 심오한 생각을 요하는 책입니다.



발표 : 북모듬 김은경

③ 강아지똥

권정생 글/정승각 그림

도서관 화분에 고양이가 똥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보기도 그랬고 여름이라 파리가 왔고, 아이들과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책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본 생명의 눈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습니까.

강아지똥을 다시 보며 친한 지인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아이와 다른 좀 특별함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적응이 좀 힘들었다네요, 환경변화로 대소변을 잘 못 가렸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바지에 응가를 한 아이에게 엄마가 응가 할 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답니다. 아이가 '음~토끼 똥구멍에서 꼬리가 쑥 옥하고 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나를 잘 지내긴 하는데 평범한 기준만 강조하는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1년 내내 아이와 엄마가 힘들다고 해요.

어떤 곳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빛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흙덩이와 강아지 똥처럼... 아이의 특별함도 평범함의 강요로 상처 받지 않고 빛 발할 수 있는 인정받는 어떤 것(?)과 만나길 바랍니다.

작가의 시선이 참 섬세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림책이네요.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자신의 쓰임새와 역할이 있다는 교훈을 무겁지 않게 똥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로 접근한 것도 좋았습니다!

책표지 가장 앞면은 강아지가 똥을 싸고 있고 가장 뒤표지는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내용을 읽기 전에 상상력을 자극하고 읽은 후에는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민들레와 강아지 똥이 같이 비를 맞는 장면인데 앞 장면은 크게, 다음 장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앞 장면에서 비를 같이 맞는 느낌이 들고, 강아지 똥의 호기심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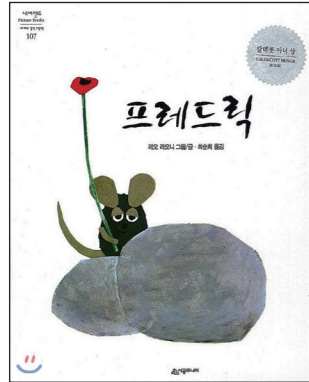
두 번째 장면은 여름 소나기 내리는 모습에 압도되는 느낌, 그 속에서 작게 빛나는 민들레와 강아지 똥이 우주의 전체이자 일부인 느낌을 주네요. 민들레가 피어나는 장면의 화려함은 환타지를 보는 느낌이고 현실로 와서는 양증맞고 귀여운 민들레가 핀 모습을 보면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림의 톤이 무거워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저하된 친구들에게 자존감 상승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책??!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은 없으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권정생 선생님의 의도가 아닐까??

내가 즐겁게 하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책!



발표 : 서모듬 이신우

④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글,그림

■ 표지를 넘기면 나오는 면지에 웬 낙서들이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니 '프레드릭 프레드릭 프레드릭.....' 프레드릭을 화면에 가득 채운 이유가 뭘까? 프레드릭이란 존재가 중요해서일까?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걸까? 누가 뭐래도 프레드릭은 자기를 사랑하는 생쥐입니다. 앞뒤 면지를 가득 메운 '프레드릭'이라는 글자는 '난 프레드릭이야, 그래서 난 행복해'라고 수줍지만 해맑게 얘기 하는 듯합니다.

■ 프레드릭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1. 마음의 양식

추운 겨울에 들쥐들이 무료하고 따분해질 무렵, 프레드릭은 봄부터 가을까지 자신이 한 일들을 들쥐들한테 전해주세요. 다른 쥐들은 먹을 식량을 모았지만, 프레드릭은 마음의 식량을 모은거지요. 마음의 양식을 모으는 행동이 언제부터 중요해졌을까? 사회가 발달하고, 인간이 먹을 것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이 중요해졌을 테지요. 단순사회에서 복잡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지금 한국사회는 먹을 것에서는 자유로워졌다고 봅니다.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사회이고 그래서 프레드릭처럼 다양한 사고를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기다림의 시간

프레드릭이 일하지 않고(스스로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를 모으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는 '멍 때리는 시간'이지요.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들쥐들은 지켜봐주었고 그래서 겨울에 프레드릭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이 갖춘 능력이 발현되는 시점이지요. 긴 '멍때림'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긴 시간이었지요.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른들은 지금 순간의 모습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조급해합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성숙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기다림끝에 우린 시인이 된 프레드릭처럼 무언가 자신의 길을 찾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책장을 덮기 전에 또 면지를 가득 채운 프레드릭 글자를 만나네요.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아이의 이름이 여기에 덧씌워지네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린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항상 마음 가득히 아이의 이름을 채우고 있지요. 먼 기다림 뒤에 당당히 한 인간으로 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3. 프레드릭의 자존감

누가 뭐래도 프레드릭은 자기를 사랑하는 생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주변(사물이든 친구든)을 둘러볼 여유도, 사랑할 여유도 생기는 거겠지요. 예술가 프레드릭은 그 넉넉함으로 겨울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쥐들의 아름다움도 찾아줍니다. 봄,여름,가을,겨울... (하늘에 사는 들쥐 네 마리는 프레드릭의 친구들의 상징일겁니다.) 하나 하나가 소중한 조화로운 존재라고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나를 사랑해서 얻는 행복'은 프레드릭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네 마리 생쥐들의 것도 되겠지요. 예술의 힘입니다.

4. 건강한 예술을 만든 건강한 노동

프레드릭이 친구들에게 한번 아부한 걸까요? 아니요, 프레드릭은 순수한 예술가인걸요~^^ 저는 프레드릭처럼 당당하게 여름 햇살과 색과 이야기를 모으는 예술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넌

시인이야'라는 친구들의 찬사에 수줍지만 해맑게 '나도 알아'라고 합니다. 예술가 프레드릭의 어디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네 친구들을 빚대어 봄,여름,가을,겨울이란 이름을 붙였다면 그건 진심입니다. 프레드릭의 순수하고 진지한 눈은 맘뉘려 일하는 친구들의 위대함을 알아챘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서로의 모자람과 남음을 덜어내고 채워주는 조화로움을 꿰뚫어본 것입니다. 감동했고, 사랑했고, 시가 됐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건강한 예술가는 건강한 노동 안에 태어났고 건강하게 성숙해 갔습니다.

■ 표지 속의 프레드릭 프레드릭을 찬찬히 훑고 나서 표지를 보면 프레드릭 손안의 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프레드릭은 뭔가 '아름다움'을 전하려 하는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뻑뻑해지는 우리의 일상... 꽃을 건네며 프레드릭이 말하는 듯 합니다. —당신에게도 꽃을 선물할게요, 꽃이 보이나요? 이제 당신도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 읽고 나서 - 개미와 베짚이가 생각이 났어요. 프레드릭이 가족의 한 구성원 속의 아이라면 엄마아빠 언니오빠가 일하는 동안에 오로지 혼자서 열심히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해서 기특하고 이뻐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의 하나라면 민폐 중에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프레드릭의 친구라면 프레드릭이 노는 걸로밖에 안보이니깐요. 그런 프레드릭을 친구들은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마도 프레드릭이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해줬기 때문이겠지요.

- 주변에도 프레드릭이 꽤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일반인들을 다르게 보는 성향도 있지요. 저는 프레드릭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름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이고 사는지 생각했습니다. 읽는 내내 사실 프레드릭이 알밋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러면 진짜 싫을 것이라며 읽어나갔습니다. 마지막 프레드릭이 '나도 알아'에서 뒷목을 잡았지요. 다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 프레드릭이 없다면 늘 이렇게 싫어 좋아, 왜 나만 더 일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할 텐데 나와 다른 프레드릭이 있으니 나를 돌아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소중한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묵묵히 자신의 꿈을 찾거나 생각을 전하는 프레드릭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나는 아무래도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었나봅니다. 15년 전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프레드릭이 다른 친구들 일할 때 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친구들보다는 프레드릭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와 오늘~ 이번 그림책 강좌를 같이 듣게 된 우리 도서관 활동가 분들과 우리 조원들의 독후 감상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나는 왜 한 번도 그런 생

각을 못 했을까? 혹시 나도 프레드릭과 닮은 점이 많은 건가?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민폐를 많이 끼치진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큰 딸도 아들도 아니다보니, 의무나 책임이 크지 않았고, 교회나 친척들 모임에서도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언니들이 든든하게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별 걸 다 못 해서 “이걸(나) 어따 써”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비난처럼 느껴지거나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며 마음을 편히 가졌고, 아무것도 잘 하는 게 없으면서도, 무엇이든 못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나는 “좀 느리게~ 천천히 하고 싶다. 중간 중간 쉬면서 하고 싶다.” 이상주의적인 것도 프레드릭을 많이 닮았고, 특히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살짝 충격이 왔던, 우리 조원들의 감상을 읽으면서 역시나 양면성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균형도 중요하겠지요. 친구들보다는 프레드릭에 가깝지만,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반성하고 달라질 일입니다. 다만, 프레드릭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다른 일과의 차이 등에 대해 친구들과 소통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발표 : 서모듬 박영주

⑤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글, 그림

처음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었을 땐 감기 걸린 물고기 모습이 상상이 되어 단순한 재미를 느꼈는데 혼자서 다시 보니 큰 물고기의 한마디에 고민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헛소문이 아닌지 좀 더 의심하고 확인하면 좋을 것들을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혹시 내가 큰 물고기였던 적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 이었다.

감기 걸린 물고기를 볼 때 마다 탄핵과 민주화 과정이 생각난다.

그래서 이 책은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토론의 물꼬는 터주는 그림책 같다.

큰 물고기의 의도된 가짜 소문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생각났다. 요즘처럼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힘든 사회에서 영혼이 담긴 핵심가치를 늘 토론하고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감기 걸린 물고기가 알려준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누군가 감기에 걸렸다 할지라도 함께 이겨낼 힘이 생기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기 걸린 물고기’를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짓이 진짜로 포장이 될 수 있구나 였다. 요즘처럼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접하는 시대가 열렸다. 너도나도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진실로 포장된 거짓 소재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 큰 물고기가 작은

빨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며 큰 소리 치며 강하게 나오다가 무리지어 있는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모습에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떠올랐고 세 번째는 몇 년 전 우리 사회가 메르스 공포에 휩싸였을 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림을 그리다보면 구도를 맞추거나 예쁘라고 집어넣는 장치들이 있다

감기 걸린 물고기에서는 ‘크고 욕심 많은 놈’ 과 끼리끼리 뭉쳐 ‘더 거대해진 놈’ 그 사이에 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작은 놈들... 불가사리들과 조개, 거북, 게, 문어들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중 빨강, 파랑 불가사리가 눈에 띄었다. 비교적 편한 표정의 게나 조개 같이 큰 놈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삐질삐질 땀 흘리며 무척 불안해한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진땀 빼는 남, 북처럼 보여 안쓰럽기 까지 하다. 게다가 문어는 처음엔 안보이다가 장님처럼 검은 안경을 끼고 입을 오므린 표정을 짓고 등장 하는데 힘의 관계가 바뀌는 순간마다 검은 안경을 쓰고 벗으며 ‘세상 참 편하게 사는 놈이 구나’ 싶다. 이쯤 되면 그 작은 놈들은 작가가 일부러 넣은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흔히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 이유가 듣기에 더 힘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도 그러 할까? 듣고 전달할 때, 생각과 가치관은 분명한 기준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야 마는 것처럼.

감기 걸린 물고기들의 상황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큰 물고기 대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임에도 자칫 방심하는 순간 인간질하는 한마디에 흔들리자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역감정, 인종차별, 남과 북 등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이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 귀를 간질이고 있다. 진실이 아님에도 솔깃해하고, 한 마디를 거들었을 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그 화살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교훈을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으로 전해주고 있다. 우화처럼 들려주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고 어른에게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

왜 하필 물고기 일까? 그것도 감기에 걸린 물고기란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심 이 사람 관찰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졌다. 사회에 던지는 비판의 메시지,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흐름,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매순간이 마치 서스펜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검은 물고기가 말한다.

‘죽어도 없는 회색 물고기 같으니라고’,

회색 물고기가 말한다. ‘검은 물고기는 속을 알 수가 없어’

이 말이 책을 덮어도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다. 정말로 진실인지, 믿어도 되는지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조금 피곤한 일 일지라도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보고 가짜를 가려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이 책이 말해주었다.



⑥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이타니 겐지로 글, 초 신타 그림

발표 : 동1모둠 김미선

글 작가는 하이타니 겐지로로 유명한 작가이다. 17년 동안 교사로 지내며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셨다. 순수하고 내적인 힘을 가진 아이들의 세계를 주로 많이 그린 작가이다. 그림은 초 신타가 그렸다.

이 책은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의 모습이 나오는 표지로 시작된다. 일본 문학에는 구덩이를 소재로 한 책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타로의 '구덩이(북뱅크)'라는 그림책도 있다. 거기는 자발적으로 구덩이에 들어간 아이가 나온다. (일본 작가 하루키의 작품에도 구덩이나 우물에 빠진 이미지는 많이 나온다.) 여기에는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가 나온다.

이 책은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보다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를 보는 아이들,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다. 아이들과 구덩이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더 중심에 있다.

자꾸 아이들이 1학년인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딱 그만큼의 시선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 방식이나 생명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순박하고 순수하다.

로쿠베가 개라서 어른들이 내버려뒀지만 사람이라면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 어른들의 비겁함과 아이들의 순수한 행동, 의지는 대조적이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구덩이에서 짙은 소리만 듣고 로쿠베인 것을 안다. 그걸로 봤을 때 로쿠베가 누구네 집개 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 로쿠베를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어른들은 로쿠베를 그냥 개로 보지만 이 아이들에게 로쿠베는 개별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태도는 이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 비겁한 게 맞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만큼 로쿠베는 귀한 존재가 아니다. 아이들에게만 개별적이고 소중한 개인 로쿠베가 구멍에 빠졌기에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쿠베를 구해낸다.

근데 로쿠베는 정말 누구네 집 강아지였을까? 이 아이들은 로쿠베의 울음소리도 알고 있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으며(비눗방울), 힘내게 하려고 목청 높여 노래도 불러주며 심지어는 여자 친구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자기네 개라는 둥, 누구네 개라는 등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아마도 로쿠베는 동네아이들 모두가 합심해서 키우는 개 일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 모두가 이름을 지어주고 관계를 맺어 온 개일 것이다.

동물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1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좋은 것 같다. 그림책에 나오는 아이들은 내내 미관을 찌푸린 심각한 상태이다. 마지막 장면에서만 웃고 있지만 한결같이 진지하고 심각하다. 세로로 된 그림으로 구덩이를 보면 구덩이의 깊이가 아이들의 힘만으로는 그냥 로쿠베를 구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

1975년 쓰인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에 걸린 것은 남녀차별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를 구하기 위해 형들이나 아빠들이 필요한데 모두 일요일이 아니라서 아빠들도 집에 없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내려갈게" 라고 얘기하는 칸에게 '남자답다'는 표현이 쓰여 있기도 하다. 요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내려가려는 아이들을 말리는 것은 사실 엄마로서는 당연한 거다. 아이들이 들어가기엔 깊은 구덩이이고 구덩이에 정말로 나쁜 가스라도 나올 수 있으니 엄마들로서 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비겁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자기들에게 소중한 존재인 로쿠베를 외면하는 어른들을 달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곧 등장하는 아저씨인 남자 어른도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라는 소리를 할뿐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 로쿠베를 구할 사람은 오직 아이들뿐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절실히 머리를 굴린다. 로쿠베를 기운 나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비눗방울을 불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로쿠베를 위한 것을 애써 생각하다보니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가 닿게 된다. 로쿠베의 여자 친구 쿠키를 바구니에 태워 내려 보내고 그 바구니에 로쿠베와 쿠키를 다시 태워 끌어올린다는~. 결국 멋지게 성공한다. 온전히 아이들만의 힘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이다.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때 누구도 해결 방법을 미리 알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하다보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보니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아이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비겁하지 않은 어른이 한명이라도 껴있었다면 써먹지 못했을 방법일 것이다. 아이들만이 머리를 굴리고 간절히 로쿠베를 구하고자 했기에 나온 방법이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리듬감이 느껴진다. '살살', '아슬아슬' 같은 표현들이 리듬을 준다.

1학년이라는 나이가 주는 세상을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순수함을 품고 자기의 소중한 존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어린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다. 지금은 '비겁한' 어른이 되어 있지만 그 어른은 나름대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존재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비겁하지만 어른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비겁하지는 않다.

그림을 봤을 때 맨 처음 장면은 컴컴한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의 소리만 들리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이들은 빠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아이들이 모여들어 구덩이를 보고 있는 모습 속에 구덩이는 초록색으로 밝게 보여준다. 아마도 아이들이 구덩이에 모여들어 어두컴컴한 구덩이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희망의 모습. 그 색채가 이미 로쿠베를 구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책을 볼 때 그래서 슬프고 절망스럽지 않다. 경쾌하고 희망적이다. 그걸 색채에서 보여준다.

또 편집이 무척 규칙적이다. 아이들을 보여주는 장면(구덩이가 보이지 않음), 구덩이 속 로쿠베, 그 다음은 아이들과 구덩이 속 로쿠베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 곤란한 존재를 직시하는 아이들의 모습. 어른들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어른들은 구덩이를 보고, 아이들을 자세히 보지만 구덩이 속 로쿠베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덩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을 더 열심히 보는 듯한 모습이다.

스토리에 박자감이 녹여 있는 것 같다. 색채에 판형, 장면을 나누고 늘리는 방식에서 잘 느껴진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그려내고 포착한 이 그림책은 그렇게 어른에게는 잃어버린 순수함을 아이들에게는 로쿠베를 결국 구해냈다는 뿌듯함과 다정함을 선사하는 그림책이다.



⑦ 나무는 좋다

재니스 메이 우드리 글, 마르크 시몽 그림

발표 : 동1모듬 김애경

“나무는 좋다”라는 그림책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 편안하고 공감되는 감정을 받은 것 같다. 책을 읽고 느낀 책의 첫인상을 이야기 해보니, 다시 태어난다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책의 색감이 편안해서 안정감을 준다. 나무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무는 우리의 삶에 우호적인 감정을 주는 존재이다 등으로 나무를 주제로 한 그림책 중 사람이나 나무의 일방적인 한쪽의 시선이 아닌 나무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그려져 더 좋은 그림책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나무는 좋다”는 1956년에 출간된 책으로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출판 되었다. 그러면서도 나무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앞서 있었다. 또한 앞선 시대적 감각(책의 세로 판형, 함축되고 간결한 문체)의 표현으로 “나무는 좋다”는 오래된 그림책이면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나무는 좋다”는 색채에서 주는 안정감과 색채가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나무와 하고 싶은 것들이 편안하게 표현 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림 속에 들어가 여유를 느끼고 싶도록 표현 되었고, 나무의 존재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나무는 좋다”는 나무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쓰임이 관상수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와 함께 스킨십 하는 나무를 표현해 주어서 더 좋았으며, 마지막도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함이 강조 된 것 같아 좋았다.



⑧ 뒷집 준범이

이혜란 글, 그림

발표 : 서모듬 김은천

1. 지금은 엄마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지만, 나도 뒷집 준범이처럼 할머니를, 엄마를, 아빠를 종일 방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적이 있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준범이는 혼자, 나는 둘이라는 점. 그리고 할머니가 올 때까지 문밖을 나서지 못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준범이는 어른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 나는 말을 잘 안 들었던 아이라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일까?

처음 준범이의 시선이 미래의 시점처럼 보이기도 했다. 준범이의 이야기가 중간쯤 갔을 때 준범이의 시선이 그림책에서 바로 지금 갇혀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내려앉았다. 외로웠겠구나, 어두운 곳에서 무섭기도 했겠구나, 지금 준범이가 옆에 있다면 안아주고 싶은 만큼 복받쳐 올랐다.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보았을까. 준범이를 본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내 마음도 사르르 녹아버렸다. 사랑스러운 준범이 따뜻한 이웃들. <뒷집 준범이>는 막막하고 딱딱한 마음을 이제 그만 풀고 서로 따뜻하게 감싸주라고 말하는 것 같다.

2. 겉표지와 책 내용이 끝날 때까지 뽀뽀뽀뽀한 글씨체는 내 아이가 쓴 것처럼 귀엽고 친숙하게 느껴진다. 준범이 혼자 방에 있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갑갑하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아 우울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준범이에게 같이 놀자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준범이집에 우르르 여러 가지 밝은 색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은 마음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이 가장 좋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며 재미있게 노는 모습에 준범이는 혼자 아니었구나, 옆에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에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얘기하는 귀여운 준범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보고 싶어진다. ^^

3. 이런 게 <관찰자 시점>일까? 제목이 <뒷집 준범이>인걸 보면 누군가 준범이 집주변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준범이의 심리상태를 알려주고, 책을 읽는 사람은 준범이가 보는 세상을 또 관찰하고 공감하게 된다.

이 책의 시각적인 부분은 그 시대의 생활환경을 표현하지만 등장인물관점에서 보면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인물관찰 같이 느껴진다. 준범이가 남의 세상을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그 이야기가 어느새 외락 내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편안하다.

준범이는 떠들썩하게 노는 애들을 쪽 보아왔고, 잘 알고,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는데 스스로 나가지 못한다. 이 그림책은 스스로 틀을 무너뜨릴 수도, 그럴 처지도 안 될 때 여러 사람이 <확 쳐들어가 주다> <같이 경계를 넘어주다> 그런

거침없는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서 좋다. 준범이는 그런 이웃과 동네친구들의 선한 역할이 있어 든든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틀을 못 깬 심리적인 벽을 순식간에 허물어주고, 보듬어주는 <다수>가 고맙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책에서 준범이의 이웃집 아이들이 <머뭇거리던 경계를 다같이 유쾌하게 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요즘세대는 마구 그랬다간 관찰을지 모르겠다. 그 시대만 통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한다.

4. 제목부터 '뒷집'이 들어가 있어서 밝음보다는 어둠이 느껴진다. 속지를 넘겨서 속표지를 보면 그림이 70년이나 80년대쯤으로 보인다. 작가는 독자를 과거로 소환하고 있다. 미용실과 슈퍼와 중국집 모습이 준범이의 시각으로 묘사된다. 이 세 가족은 프레임 안에 있어서 준범이가 보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프레임이 커지다가 프레임이 없어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준범이의 마음이 그 쪽으로 완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장면이 바뀐 준범이 방은 아주 캄캄하고, 창 한쪽만 환한 빛으로 표현되어 있다. 준범이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캄캄한 방의 묘사는 계속 이어진다.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곳에서 준범이는 혼자 시간을 보낸다. 밖으로 나오라는 아이들 성화에도 나가지 못하는 준범이의 마음이 캄캄함으로 표현된다.

마침내 아이들이 준범이네 집으로 들어오고 준범이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먹는다. 혼자 놀던 준범이가 아이들과 같이 놀게 되어 안도를 하게 된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준범이를 위해 집으로 들어온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정말 다행이다.

5. 전체를 연필로 그리고 채색하여 무채색으로 표현되어 어두운 분위기이다. 앞표지는 건물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면지를 넘기면 사각 프레임 안에 강희네 가족 모습이 담겨있고, 준범이가 어두운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시작 된다.

사각 프레임 안에서 등장인물 소개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강희가 준범이를 발견하고 나서야, "너도 이리 와. 같이 놀자."고 하는 부분에서 사각 프레임이 없어지고 면을 넓게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는 준범이의 방이 그려지고 환한 네모창이 작게 그려지고 밖을 내다보는 준범이가 보인다. 준범이가 이렇게 밖을 보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질러진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짠하다. 혼자 티비를 보는 뒷모습에서는 내 아이의 뒷모습도 보여서 울컥 하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아이! 얼마나 나가고 싶을지, 뒷모습이 말해주고 있다. "준범아 놀자." 하고 길이 그림과 하나가 되면서 준범이의 얼굴이 보여 지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밝은 햇빛도 같이 오는 거 같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강희 엄마가 짜장면을 창 너머로 건네주는 장면이다. 강희엄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따뜻한 어른 같다.

뒷면지를 보면 이제 준범이네 집이 보인다. 할머니한테 오늘 친구들과 논 이야기를 하나 보다. 뒷표지를 보면 이제는 준범이와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까지 나와서 어울리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준범이가 더 이상 방안에만 있지 않아서 마음이 놓인다.

6. 준범이에게 다가오는 아이들, 창문으로 짜장면을 건네는 강희 엄마를 보면, 공동체에 대해 열려 있는 어른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우리 해오름 작은도서관의 활동가 선생님들도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를 돌보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준범이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돌봐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찾아보아야겠다.

발표 : 남모듬 임희정



⑨ 까마귀 소년

아시마 타로 글,그림

아시마 타로(본명 이와마츠 준)는 1908년 일본 가고시마에서 태어나서 큐슈 서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단조로우면서도 섬세한 문장 때문에 아시마는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까마귀 소년>(1956년), <우산>(1958년), <바닷가 이야기>(1967년)는 모두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다. 아시마는 남가주 의회에서 주는 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또 1974년에는 Southern Mississippi's Silver Medallion 대학에서 주는 보상금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아시마의 작품은 많은 공공기관과 개인의 소장품이 되었고,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어린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게 합시다. 이 세상의 악에 무너지고 비틀러지지 않는, 강건한 어린이가 되게 하자구요.”

땅꼬마는 다른 아이들과 할 줄 아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낯설음 때문에 소외당하지만, 이소베 선생님이 오고 나서는 자신의 특이한 점을 장점으로 발현하게 된다. 땅꼬마가 뒷산과 꽃밭을 자신만만하게 다니는 장면은 같은 색채의 그림이지만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동틀 무렵과 해질 무렵을 오롯이 혼자 느끼고 바라보며 깨달았을 땅꼬마의 감수성이 이소베 선생님을 통해 빛을 발한다. 더군다나 그 먼 길을 걸어 6년 개근이라니, 상 받을 만 하다.

첫인상은 그림 때문에 무섭고 괴기스러운 느낌이다. 하지만 내용은 그림과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까마귀 소년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표현하면 이런 그림일까? 하는 생각도...

땅꼬마가 까막둥이가 되기까지 잘 있어주어 너무도 대견하고 고맙기까지 하다.

책을 읽고 나는 이 책에서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나는 땅꼬마인가? 땅꼬마라고 부르며 따돌리며 놀리던 아이인가? 다 지켜보면서 그대로만 지내온 아이인가? 선생님인가? 이소베 선생님인가? 눈물을 흘리며 울던 어른인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생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단 한 사람으로 한 생명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 사람은 다른 여러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나는 누가 되어 어떻게 살지 꿈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학교에 간 첫날부터 학교 캄캄한 마룻바닥 밑에 숨어있는 땅꼬마의 존재는 약하다. 심지어 아는 애도 없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명료하고 힘이 있는 존재가 된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괴롭힌 땅꼬마를 미안해하며 우는 장면은 찢어지기까지 하다. 땅꼬마가 내는 까마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학예회에 발표까지 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이 혼자 5년을 견디며 자신을 담고 쌓아온 시간, 이소베 선생님을 만나 풀고 보여 낸 1년의 시간. 그리고 땅꼬마가 까막둥이라 불리게 된 졸업 이후까지 작가는 자기 몫을 해내며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도 보여준다.

아이가 만난 모든 시간이 허투르게 없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다.

나는 이런 까막둥이가 부르는 행복한 까마귀 소리를 그림책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까?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 후기

1. 아카데미를 마치는 소감

강의 후기 ① (박영주)

그림책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림책 모임을 하면서 짚어내지 못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에 항상 목이 말라 있었는데 강무홍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깊이란 이런 것이구나 절실히 느껴졌어요.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담아내는 깊이를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보니 이제야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의 후기 ② (김미선)

그림책은 제게 여러 문턱을 가지고 있는 장르입니다. 어린이 문학이지, 그림을 봐야 하는 거야 글을 봐야 하는 거야, 그림책이라 불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거야 라는 질문을 종종 책을 앞에 두고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강의는 참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그림책을 문학으로 바라보고, 그림으로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더해 연약한 생명을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강무홍 선생님의 시선으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강의 후기 ③ (정나형)

매사에 젓밥에 관심이 더 많은 저는 이번에도 공부보다는 사람에 더 취했던 것 같습니다. 멀찍이서 얼굴만 알던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고 인연을 맺는 게 좋았고, 나들이처럼 가는 도서관 구경이 즐거웠습니다. 작은도서관 대선배님들의 애길 귀 동냥하는 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강의 후기 ④ (이은영)

그림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열의와 함께, 간혹 강의 중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선생님을 보고 그림책 깊이 읽기의 실체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마지막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일상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신부터 작은 일상의 힘을 발견해내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일상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야기는 힘이 세고, 강의에 함께 한 우리 모두도 힘이 셀 거로 믿습니다.

강의 후기 ⑤ (이신우)

강무홍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때 저는 매번 눈물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동에 벅차 저도 모르

게. 인생강의로 잊지 못할 거예요.

강의 후기 ⑥ (음민서)

하나의 예술장르로서의 그림책을 선생님의 깊은 시선과 철학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전해주시는 가르침에 매번 감동합니다.

강의 후기 ⑦ (임희정)

그림책과 함께한 깊고도 넓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후기 ⑧ (곰세마리)

강사님의 따뜻함이 여전히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림책 작가님들의 마음을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려고 애써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따뜻하게 살아요!!

강의 후기 ⑨ 오세윤

강무홍 선생님을 직접 뵈게 되어 좋았습니다. 눈물, 감동, 진정성, 경청, 사람과 동물에 대한 사랑 등등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같이 하신 작은도서관 선생님들 열정과 희생에 박수 드립니다.

강의 후기 ⑩ 김은천

그림책을 깊이 보는 시간뿐 아니라, 넓게 보도록 확장해 주는 강의였습니다. 그림, 건축, 음악까지 넓혀 주셨어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으면 그림책을 이해하는 폭도 커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강의 내내, 선생님이 골라주신 그림책과 강의 내용을 통해 생명, 평화, 존중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오름의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네 명이 이후 독서 모임에서 중심을 잘 잡고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현장 스케치





스스로 아카데미 후속 모임



(가칭)그림책 유랑단
 발대식
 일시 12월 28일 금요일 10시
 장소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작은도서관
 대상 <스스로 아카데미-그림책 깊이 읽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림책을 같이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
 교재 강무홍 선생님께 추천받은 '그림으로 글쓰기'

기획 공모 4 - 울산

작은도서관, 청소년에게 다가서다

(준)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에 봉사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단순 봉사만이 청소년이 작은도서관과 함께 할 일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도서관이 청소년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선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해보자!'

(준)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기획공모에 선정된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는 울산 북구에 있는 33개 사립작은도서관 중 13개 네트워크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지게 된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북구청 도서관과와 구청장, 구의원들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과 작은도서관운영자 교육 및 책잔치 계획 참여, '스스로' 아카데미와 독서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북구청장과 더불어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울산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참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및 책잔치 계획참여와 독서동아리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의 배경으로 각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에 봉사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자의가 아닌 타인(부모님)의 의사로 봉사점수만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찾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여 '단순 봉사만이 청소년이 작은도서관과 함께 할 일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도서관이 청소년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선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이렇게 진행했어요

● 일정안내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1월 26일(월) / 5회

장소 :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공릉청소년센터, 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

● 세부일정

| 일 시 |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 비 고 |
|----------|---|------------------------------|
| 11/5(월)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1단계 [인권, 교문을 넘다]를 읽고 토론하기 (배경내 외/ 한겨레에듀) | 김양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교육부장 |
| 11/7(수)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2단계 대안학교에서 만난 청소년이야기 | 문순현 사랑의 학교장 |
| 11/12(월)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3단계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토론 | 곽빛나 밀양청소년인권활동가 |
| 11/21(수)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4단계 : 답사 공릉청소년센터/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 도서관에서 만나는 청소년이야기 | 최향숙 깔깔깔도서관장 |
| 11/26(월) | 아카데미 평가 및 토론회 | 김양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교육부장 |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1단계

1. '두발 자유'에 대한 생각나누기

- 학생은 학생답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두발자유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질서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것이다.
- 갑작스런 자유를 청소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
- 무조건적인 금지로 몰래하게 하는 것보단 허용하여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건전한 해결책일 것이다.

2. 휴대전화와 청소년

- 휴대폰 금지조치에 대한 주체가 어른인가? 청소년인가?
- 아이들의 생각 중에는 현 시스템에 불만이 없으나 어른들이 오히려 문제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 중독에 대한 이해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믿고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

3. 청소년 이성교제

- 첫 경험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피임방법 등 실질적인 성교육 필요
- 보건실에 자유롭게 가져 갈 수 있는 피임도구(콘돔 등)를 구비
- 남녀의 성관계 인식차이를 없애고, 존중과 책임의식을 교육
-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부모의 적당한 무관심도 따라주어야 한다.
-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

4. 정리

- 우리가 자라온 세대는 의구심 없이 규율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생활이라 인식해왔다.
-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 대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 지금 학생들의 상태를 억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억압까지는 아니라고 인식한다.
- 기성세대인 우리 때보단 자유로워졌고,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 규제에 대한 의견은 필요와 불필요 두 부분으로 의사가 갈렸다.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2단계

대안학교에서 만나는 청소년

- 청소년을 학생과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다같은 청소년으로 보아야 한다.
- 연민은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을 걱정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이다.(수잔 손택)
- 이렇듯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같이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질문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자!
- 인생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키워 주어야 한다.

● 사랑의 학교

- 2013년 개교, 여성가족부 설립인가 비영리 사단법인
- 청소년 교육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 단체
- 도시형 대안학교
- 사랑의 학교는 Choice, Learning, Sharing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의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수선화에게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3단계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1. 학생인권조례란?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보장
- 양심, 종교의 자유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표현의 자유보장
-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 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구제

2.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이야기 나눔

- 청소년은 인생을 잘 모를 나이인가?
-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인지 성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 조례에 대해 확대해석하는 몇몇 어른들에 의한 잘못된 여론조장이 문제가 된다.
- 본래부터 있어왔던 소수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양지로 나오게 되는 양상을 마치 새로운 문제가 생긴 듯 인식함으로 생기는 오류들이 생긴다. (ex. 성적 취향, 종교, 자유의지)

3. 생각해 볼 문제들

- 학교가기 싫어 안가는 학생 vs. 가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않아 못가는 학생
- 13세 메이크업하는 것 vs. 30대의 노메이크업
- 19세에 결혼하는 것 vs. 30대 넘어 독신으로 사는 것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4단계

- 현장답사 -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청소년문화의 집과 도서관이 공존하는 복합시설
- 전국최초 청소년 융합시설로 노원구청에서 설립, 성공회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 프로그램은 단지 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초대장 일뿐 만남과 관계의 지속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기 보다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여 열린 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청소년포함) 에겐 친절과 환대가 있는 애착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 도서관이란 담론을 만들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문화공간 깔깔깔

- 고양시에서 설립하고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우선 공간
- 철저히 1318을 위한 공간으로 어른들을 차별(?)한다.
- 관계의 중요성과 진정한 어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 프로그램 후 설문조사와 같은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책을 들이대기보다 그들이 필요한 정보위주의 북큐레이션 등 스스로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청소년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5단계

-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 -

●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

- 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 자녀가 어릴 경우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봉사자에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았다.
-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더 늘어났다.
-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 선입견 없는 운영자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계기가 되어 좋았다.
-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 청소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찾아주는 청소년을 반갑게 맞이하고 아는 척 해주자.
 - 걸으면 멧쩍어하지만 반가워하니 좋아한다. 그리고 편히 있을 공간을 만들어준다.
- 아이들을 걸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자.
- 처음부터 말을 낮추기보다는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무엇을 하던지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
 - 그들도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각 작은도서관 성인자원봉사자들도 청소년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작은도서관에서 뭘 해 볼 수 있을까?

- 무슨 일을 하던지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고 자발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한다.
 - 다소 미흡하더라도 다 해주기보다는 기다리고 지켜봐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 찾아와주는 청소년을 환대해주고 각 작은도서관 여건상 가능하다면 공간을 마련해준다.
 - 동아리방이나 눈치보지 않을 공간이 여건상 가능하다면 마련해 주자.
- 주말이나 방학 때 책임자를 두고 도서관을 대여해 줄 수 있다.
 -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치회나 관리사무소와 미리 협의 필요
 - 혹시나 발생할 사고에 대한 예방책 필요
- 방학 때 모집할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단을 만들어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동의필수)

- 청소년자원봉사는 학교동아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빅북만들기, 책읽어주기,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다.
- 자원봉사와 책 읽어주기에 대한 메뉴얼을 작성하여 각 운영자에게 시연하고 작은도서관 청소년에게 자체교육을 해 보자.
- 내년 구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자 교육 때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 해본다.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 후기

● 하현숙(양정)

: 이번 교육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청소년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협의회 사람들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청소년에 다가서 있는 우리도서관을 볼 수 있겠지요.

● 김정숙(아름드리)

: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시간을 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매번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하면서 막연한 생각들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어요. 좋은 운영자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더 좋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하태연(책가방)

: 스스로 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조금은 무관심했던 마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도서관에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른들의 사고가 많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나 자신부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모습들을 반성할 수 있었던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 강삼복(책놀이터)

: 저희 도서관처럼 청소년을 거의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올까?' 하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걸 얻고 싶었는데 여전히 답은 없네요...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용기를 내보려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원하는 책부터 좀 들여놔야겠어요. 그리고 한번 온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생각해봐야겠죠? 앞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 이번 교육 좋았어요.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송미화(푸른)

: 작은도서관에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만하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 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작은도서관이라서 더 오기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만이 공간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 엄마 친구의 시선을 피해 구립같은 큰 도서관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청소년만을 위한 열람실 운영시간대를 가져볼랍니다.

● 서정선(책사랑)

: 스스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청소년에 대해 별관심도 없었지만 교육이 1회 2회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이 이렇게나 많았는지 우리는 사소한 권리마저도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청소년기를 거쳐 왔고 고민했던 일이지만 잊고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계기로 청소년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하고 엄마가 아닌 선배로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최영순(다울림)

: 청소년에게 다가서고 싶다고 하였지만 교육받는 동안 참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편협한 시선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보여지는 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고 편안한 쉼터의 역할부터 서서히 해볼까 합니다.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 허미진(책마루)

: 청소년에 관해 강의 듣고 견학도 해보고하면 청소년이 도서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이 어떤 도서관을 원하는지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의논하는 시간이 넘 좋았어요.쉽지 않은 서울 견학까지~ 이런 사업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영(햇살)

: 청소년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청소년을 위해 작은도서관이 무엇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나 자신부터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앞으로 청소년을 위해 작은도서관들이 같이 협력하고 고민해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 이현숙(꿈꾸는)

: 도서관 자체에 선입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도 좋지만, 작은도서관은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조금 더 열린, 트인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도서관 앞에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야겠네요.☞방학 중 서가정리, 도서관 주변 청소 등의 학생봉사자는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 박은영(극동푸른)

: 나부터 청소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늘 알고는 있지만 생각으로 그쳤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볼까 합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머물러 안주하기보단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작은도서관 다들 힘 내 봅시다.

● 조명숙(책누리)

: 작은도서관에서 회의를 할 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토요일 운영 의견을 내면 항상 “애들이 올까?”, “꾸준히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하지?”, “비용은?” 등등 시작도 전에 막힌다. “돌파구가 있을까?”,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다가가지?”, “시작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함해보지 뭐’로 발을 내딛어보아야겠다 생각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책도 보고 토론도 하고 견학도 가고 강의도 듣고, 준비하고 진행한 분들에 무임승차한 기분이지만 참여하기를 잘했다. 일단 아이들을 만나야한다. 마음편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편한 시간에 장소제공이 되어야한다. 이해가 어려우면 인정하자. 기다리고 응원하자. 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니 알아서 잘 어른이 되더라. 일단 작은 거라도 당장 실행을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 김양숙(교육위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을 하더라도 큰 틀만 제공하고 세부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까 토론할 때도 자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청소년을 위한”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작은도서관 회의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스스로 아카데미 강의 원고

청소년에게 다가가기

곽빛나

인권이란, 정치적, 직업, 인종, 성별, 나이, 종교, 국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신체,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근대에 와서 확립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은 1991년 가입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이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와 놀 권리이다. 인권이 담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결국 아동 역시 인간이고 국민이며,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2006년 두발자유화 거리 시위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7년 고교별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 철거운동, 부산지역 체벌사망 학생 추모제를 시작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의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기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후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나오지 않은 곳이 많으며, 경남의 경우는 10월 29일 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갖는다. 그러나 보수단체 회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교권을 침탈하고,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야기하며, 동성애를 부추기고 경남을 예멘 난민들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일어난다고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직업과 나이로 차별할 수가 없고,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차별할 수 없고, 인종과 국적으로 차별할 수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벌써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위의 지역의 학교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교권을 침탈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난민들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거니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모르고 있는지 어떤 구성의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두발자유화가 실행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폼이나 염색을 허용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가? 긴머리의 남학생들이나 삭발한 여학생들을 보기가 쉬운가? 학생들로 가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중장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두발 자유화를 누리고 있어도 사회와 공동체의 틀에 갇혀 다양성이 별로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놀라울 정도이다. 성정체성은 누군가가 교육한다고 권유한다고 생기거나 변하지 않는다. 또한 지지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를 지지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Q. 지금 청소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몇 가지의 질문

1. 학교가기 싫어서 자퇴하겠다는 학생 VS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다닐 학교가 없는 장애 학생
2.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화장을 하고 싶은 학생 VS 서른이 넘었지만 화장하고 싶지 않은 여성
3. 결혼이 하고 싶은 19살 동갑내기 커플 VS 독신으로 살고 싶은 30대

이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섯 가지 모두 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주변에 이런 경우에 속하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말이다. 위의 행위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위의 행위로 세상을 살면 따라오게 되는 차별이 두려운지 생각해 보자.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까? 학교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편견과 차별의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 라고 해야 하는지 자퇴를 하면 이후에 세상에서 얼마나 차별 받을지를 말하면서 자퇴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다.

청소년들에게 차별과 배제를 교육시키는 학교

내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있는지,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 성소수자 친구가 있는지, 가난한 친구가 있는지, 부자친구가 있는지, 낯선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는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가 있는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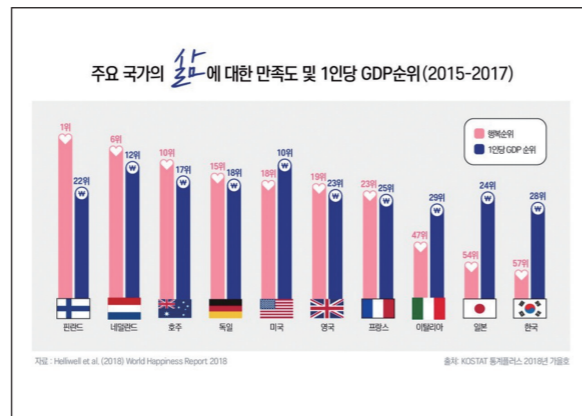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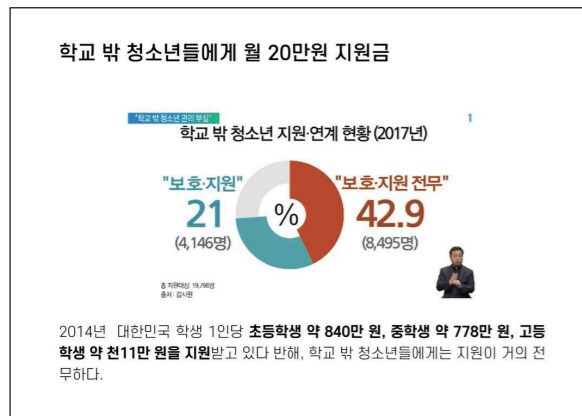
이다.

우리나라는 끝임 없이 구분 짓는 사회이다. 아파트 평수로, 연봉으로, 종교로, 나이로, 그리고 끝임 없이 공포와 분노를 생산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순위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에 35명이 목숨을 끊고,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혼외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이 넘지만 한국은 1.9%로 OECD 국가 중 제일 낮다. 혼외출산이 낮은 나라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낮다.

그 이유는 혼외출산에 차별과 멸시가 없고,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도덕적 판단 따위와 무관하게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자 한국은 오히려 결혼을 장려하고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기까지 한다. 그러나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해외입양을 보낸 나라는 한국이다. 2016년에도 해외 입양된 아이는 334명으로 거의 매일 아기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 OECD국가 중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20만원 지원금.

한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매우 낮은 비율이다. 미국은 7.6%, 독일은 6.5%에 달하지만, 한국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지난해 전국 5만 57명으로 전체 학생의 0.87%정도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2만4천506 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생 만6천4백22 명, 중학생 9천129 순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글은 성매매, 스마트폰 중독, 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2014년 OECD 기준 대한민국 학생 1인당 초등학교 약 840만 원, 중학생 약 778만 원, 고등학생 약 천11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차별과 멸시 역시 학생들보다 심각하다.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사설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 청소년들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을 쥐어 주겠다는 발상은 자칫 이들을 학교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세금 낭비이자 비교육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단순히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문제 청소년일까. 한국교육이 현재 다양한 교육방식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 곳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매 학기 순위로 등급을 나누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학교폭력, 학업문제, 가정불화, 질병, 장애, 취업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이다. 학교를 떠나지 않는 것만이 교육일까?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투표권 확대

OECD 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만 17세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만 18세에 결혼, 취업, 입대, 운전면허 취득, 납세, 9급공무원 지원, 청불영화 관람가능하다. 다만 만 19세가 되어야 술과 담배 구입과 선거가 가능하다.

오랫동안 정치적 참여에 관여해왔던 청소년들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다양한 청소년 연대단체가 참석했다. 과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판단력이 없는 것일까.

정치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데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주게 되면 네거티브, 흑백선전에 휘둘려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우려를 가장 많이 한다. 그럼 흑백선전과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 모든 역량과 의무는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정치적 관심은 연령에 국한되어있는 것이라고 보다 성향의 문제일 뿐이다.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출산도 할 수 있는 나이에 모든 것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세상에서 투표만 자유롭지 못한 일이 더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위에서 계속해서 다뤄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청소년을 우리와 동등한 입장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장애인과 여성과 노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하는 것처럼 청소년도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소유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다.



어른들을 배려하는 청소년?... 과연 그럴까?

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 관장 최향숙

1. 청소년을 만나다...

청소년 하면 연상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마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요.

- 중2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 미친 사춘기
- 눈빛이 이상한 아이들
- 집단이 되면 괴물이 되는 아이들
- 참뻔는 아이들
-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연상되는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청소년들은 우리곁에서 자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신세지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지요.

청소년은 미숙한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청소년은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 성숙해 지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지요. 청소년들의 행동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볼까요?

2. 청소년과 만나는 공간

청소년들은 초등학생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성인과 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특히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춘기'를 둘러싼 문제가 많습니다. 또 10대는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에의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성가치 부정의 경향이 전통적인 가정·사회의 존재양식과 때때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또한 사회적인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며 그들의 행동은 어찌면 충동적이고 방향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한편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연대에 맞는 동일연령의 동료 가운데서만 비로소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타적(排他的)인 동료집단의 규범에 모든 것을 거는 마음이 특히 강합니다. 이 점에서 매스컴의 영향도 한 몫을 차지하여 복장·음악·스포츠 등에서 그들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희망을 표시하는 경향이 표면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밝고 합리적인 생활태도·강한 권리의식·현실적인 행복관·기성권위의 부정 등 일찍이 없었던 적극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아울러 깊이 없는 사고·약한 인내심·얕은 책임감·순간적 행동 등 소극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도 이 연대의 특징입니다.

주변인인 청소년기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어른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합니다. 즉, 주변인은 어린이와 어른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 전기에는 신체의 성장이 현저하며, 성적 관심도 강해집니다. 중학 1학년 시기에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강하며,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쯤에서부터 청년적 특질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교사에 대한 비판이나 반항도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학생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상응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충분히 토의시키고 연구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발한 운동과 동시에 올바른 성교육(性教育)도 필요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기인 청년 중기에는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현저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충분히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과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성인에 의존하고 있었던 아동기와 자주독립하는 성인기와의 과도기이므로, 신체적 변화에의 적응,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친구에의 적응, 장래의 생활설계, 인생관의 확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정신적·정서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대학연령기인 청년 후기는 대학교육을 받거나 직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연령입니다. 이 무렵에는 남녀 모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거의 완료됩니다. 남자는 이 시기에 모든 운동능력이 정점에 이르도록 발달하여, 경기나 모든 종류의 경쟁적 운동에 대한 관심이 강렬해집니다. 정서적으로는 감정을 억제하여, 언제나 희로애락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게 됨으로써 정서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성인적 태도와 능력이 발달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래들만이 만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

그런것들을 배려한 공간이 청소년책문화 공간 깔깔깔입니다.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5월부터 공사 7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백마역 코레일에 임대료 납부

북카페 형식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도서관을 지향합니다.

화~일 10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휴관

3. 청소년과 만나는 이야기

깔깔깔의 원칙

- 청소년이 우선인 공간
- 청소년이 원하는 건 다 들어 준다
(음식물 반입 환영, 운영시간 외에 미리 신청하면 열어준다/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안되는게 없도록 노력한다)
- 1318위주의 공간이므로 어른들은 차별한다(어른들은 무례한 편이다)
- 초등학교생들은 되도록이면 놀이터에서 놀도록 유도한다
- 출석쿠폰발행/울 때마다 찍고 5개 토스트, 10개 음료수한잔 무료
(쿠폰발행은 5학년이상, 성인은 안됨)
- 음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음료10번 먹을 수 있는 쿠폰 제공
- 오전에 오는 청소년에게는 간식 및 점심 제공 할 때도 있음

4.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책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 책보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책 읽는 기쁨을 느낀 적이 없는 아이들....

일단 책과 친하게 진해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습니다. 책을 들이대기 보다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책테마전시〉

열다섯살에 우린

열다섯살의 주인공인 책을 찾는다
한참고민이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사춘기를 배려한다
사춘기를 축하한다
청소년의 감정카드전시/신기하다, 신난다
분개하다 등등

우리사랑해도 될까요?

성과 사랑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관계나 그것과 관련된 일
부모님께 들키면 개 쪽.
(길을 걸어도 수업중에도 야한 생각밖에 안들어요)

시가 내게로 왔다

시를 읽어주기
시집을 뒤적거리서 예쁜 종이에 옮겨보기
시를 읽어주는 청소년에게 음료제공
적어놓은 시를 전시하기

〈그밖의 활동〉

- 겨울방학/ 세익스피어읽기/이어뜨게질하기
- 손으로 읽는 책
- 청소년이 준비하고 청소년이 채운다!
- 그들의 책임는 소리

- 지구소퍼즐을 맞추는 아이들 (스마트폰만하는 아이들?)
- 보드게임을 새롭게 하다/수학

- 사진에 등장하는 청소년
- 지역축제에서 청소년을 이야기하다
- 원하는걸 배우다!
- 원하는걸 배우다2/대중음악

- 지역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백신고등학교
- 고3특강/별자리 인문학/사진으로 표현하기/영화로만나는 인문학

- 고양지역 연합동아리 활동
-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공간
- 청소년 플리마켓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 기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부모가 아닌 지역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나비

청주지역 독서문화활동가들의 모임

작은도서관의 철학을 담은 문화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 독서문화활성화에 대해 지역 활동가들의 주체적 공감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이웃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제안하면서 작은도서관 활동가가 성장하고 문화지형이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주지역 독서문화활동가들의 모임은

청주지역 독서문화활동가들의 '스스로 네트워크'

- 구성원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들의 책모임을 기반으로 하여 책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해 온 사람들입니다. 5년 이상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실천해 온 활동가 10명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보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 <'스스로' 아카데미> 과정을 기획하는 것부터 같이 참여하여 활동분야의 강의내용을 정리하고, 작은도서관 신입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지역특성을 담은 독서문화콘텐츠를 잘 다듬고 정리하여 지역문화자산으로 축적해 가고자 합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이렇게 진행했어요

기획배경

청주지역의 4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각 작은도서관들이 공들여 키워온 작은 문화들을 지역의 성과로 축적하고 공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초롱이네도서관의 그림자극, 두꺼비도서관의 생태책놀이, 은세계도서관의 어르신 시낭송회 등의 도서관문화가 있고, 3년째 ‘문화가있는작은도서관’ 사업으로 결합해 온 문화예술인들과도 간헐적으로 문화행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의 철학을 담은 문화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 독서문화활성화에 대해 지역 활동가들의 주체적 공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웃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제안하면서 작은도서관활동가가 성장하고 문화지형이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정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추진방법 |
|---------|------|---|------|
| 8/20 | 2 | ‘스스로’ 아카데미를 위한 만남 ‘스스로 네트워크’ | 간담회 |
| 9/3 | 2 | ‘스스로’ 아카데미 기획회의 | 간담회 |
| 9/19~20 | 15시간 | 선진지 작은도서관, 작은서점 탐방 콘텐츠개발 및 스토리텔링 특강 ‘스스로’ 아카데미 내용 구성 : 발제와 토의 | 워크숍 |
| 10/8 | 2 | 내 이야기를 기록하는 글쓰기 | 열린특강 |
| 10/22 | 2 | 스스로 아카데미1 | 강좌 |
| 10/29 | 2 | 스스로 아카데미2 | 강좌 |
| 11/5 | 2 | 스스로 아카데미3 | 강좌 |
| 11/12 | 2 | 스스로 아카데미4 | 강좌 |
| 11/19 | 2 | 스스로 아카데미5 | 강좌 |
| 11/26 | 2 | 평가 | 간담회 |

운영내용

1) <'스스로' 아카데미> 지역 추진단 역량강화 - 간담회와 워크숍

지역도서관 활동가들의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오랫동안 실험하고 실천한 도서관문화활동의 의미를 정리하고 구체화하여 '스스로' 아카데미 내용을 구성한다.

2)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자 역량강화

주제 또는 활동영역별로 추진단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구성한다. 지역에 축적된 문화역량을 공유하면서 작은도서관 현안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아카데미 5회

3) 열린 특강(추진단+참여자)

우리의 이야기, 작은도서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한 글쓰기에 도전한다.

- '내 이야기를 기록' 하는 글쓰기 강좌



열린특강 내 이야기를 기록하는 글쓰기 참여자 원고

외톨이 - 유년시절

유소현

시간을 거슬러 내 유년 시절로 돌아갔을 때 기억나는 가장 어린 시절이 5살 무렵인 듯하다. 그때 나는 막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창에서 들어오는 빛에 눈이 부시다. 한쪽에는 검은색 바탕의 자개장롱이 있고 맞은편 벽에는 옷이 걸려 있다. 내가 살던 집 방안이다. 아무도 없다. 다시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 나는 마루에 걸터앉아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있다. 나무로 된 작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지나치는 사람이 없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 방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린다. 잠이 든다.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나는 키도 작고 말라서 왜소했다. 사진첩에 남아있는 사진 중에 초등학교 입학식에 찍었던 사진이 있다. 사진 속 나는 모자가 달린 베이지색 얇은 코트를 입고 왼쪽 가슴에는 네모난 명찰이 달려 있다. 그 아래에는 연두색 테두리의 거즈로 된 수건이 매달려 있다. 나는 코를 찡긋하며 활짝 웃고 있다. 뭐가 그리 좋아 활짝 웃고 있었을까.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으니 종일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빼고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다. 방과 후에는 집에 책가방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갈팡질팡 동네를 쏘다녔다. 동네 아이들을 만나면 잠깐씩 끼어 놀기도 했지만 금방 다른 곳으로 가서 어슬렁거리다 하늘이 어스름 쫓 해지면 집에 돌아가 아랫목 이불속에 누워 있다 스프르 잠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불이 걷히며 들려오는 성난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서 일어서면 어느새 내 엉덩이에는 뽀족 뽀족한 번개가 몇 개 꽂혀 있었다. 아팠다. 눈물이 났다. 내가 왜 맞아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신 엄마는 숙제도 안 해놓고 잠든 나 때문에 화가 날 만도 했다. 늘 그랬으니까. 나만 그랬으니까.

딸만 셋 중 둘째, 나는 언제나 화가 나 있고 불만이 많았다. 언니와 동생의 내복에는 보라색 강아지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내 내복에는 파란색 강아지가 그려져 있었다. 나도 보라색 강아지 내복을 입고 싶었다. 옷도 그랬다. 언니와 동생은 같은 디자인의 분홍색 드레스였고 나는 하늘색 세일러컬러 원피스였다. 나도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싶었다. 그래서 두 살 터울의 동생 원피스를 입었다가 지퍼가 고장 나서 혼이 났었던 적도 있다. 나에게도 별것이지만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의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나만의 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만 왜 다른지 나만 차별받는 것 같았고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어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다. 나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막이 쳐져 있

어 내 주위에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릴 적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의 얼굴도 그렇다. 그저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보고 떠올릴 뿐이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15살 갑자기 목이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았다. 동네 병원에 가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다. 엄마 손에 이끌려 CT며 조직검사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그때까지도 얼마나 큰일이 닥쳐올지 나는 잘 몰랐다. 입원하는 날 대기실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 엄마의 얼굴. 따뜻했다. 포근했다. 처음 느꼈던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1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나중에 들었지만 수술 부위가 어렵기도 했고 전이 여부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한다. 수술이 빨리 끝날수록 딸의 생명이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하며 몇 번씩 쓰러지셨다고 했다. 내 뒤틀려있던 심보 때문에 엄마의 눈빛을 보지 못했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었다. 두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 결과는 임파선암이었다. 나는 평평 울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찌냐며 울었다. 항암치료 안 받겠다고 서럽게 울었다.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내 삶을 보다 : “왜 나는 나이고 네가 아닐까?”

심영화

오래전에 봤던 독일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인상 깊었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질문의 연속이었다. 왜 나는 나이고 네가 아닐까?” 라는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내 삶을 정리해보는 지금 적절한 시구(詩句)이지 않은가.

첫 번째 키워드 : 가난과 무식, 그리고 외로움을 향한 연민

아버지는 5살 때부터 외갓집에서 부모 없는 천덕꾸러기로 자라셨다. 외갓집에서 머슴처럼 허드렛일을 하며 학교도 못 가고, 자기를 남겨두고 새로 시집가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생각하며 보내셨다. 가난과 무식, 그리고 외로움이 전부였던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4명의 자식을 낳고, 집도 사고, 땅도 사서 자수성가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오셨다. 부지런하고, 강약을 조절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적당히 편법을 이용할 줄 아는 아버지의 성공신화를 배경으로 막내딸인 내가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건 내 머리가 조금씩 커지면서였다. 가난했던 아버지는 가

난한 사람들의 게으름을 탓했다. 남들과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비아냥거렸다. 무학의 서러움을 감추고 살아오신 아버지는 대학 나온 요즘 젊은이의 유약함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며 분개하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 눈에는 가난하고, 서럽고, 여리고, 어눌해서 도저히 성공신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키워드 : 갈망, 자기애로 들끓는 고요함

나는 늘 이곳 아닌 저곳을 꿈꾸며 살았다. 나르시스처럼 자기애가 넘쳐 현실의 내가 아니라 호수면에 비친 저곳의 내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돈을 버는 워킹맘도 아닌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모임이나 회의, 교육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몇 년째 자기 연민과 각오로 마무리 짓는 ‘OO 하자, OO 말자’의 글쓰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 유치함과 성급함에 이제 기운이 빠진다. 하지만, 자기애로 시작된 이 갈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키워드 : 견뎌, 평범함의 다른 의미

아이젠을 빙벽에 박으며 악착같이 산을 오르듯 목표를 향한 삶을 계획한 때도 있었다. 몇 번의 실패로 차선책을 찾아야 할 때마다 나는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직업과 미래가 보장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고용이 불안정한 나의 직장 대신 결혼을 선택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지방에서 살기로 하고, 계획한 임신과 출산을 세 번이나 거듭했다. 당시엔 ‘내가 선택한다’ 라는 자각도 없이 삶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마지막이 예상되는 평범한 삶을 살겠구나 싶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의 평범함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안다. 삶이 결국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인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객기나 부리며 살아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던 20대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 평범하기만 한 삶은 보통 이상의 인내와 기다림을 반복하는 견뎌냄이었다.

겨우 세 개의 키워드로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이유를 되새겨보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될까?’ 라는 지점에서 나의 갈망이 드러나고, ‘왜 평범한 삶이 계속될까?’ 에서 나의 일상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보인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박춘성

인생의 반을 살아온 시점에서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았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온 것은 사랑의 갈구, 배움의 욕구이다.

형제가 넷인 나의 집은 늘 막내인 아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가난한 삶에 자식은 웃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내는데 버거움이었으리라. 힘겨운 생활에 둘만 나오려던 자녀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태어났다. 울기도 잘하고, 뭐든 궁금한 건 못 참아 이것저것 물어보는 귀찮은 존재였는데 동생이 태어났다. 장손이 태어났다. 잘 울지도 않고 순하기만 한 녀석. 가난한 부모님은 살아보려 도시로 나왔으나, 그 또한 너무나 벅차고 힘겨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타향살이를 하였다. 땅 한 평 없는 삶을 살아내느라 혹독했던 부모님은 아들에게만은 늘 인심이 좋으셨다. 야구가 한참 인기였던 시절 동생에게 야구방망이와 글러브를 사 주셨고, 겨울이면 동생에게만 썰매를 만들어 주시고 스케이트를 사 주셨다. 식사 시간에도 늘 동생을 위하느라 나는 심부름을 전담했다. 1학년 아버지의 큰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한밤중에 혼자 자전거를 배우다 눈에 쭈셔 박혔을 때에도 엄마에게 꾸중을 듣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배운 자전거는 내가 늘 심부름을 시키는 수단이었다. 달리기를 잘해 육상 선수에 뽑히고, 합창반에 들어가도 엄마는 싫어하셨다. 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에 나가 큰 상을 받아왔으나 반응이 없으셨다. 공부 잘하는 동생에게는 늘 칭찬 일색이셨다. 방학이 끝나고 동생은 그림 숙제를 미쳐 못해 내 그림을 가져갔다. 당연히 상을 받아왔다. 엄마는 너무나 기뻐하셨다. 예체능에 별 재능이 없던 동생이라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중학교 때 좋은 성적표를 드렸으나 그 또한 실패였다. 그러다 작은언니에게 교통사고가 생겼다. 식물인간이라는 치명적 사고가 나의 집에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갈구하던 사랑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작은언니를 잘 돌보는 것으로 사랑을 갈구했다. 다행히도 언니는 깨어났다. 5살 어린아이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돌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엄마에게 다른 건 사치가 되었고 비수 같은 언어는 더 심해지셨다.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겨도 그 말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아이들 앞에서 듣는 말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아이가 커서 어느 날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있어요, 엄마.” 그 말이 힘이 되어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기 보다 내가 엄마를 사랑하려 한다.

배움의 욕구는 엄마로부터 시작되었다.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난한 삶에 뭐든 혼자 배웠다. 고등학교 시절 기타를 배우고 싶었으나 돈도 없고 구멍가게 하나 없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

다. 몇 년의 돈을 모아 악기사에 갔다. 가장 저렴한 기타를 고르고 사장님께 코드 몇 개를 배웠다. 그것으로 나의 기타 독학이 시작되었고 엄마의 꾸지람이 커졌다. 엇갈린 사랑의 운명인 것인지 사랑받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사랑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언니의 사고로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무면허 뺑소니에 병원비는 온통 우리 몫이었다. 3년 내내 방황을 하며 학교 공부 외에 관심을 가졌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꽃꽂이 배웠다. 학교로 나와 집에 갈 시간까지 갈 곳이 없어 학교 앞 꽃집에서 소소히 일을 도왔다. 그리고 꽃꽂이를 배웠다.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알게 되어 철학과 고전을 배우고 함께 봉사를 나갔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드럼과 테니스를 배웠다. 배우고 싶어 동아리에 들어갔고 선배님들 뒷일을 도왔다. 여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무거운 앰프로 들고 천막도 쳤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버리고 엄마라는 직책을 가지면서 딱 5년만 아이들과 온전히 지내보자고 했다. 그러나 내가 없었다. 자격증을 따다.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를 했다. 두 아이를 보느라 지쳤지만 그대로 멈출 수 없었다. 새벽, 성냥개비를 눈꺼풀에 끼우고 바늘로 허벅지를 찌러가며 공부를 했다. 실기를 위해 일요일을 이용했다.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 공부가 직업이 될 줄 몰랐다.



스스로 아카데미 참여 후기

스스로아카데미

연경이

“언니 우리 여행한번 가보지 않을까? 어찌구 저찌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을까?”

“그래?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간다면 정말 좋겠다. 한번 해봐”

그렇게 공짜 여행에의 욕심으로 시작된 스스로 아카데미 그런데 공짜는 무슨 공짜, 그냥 편안하게 놀다 올 수 있다고 후배님들 꼬셔서 같이하자 하고 보니 계획서가 나오는데, 나를 돌아보고, 자서전을 쓰고, 그동안의 일을 정리도 해야 한단다. 해외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제주도는 갈 수 있었지만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자꾸만 판이 커졌다.

정말로 쓰기는 싫다 노래를 불렀건만 쓸 수 있다, 다 한다 하더니 결국 글쓰기 강좌까지 넣어놓고 이래저래 속내를 드러나게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니 애서 못쓴다고 버틴 보람도 없이 결국은 소감을 쓰라는데 발목이 잡혀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무엇을? 왜?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고 무얼 하라는 거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었다. 나 스스로 주체적이지는 못했다는 거.

처음 시작한 모임에서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 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는 왜 책을 읽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지 나에게 책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책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도서관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도 되새기게 되었다.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끼리라는 마음이 보태지고 아이들 떼어놓고 훌가분하게 가보자는 의도가 짙었던 제주도에서 우리가 참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동안 같이 지내온 세월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책이라는 매개로 같이 간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북카페에서 색다른 것을 보면서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다. 2박3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모임에선 초롱이네 도서관의 20년사. 아!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잘하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역사들이 많

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내 역사도 정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같이한 모임원들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본인들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들으며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성공이던 실패이던 간에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는 거. 그 가치로 투덜거리며 꿈시렁거리며 이어나간 스스로 아카데미는 그래도 할 만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만나다

유소현

스스로 아카데미를 시작하며 낯설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미 정해진 커리큘럼은 있었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움을 안고 1, 2차 시를 통해 초롱이네도서관을 중심으로 나와 팀원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제껏 몰랐던 예전의 초롱이네도서관과 여러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각자의 재능이 상황 상황에서 표출되어 나타났다. 역시 뭉치면 강해질 수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아카데미 팀원인 애서육인(愛書六人)은 관장님을 중심으로 6식구, 관장님은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으로 경이선배님은 만언니로 모두를 보듬어 이끌어가고 춘성선배님은 추진력 있는 묵묵한 둘째언니로 선영선배는 모두를 대변하는 투덜이로 나는 위, 아래에 끼어 있는 완충지 넷째로 영화씨는 총명한 다섯째 막내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재능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니 무언가 술술 진행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결국 초롱이네도서관과 함께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팀원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소통하여 앞으로의 더 발전된 초롱이네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작했다. 과거를 알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니 조금씩 문이 열렸다.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다보니 정리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초롱이네도서관과 팀원 그리고 외부의 조건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 새로운 직물을 짜나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끝에 가는 길은 알 수 없다. 가는 길에 끝이 보인다면 힘이 들고 괴로워도 조금 더 힘을 내어 가기 쉽다. 그 끝에 도달했을 때 기쁨 것이다. 하지만 가는 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두려움과 기대감을 안고 가게 된다. 결국 이겨내고 힘들게 도달한다면 설사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기쁨과 감동은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게 된다. 초록지붕 초롱이네도서관은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방향을 찾았고 다양한 길을 만들어 시도해 가면서 앞을 향해 나가면 될 것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시작하며 나는 처음인 것이 많았다. 초롱이네도서관의 과거 관생, 팀원들과의 제주선진지 탐방, 글쓰기 강좌를 들으며 글쓰기 방법의 다양함, 그리고 아직도 알 수 없는 내 글쓰기 실력 등이 그렇다. 처음이었고 이 길이 맞는지 의문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아직은 도약 단계이지만 언젠가는 이 발판을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마치며

한선영

두 아이 데리고 다녔던 도서관을 10년간 들락날락했다. 아이들 어릴 때에는 검증된 좋은 책들이 꽂혀 있다는 이유로 가끔씩 나들이 삼아 손 붙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버린 아이들과 오는 것보다는 주로 나 혼자 이 공간을 찾아온다. 이 작은 집에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 아님 개미지옥처럼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워서일까? 사실 요즘 같이 추운 날에는 도서관의 뜨끈한 마룻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가장 솔깃했던 제안은 무엇보다도 제주의 도서관, 작은 책방과 북카페 둘러보기였다. 2박 3일이나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주 설레었다. 그 설렘만큼 6명의 여행은 충분히 의미 있었고 2박 3일로는 짧아 아쉽기도 했다.

글쓰기 특강 때에는 좋은 강사님이 오셨지만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수업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좋은 글 쓰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 주시고 연습 글도 써 보았으나 여전히 글을 쓴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와 '스스로'의 틀을 깨기가 어려웠다.

이야기 선생님 대표를 맡아 숙제처럼 주어진 '찾아가는 이야기 선생님' 10년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 처음 모임이 시작된 계기, 활동한 기관, 활동했던 선생님들, 회의 내용 등 10여년의 기록이 어찌면 내 역사이기도 한 이야기 선생님의 활동, 내 아이에게 책 읽어주듯 그렇게 편안하게 읽어주면 된다고 시작되었던 책 읽어주기를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수첩이나 달력에 약속이나 계획 등을 적어 놓는 일은 늘 하지만 지난 일을 정리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로 나의 과거와 도서관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나는 왜 도서관에서 있을까?'가 스스로 아카데미 첫 시간 물음이었는데 이 작은 공간이 편안하고 이곳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주는 재미로 인해 이곳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다. 내가 다니는 도서관이 꾸준히 해야 할 활동과 새로운 활동이 어우러져 들쭉날쭉 활기찬 도서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스스로’ 그리고 함께

박춘성

처음 이것을 기획할 때만 해도 신났다. 도서관에서 십 수 년을 활동하면서 웃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어느덧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보면 기억이 안 나는 서운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 사진을 보며 어찌나 즐겁게 웃었는지,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아니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정체되어진 모습은 습관처럼 굳어버려 일상이 되었다. 그 일상에 살포시 물결을 일으켜 아이들과 함께 오고가던 그때의 열정을 찾고 싶었고 그동안 나와 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었다.

네트워크로 엮어진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고 정리하고 싶었지만 6명만이 함께하게 되었다. 시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 오래 정체된 일상이 그들을 흔들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친숙한 관계는 아니었다. 선후배라는 살짝 어려운 사이일까. 그래서 더욱 이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알아가고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를 나누길 바랐다. 버거운 시간이었다.

도서관 활동 20년지기 관장님과 19년지기 대선배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도 했지만, 세월만큼이나 각자가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웃으며 지냈던 순간은 다 소중하기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는 건지 정확한 좌표도 없이 일단 스스로 뭐든 해보면 좋겠다는 큰 그림의 의지만을 갖고 시작한 시간이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워크숍이었다. 도서관 밖에서 며칠을 먹고 자며 함께 같은 곳을 다니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여행은 역시 누구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도서관, 작은 서점을 위주로 여러 곳을 다니며 공간 활용과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을 보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녁마다 주제별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였다. 각자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바라본 다양한 이야기에 새벽은 짧았다.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즐겼던 3일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 전진 할 힘을 가졌다.

나의 삶, 도서관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글쓰기. 다들 힘들다고 했지만 3번의 특강 시간이 아쉬워 더 오래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권우 강사님의 글쓰기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한다. 부담없이 펜을 들게 하고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 해 준다. 나도 모르게 쓰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정리를 하고 자료집이 나오니 모두가 뿌듯해 한다.

초롱이네도서관은 20년이 되었다. 6명 아카데미 사람들이 그동안 각자와 도서관 활동을 정리하였

지만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료집을 정리하면서 함께 했던 지금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순간이 참으로 고맙고 소중하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도서관을 찾아오는 모습을 본다.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참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하며 자신의 역량을 정리하였고, 그 역량을 더 키워 작은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그들이 굳건히 작은도서관을 지키리라 믿는다.



스스로 아카데미 후속 모임

초롱이네도서관의 2층 공간에서 각자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정기적 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과 더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간으로 찾아오게 할 방안으로 교육청이나 상생충북 네트워크, 문화예술단체 등 더 많은 네트워크와 연계성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스로 아카데미 강의 원고

나의 삶이 글이 되는 순간

이권우

개요가 없으면 글 쓸 수 없다.

- [1]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 [2] 핵심주장(대주제문)을 결정하면, 이를 뒷받침할 주장(소주제문)을 고민하면 된다.
- [3] 거칠게 표현하면 대주제문은 결론이고, 소주제문으로 이루어진 글의 문치가 단락이 된다.
- [4] 글은 서론 → 본론 → 결론 순으로 읽는다. 글쓰기는 결론 → 본론 → 서론 순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써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 개요 없이 글을 쓸 수 없다.

| | | | |
|-----------------|-------|-----------------------------|------------------|
| 대주제문 (혹은 결론) | | | |
| 본론 | 첫째 단락 | 소주제 (그 단락의 주장이자 대주제문의 근거) : | 근거(주장의 뒷받침 문장) : |
| | 둘째 단락 | 소주제 (그 단락의 주장이자 대주제문의 근거) : | 근거(주장의 뒷받침 문장) : |
| | 셋째 단락 | 소주제 (그 단락의 주장이자 대주제문의 근거) : | 근거(주장의 뒷받침 문장) : |
| 서론 | 관심환기 | | |
| | 문제제기 | | |

세 가지 키워드로 글쓰기

글쓰기 책을 읽고 글쓰는 법을 익힌 적이 한 번도 없건만, 최근 그쪽 관련서들을 제법 읽어보거나 책을 기획해 여러 사람과 함께 집필하기도 했다. 나는 대체로 ‘어떻게’를 주제로 한 책들을 신뢰하지 않는 축에 들어간다. 자전거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독해능력이 뛰어난 아이라도 책을 읽고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힐 수는 없다. 운동장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배워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덧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게 마련이다.

글쓰기 책을 보거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글을 써서 먹고 사는 나는, 이래저래 글쓰기 책을 새삼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 대학에서 독서과목과 함께 쓰기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다. 기왕이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글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서를 섭렵했는데, 생각보다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 내가 어릴 적 진작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것들이 수도룩했던 것이다. 이론과 실기를 겸하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나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잘 될 줄 알았던 것이나,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내가 글쓰기 강좌에서 쓴 맛을 본 이유는 다른 자리에서 말하기로 하자. 글쓰기 책의 효용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그쪽 책들이 나오는 족족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발견했으니, 책 제목부터 실용적인 목적이 뚜렷한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이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인 교수가 쓴 글인데, 내가 이 책을 두고 재미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쪽 책을 제법 읽어본 나로서는 글쓰기 책 가운데 이렇게 거칠고 중구난방이고 한 말 또 하는 책을 보지 못했다. 글을 잘 쓰는 척해야 신뢰가 갈 터인데, 이 책은 그런 걸치레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 책이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만 익히면 글쓰는 데 큰 힘이 될법한 내용이 들어있어서다.

그 하나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세 개의 열쇠말로 압축, 정리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열쇠말을 연결해 글을 구성하는 훈련을 하다보면, 200자 원고지 열 장을 쓰는 것은 물론이요 백장이든 천장이든 다 써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은이의 말을 딱 세 군데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글을 쓰기 전에는 우선 키워드를 설정한 뒤에 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중요하다고 생각 할만한 핵심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이 흥미롭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면 자신만의 색은 저절로 표출된다.”

“키 컨셉은 각각 다른 것을 세 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컨셉 세 개를 연결하는 논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때 자신의 생각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또한 그 힘이 점차 향상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도 표출된다. 요컨대 세 개의 키 컨셉은 그 문장 전체

를 구성하는 세 개의 다리이다.”

“서로 비슷하지 않은 세 개의 컨셉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냐는 전적으로 글쓴이의 능력과 재능에 달려있다. 이것은 논리를 연결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하면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잘 썼다고 느껴지는 글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요소들을 잘 연결하는 글이다.”

이 글만 보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터이다. 그러나 글을 잘 쓴다는 평을 듣는 이들(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르는 것이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니, 책을 읽으면서 한 번 고민해보면 좋을 성싶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름하여 “쓰기 위한 독서술(讀書術)”이다. 교양이나 취미로서의 책읽기가 아니라 글쓰는 능력을 키워주는 책읽기는 그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이 천박하지 않은 것은, 앞의 인용문에서 얼핏 알 수 있듯, 글을 잘 쓰려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 힘을 기르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 길러진 힘으로 글을 쓰다보면 생각하는 힘이 더 커진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책을 읽다보면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읽으면 책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으니, 이를 일러 ‘핑 먹고 알 먹고.’라하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 하는 법이다.

문장력도 키우고 사고력도 넓히며 독서력도 높이는 지은이의 체험적 독서법은 간단하다. 먼저 책을 읽는 이유가 글을 쓰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한 편의 글이나 한 권의 책에서 주제의식이나, 논리전개의 방향, 은유나 직유 같은 수사학 따위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애쓰게 된다. 그런데 정작 지은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용이다. 한 편의 글이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글에 적절하게 인용된 글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용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에 충실해보라는 권유인 셈이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삼색펜을 들고 책을 읽는다. 반드시 인용할 곳에는 빨간색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에는 파란색을,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느끼는 대목에는 녹색을 친다(설마, 당신도 똑같은 색으로 줄을 치려고 하는가? 창의력을 발휘해보시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인용할 때 별도의 품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는 게 지은이의 또다른 체험적 독서론이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 “글을 쓸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을 골라 읽는 것이 글을 쓰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왕이면 제한시간을 두고 읽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글이란 대체로 마감시한이 있는지라, 무한정 ‘준비운동’만하다 말 수 없으니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주억거릴 밖에. 그 다음에는 익히 예상하는 ‘권장사항’이 나온다. 목차를 검토해서 필요한 항목을 슈아 내거나, 드문드문 읽으면서 골라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열쇳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하나의 열쇳말로 정리해두고, 그것을 마치 “그물망처럼 펼치면서 책을 읽

어나간다. 그 그물망에 빠져나가지 않고 걸려드는 것이 내가 글을 쓸 때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 이란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문제가 남는다. 글 쓰는 데 필요한 것만 골라내 읽는 선구안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래서 지은이는 학생시절에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것이다. 교양과 취미로 책을 두루 읽어놓으면 나중에 실용적 독서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있다. 글쓰기에도 기본은 책읽기이다. 그 기본으로 되돌아가 원고지 열장 후딱 써내는 힘을 키워보시길!



[세 가지 키워드 : 안철수에 대한 생각]

달라졌을까? 안철수 전 교수가 82일간의 미국 체류를 끝내고 귀국한다고 했을 때 떠오른 질문이다. 대선 당일 미국으로 떠날 정도로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 그다. 과연 아사리판이라는 정치에 맞을지 의문을 갖던 차에 4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이른 결정이 놀라웠고, 붙어보자는 결기가 반가웠다.

정치인 안철수는 다면체다.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섰으니 정치 신인이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으니 거물이다. 새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이상주의자이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이동섭 위원장에게 정치 선배라고 고개 숙이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면이 하나 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모다. 혁신과 재구성의 과제 앞에 헤매고 있는 야권의 리더로서 새 정치와 더불어 큰 정치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달라져야 한다.

관찰을까? 안철수 전 교수의 재보궐선거 출마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꿈 때문은 아니리라. 더 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시작의 타이밍은 좋았다. 새 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수고, 야권의 변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객관적 변수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뿐 그가 전면에서 나서서 '만들어낸' 기회는 아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흔히 비전을 말하고, 정책을 거론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아무리 정책이 근사해도 그걸 감당할 사람이 그에 못 미치면 다 허사다.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뜻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그가 지닌 매력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막스 베버가 말하는 책임윤리의 차원이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신념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차이와 갈등 속에 필요하면 거래를 통해서라도 다수를 형성하고,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이라는 얘기다.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전 교수가 보여줘야 할 건 승리만이 아니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등장 그 자체가 아니라 던지는 메시지, 만나는 사람, 제시하는 그림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야권이 달라지게끔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빛나는 존재로 그칠 게 아니라 욕을 먹고 비판을 듣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주저 없이 감당하는 담대한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인기인에서 정치인으로, '어린 왕자'에서 '조르바'로 바뀌는 속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야 안철수는 '관찰은' 선택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가능할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재주 많은 사람은 못난 사람의 종이 된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리더다. 싫어도 해야 하고, 두려워도 해야 하는 것이 리더다. 그래야 머리 좋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 도전하고 그를 지켜줄 것이다.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안철수는 뭘 하기 전에 꼼꼼하게 따지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데 이런 반듯함과 똑똑함이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있다. 지도자라면 '못난 사람', 바보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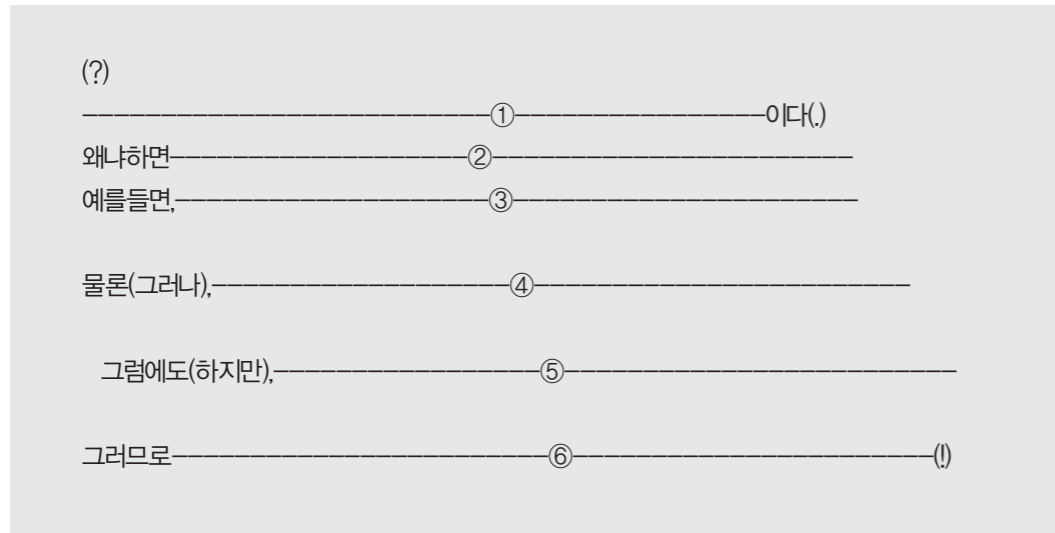
국회의원이 되기보다 잘하기가 더 어렵다. 안철수 못지않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솔하게 국회에 들어갔지만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끝나거나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역시 300명 중 하나라는 수의 한계를 뛰어넘고, 거대 양당의 압박을 이겨내고, 새 정치의 명분이 자아내는 운신의 제약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공이나 미래도 없다. 건투를 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접속어 중심의 글쓰기

*하나마나한 잔소리

- ① 주장할지이다. 글을 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속에 감추지도 말지니라. 당당하게 말하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② 근거를 댈지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목청만 높은 사람이 될 뿐. 글을 왜 쓰는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아닌가. 드라큐라를 만나면 십자가를 내세워야 하는 법. 글을 잘 쓰려면 왜냐하면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
- ③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중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를 기억하라!
-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나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털어놓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13장 34-35절)
인도지역의 상처받은 민중들에게 진리를 전하던 부처를 기억하라! 그 성인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쓰던 것이 무엇이던!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었나니.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어 설명하라. 못 알아듣는다 구박하지 말고, 글쓰는 이가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하려 들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
- ④ 세상에 어찌 나만이 참된 것이나 진리를 거머쥘 수 있겠는가. 나와 다른 주장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주장을 폐기처분할 만큼 전면적인 진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 터. 일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 사람의 일리 있는 말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떠든다면, 이는 독불장군이 아닐겠는가. 귀 기울여라, 떠벌이지만 말고, 가슴을 열어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드러내라. 다른 주장 가운데 일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노나니, 글쓰기는 우리를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우리라.
- ⑤ 그렇다고 자기주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닐 터. 일리 있는 문제제기를 감안하더라도 본디 주장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하자. 사실은 이 대목에 힘을 싣기 위해 '그러나' 운운한 것이 아닐까.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 것. 그리고 여울을 지난 물살이 떠 빠르고 센 법!
- ⑥ 아, 여기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아흐, 돌아온 누이가 겨울을 보듯 글을 마무리 짓자.



메타 브랜딩의 독서경영은 한국적 독서경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독서와 독서지식을 바로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간다는 점에서 경영을 위한 독서라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 있다. 독서와 업무, 경영을 접목하는 것은 따로 독서와 독서경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회사 전체구성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독서조직을 구축한 점이나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끌어내기 위해 수요스터디라는 토론회와 각종 이벤트를 활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토론 이후 독서지식을 인터넷에 축적하고 관리, 공유하는 등 지식을 자산화하는 방법도 안정돼 있다. 특히 내부구성원 간의 공유수준을 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독서지식을 공개하여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독서와 독서지식의 활용이 직접적인 업무 또는 2차적인 활용이나 아이디어 창출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독서 지식을 업무 수행을 넘어 경영전반의 혁신과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메타브랜딩의 독서경영 시스템을 규모가 큰 기업에 모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즉 메타브랜딩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수준으로 커졌을 때에도 과연 현재처럼 높은 수준의 독서경영을 구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타브랜딩이 오래전부터 독서경영을 도입하여 업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무 자체가 독서경영을 떼놓기 어려울 정도이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이 매우

수준 높고, 독서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상당히 체계적이다. 특히 독서지식이 장기적으로 축적, 관리되면서 회사의 자산이 되고 있다. 게다가 독서지식의 나눔을 통해 앞서나가는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진보를 거듭해온 메타브랜딩 사람들, 한국적 독서경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들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목록작성식 글쓰기

1.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글에서 어떤 발전을 보여줄 때 쓰임
2. 설득력이 약한 부분을 앞부분에, 설득력이 강한 부분을 뒤에.
흥미의 상승을 노리는 바, 음악용어로 표현하자면 '점점 세계'
3. 각 소주제문에는 적절하면서도 구체적인 예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자의 인간유형론>

석사논문을 쓸 때 처음 <논어>를 읽었다. 한 사나흘 걸렸던가. 읽어치웠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곱씹고 음미할 능력이 내게는 없었다. 십년 만에 다시, 역시 어떤 필요 때문에 <논어>를 뒤적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예컨대 '계씨(季氏)' 편에서 만난 이런 구절은 나를 멈춰 세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며, 곤란을 겪고 나서야 배우는 사람이 또 그 다음이다.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데, 이는 하급이다." 요컨대 네 종류의 인간형이 있다는 얘기가.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물론 공자님 말씀에서 이 앞의 대상은 '도(道)'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언행이 모두 도에 부합한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할 수는 없다. 아시다시피, 도는 길이고, 길은 방법이다. 어느 곳이나 그 분야만의 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출생과 더불어 득도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천재라 부르길 즐긴다. 나는 음악의 경우 정말 천재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 가끔 생각하지만 대체로 이 천재론을 불신한다. 천재라 지목된 이의 재능을 고사시키거나 천재가 아닌 이들의 의욕을 꺾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배워서 아는 사람. 다산(茶山)의 주석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학문을 닦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얼핏 보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재적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지간한 의지만 있으면 될 것도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선생님은 50을 넘겨 당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스승을 찾아다닌다. 천재도 아니면서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있는가. 또 다른 어느 선생님의 말마따나, 열정도 재능이기 때문이다. 고갈되지 않는 열정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세 번째, 곤란을 겪고 나서야 배우는 사람. 열정이라는 재능조차 없는 이가 배움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 공자는 그것을 '곤(困)'이라 했다. 아시다시피 이 글자는 부족함, 난처함, 위태로움 등을 뜻한다.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자는 늘 한 발 늦은 것이다. 우물을 파는 동안에 타는 목마름을 느껴야 하니까. 1번(生而知之者), 2번(學而知之者), 3번(困而學之者)에 붙여진 이름을 비교해 보면 마치 맨 앞의 글자가 각 존재 양식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1번이 사는 중이고 2번이 공부 중일 때, 이 3번은 자주 곤란 속에 있다.

네 번째,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내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또 꾸준히 배움에 힘썼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곤란을 겪고 나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공자가 우리의 이런 속생각을 예측하고 바로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이 모든 인간유형론을 고안한 게 아닐까 상상해 본다. '너는 네 생각과는 달리 3번이 아니라 4번이다. 네 자신이 3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 4번인 것이다.' 나는 내 시행착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납득했다.

덧붙이자. 네 유형을 다시 양분할 수 있다. 2번과 3번은 자의든 타의든 배우려는 사람들이니 가르침이 가능하다. 그러나 1번과 4번은 가르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곤란을 겪고도 배우지 않는 이는 가르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양화(陽貨) 편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은 변화시킬 수 없다." 최악의 경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고 변화를 거부할 때일 것이다. 그만큼 곤란을 겪었으면 이전 배워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인사 정책 말이다.

신형철 | 문학평론가

비교형 글쓰기

- [1] 비교를 통해 논리를 펼치는 방식.
- [2] 비교되는 각각의 요소가 한 단락씩 있는 방식
단락 안에 비교되는 요소가 들어 있고, 이것이 계속되는 방식
- [3] 왜 비교하는가?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성찰적 사고가 핵심이다.

〈정치인과 과학자〉

“2010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3억2487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1위에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 의원들이 받은 후원금 순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과학자들이 작년에 받은 연구비 순위를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연구비 규모가 많이 커졌으니, 이 분야에서 1등을 하려면 10억원 이상은 받아야 하리라.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의 후원금은 많은 게 아니다. 물론 신고한 게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긴 해도, 과학자와 정치인에게 공통점이 있다. 첫째, 남의 돈으로 일한다는 것. 과학자는 정부나 기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연구를 하고, 정치인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를 한다. 둘째, 큰소리를 잘 친다. 정치인이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자신도 안 믿을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처럼, 과학자 역시 자신이 인류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연구를 한다며 연구비를 받아낸다. 가끔 연구비 계획서 심사를 할 때마다 놀란다. 자기 연구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과학은 수렁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써놨으니 말이다. 나라를 구한 정치인이 몇 되지 않는 것처럼,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연구도 가뭄에 콩 나듯 나오니, 허풍이란 면에서 보면 둘다 피장파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정 기간마다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따라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과학자는 그간의 연구 활동을 기준으로 '재임용'이나 '승진' 심사를 받는다. 선거에서 떨어진 정치인이 아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연구자도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바로 잘린다.

이렇듯 비슷한 점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잘못이 있을 때 그걸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냐가 첫 번째 차이다. 과학자들은 논문을 조작하거나 남의 것을 표절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고, 심지어 해임을 당하기도 한다.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전 교수가 해임된 이유도 논문 조작 때

문이었다.

그에 반해 정치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청원경찰들이 로비를 해달라며 준 돈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소위 '청목회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기정 의원이 후원금 액수에서 1위에 오른 걸 보라. 자신의 저서가 재판에서 표절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전 모 의원도 빠질 수 없다. 이들 외에도 각종 비리에 연루된, 그러면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 정치인은 부지기수다.

둘째, 뻔뻔함의 정도가 다르다. 정치인들은 의혹이 불거지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음모론을 펴고, 소송을 하며 시간벌기를 한다. 반면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징계를 받는다.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한 이유는 연구비로 받은 돈 중 22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정치인이 그 정도 돈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며 항변하기 바빴을 터. 과학자가 정치인보다 욕을 덜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벌써 25년이 됐다. 이만하면 정치인도 과학자 수준의 평판을 받아야 마땅한 기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이 갑자기 덜 뻔뻔해지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 잘못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라도 정착되었으면 한다. 다들 아쉬겠지만 그 시스템의 상당부분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선거를 통한 응징은 그 한 수 단이다.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

에피소드형 글쓰기

- [1] 일상에서 겪은 일이나 책 등에서 읽은 일화를 마중물로 삼아 쓰는 글
- [2] 일화에서 그치면, 일기나 진배없다.
공개적인 글과 사적인 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 [3] 일화 자체에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화에서 깨달은 그 무엇에 더 큰 가치가 있다.
- [4] 의미부여가 상투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펭귄의 메시지〉

내 어린 시절 이루지 못한 꿈 중 하나는 냉장고에서 펭귄을 키워보는 것이었다. 애완동물이라고 그 흔한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본 적 없을 정도로 동물을 무서워했지만, 펭귄은 왠지 친근해서 대화가 될 것만 같았다. '새'지만 날지 못하고, 피하지방이 하도 두꺼워서 남극에서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는 비만 동물 펭귄. 이 남극 신사의 매력은 그 외모에서 풍기는 왠지 모를 엉뚱함과 발랄함에 있지 않나 싶다.

컴퓨터 운영체계의 하나인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스 토발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선 '펭귄 중독'이란 병이 있다고 한다. 펭귄에게 물리면 걸리는 병인데, 물리자마자 그 즉시 펭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병의 증세다. 자신도 리눅스의 마스코트를 생각할 때 계속 펭귄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에서 우연히 펭귄에게 물린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농담으로 '펭귄 중독'은 더욱 유명해졌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어렸을 때 서울대공원에서 펭귄에 물린 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펭귄들의 기나긴 생태 여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자연 다큐멘터리 〈펭귄: 위대한 모험〉을 본 사람들 이라면, 펭귄에 물리지 않고도 펭귄과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지난해 개봉해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펭귄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황제펭귄들의 눈물겨운 생존 투쟁을 보여준다.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들은 짝짓기 시기가 되면 1년 내내 굳은 땅이 존재하고 혹독한 날씨 덕에 천적도 접근할 수 없다는 '오모크'란 곳으로 이동해 알을 낳는다(모든 황제펭귄은 고향이 똑같다는 얘기도). 알을 낳느라 지친 어미는 알을 수컷에게 맡긴 뒤, 자신은 태어날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떠난다. 그리고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석 달 동안 굶주리며 알을 품는다. 알이 부화되면 어미는 돌아와 알에서 나온 새끼를 돌보고, 수컷 아버지는 먹이를 구하러 다시 바다로 떠난다.

어미와 아버지가 번갈아가며 먹이를 구해오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며 살아남은 새끼들은 성장해 오모크를 떠나 다시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난다. 부모 펭귄의 자식 사랑이 눈물겨운 만큼, 자식 펭귄의 홀로 서기 또한 냉정하리만치 비장하다. 이들은 오랫동안 대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짝짓기의 계절이 되면, 마법에 걸린 듯 다시 한 날 한 장소로 모이고 어미에게서 받은 사랑을 자신의 새끼들에게 되돌려준다.

이 작품이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감동적인 이유는 우선 펭귄 부모의 자식 사랑이 눈물겹도록 절절하다는 데 있다. '편하게 태어나서 편하게 삶을 마감하는 생명체'는 정말이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세상에 어느 생명체의 부모가 펭귄 어미와 다르겠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자연스레 이 추운 겨울 거동이 불편하실 '내 부모'를 떠올리게 된다.

또 하나 감동적인 대목은 펭귄들이 극한의 추위에서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다른 펭귄들에 대한 협력과 배려를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영화연구소(AFI)는 2005년 '올해의 사건'으로 이 영화를 선정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자는 전 인류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두 해 전 학교로 부임해 대학원생들과 '연구실'이란 걸 꾸리면서,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재난재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성의 표시를 하기로 다짐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구에 함께 사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자는 데 학생들도 흔쾌히 동의해주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지구인 자격박탈'감이 아닌가 싶다.

펭귄에 관한 단상에서 거창하게 박애주의자 같은 메시지까지 이르게 돼 좀 멋쩍긴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 펭귄처럼 종종걸음을 걷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독후감 쓰기

다짜고짜 서평부터 쓰려면 여러모로 힘듭니다. 서평이라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띠는 데다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지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독후감부터 써보는 게 좋습니다. '독후감'이라 하면 좀 만만해 보이지요. 문제는 학창시절 읽기도 싫은 책을 대상으로 독후감 숙제를 하며 느꼈던 곤혹감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선생님이 숙제를 냈겠습니까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느꼈던 강제성은 아무래도 좋은 추억이 될 리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라면 일단 따라해보는 순진성이라도 있었지만 요새는 그마저 없지요. 학생들이 쓴 글을 보려면 다른 무엇보다 표절인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씁쓸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독후감 쓰기는 정말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연습입니다. 흔히 글쓰기에 필요한 3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구성·지식·문장력'이라고 하지요. 구성은 이 책의 앞 장에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단락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글쓰기이지요. 문장력은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 꾸준히 쓰며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면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책이 가장 믿음직한 지식의 보관소입니다.

특히 글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아는 게 없다는 점 아니던가요. 번뜻 떠오른 그 무엇이 있어 글을 쓰다가도 얇이 부족해 더는 글을 써나가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을 터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샀더라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출력을 할 수 없는 법이지요. 얇이 없이는 설득력과 논리성이 강한 글을 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후감은 책을 읽고 쓰는 글이니, 책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요약만 해도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독후감 쓰기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하고 읽고 나서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읽을 수도 있고, 남들이 읽으니까 유행 따라 하듯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양과 지식을 넓히려고 책을 읽는다면, 읽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맹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정적으로 책을 읽으려면 읽은 책을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밑줄을 긋고,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대목에 이유를 적어놓고,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이 역시 기록해놓을 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분량마다 내용을 요약해놓겠지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저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놓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와 같아요. 그냥 읽으면 결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 읽으면 이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그치던가.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내용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읽어보며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쓰는 것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은 책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쓰기 위해 읽는다는 것은 이처럼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격이지요.

그리고 독후감에 대한 선입견도 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때 쓴 독후감은 전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특히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즘 정작 책을 안 읽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독후감을 마무리하려는 유혹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독후감을 학생처럼 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제도 아니고, 점수 잘 받으려 쓰는 것도 아닌 마당에 학생 때 악몽을 떠올리며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글자 그대로 충실하면 됩니다. 독후감이라는 말이 본디 읽고 나서 느낀 감정, 감상, 감동 따위를 기록하는 것이잖습니까. 책의 내용이나 요약 위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읽은 이로서 책에서 얻은 변화된 감정과 내면을 담으면 됩니다. 책이 주인공이 아니라 책을 읽은 이가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이지요. 이런 글쓰기라면 부담도 적고 힘도 들지 않겠지요. 그리고 독후감은 일인칭으로 쓰면 좋습니다. “나는”이라고 쓰면 감정이입도 잘되고, 자신의 느낌에 더 충실하게 마련이니까요. 백 마디 말보다 좋은 독후감 한 편을 보면 잘 이해될 겁니다

언젠가 세례식을 지켜본 적이 있다. 의례적인 행사려니 하다 일순 감동하고 말았다. 그날 세례식에는 지적 장애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그 아이와의 만남에 대해 한동안 신을 원망했으리라. 왜 이런 가혹한 형벌을 하필이면 자신들에게 주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런데도 생명인자라 끌어안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아이를 신께 바치고 있지 않는가. 독신을 넘어서 신이 준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어떤 숭고함마저 느꼈다.

오에 겐자부로의 큰 아들이 지적 장애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나 수필이 여러 권 나왔는데, 미처 읽지 못하다 이번에 새로 번역된 《개인적인 체험》을 보았다. 오에의 작품을 읽겠다고 나서는 것은 남다른 결심을 요구한다. 번역된 글로 보더라도 그는 비문을 남발하고 있어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묘사도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장광설이기 일쑤다. 물론, 천천히 읽어 나가면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쓴 이 작품은 단문으로 쓰여 속도감도 있고 파격적인 장면을 세련되게 묘사하고 있어 흡인력도 강했다. 오래전 읽은 단편 《사육》에서 느꼈던, 젊은 오에를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주인공은 늘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고 싶은 열망에 휩싸인 학원강사. 그런데 아이가 뇌에 심각한 장애를 띠고 태어난다. 몽환적인 일상은 깨지고 끔찍한 비상이 시작된다. 새를 닮았다 해서 버드라는 별명이 붙은 주인공은 비상을 견디지 못하고 옛 애인과 벌이는 광적인 섹스를 돌파구로 삼는다. 수술하면 살릴 수 있다는 아이는 불법으로라도 죽이고 싶어 안달이다.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한 생명을 놓고 벌이는 치졸하고 추잡한 일탈이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할 만한 대목이 여럿 있다. 그럼에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도피이자 포기가 된다. 그는 이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버렸던 경험이 있다. 자식을 어린 괴물이라 부르던 그가 마음을 바꾼다. 늘 도피하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운명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섬뜩할 정도의 감동을 안게 되는 대목이지만, 못내 아쉽기도 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전폭적

으로 수용하게 된 이유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말해지지 않아서다. 이런 불만은 이미 있었던 모양이다. 번역자의 해설을 보니, 평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비판했단다. 그렇다고 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흠이 갈 정도는 아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가? 자기 상처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상처를 측은히 여길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작가는 이 상황이 끔찍한 것이 어떤 보편적인 의미나 상징을 띠지 못하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이어서라고 말한다. 가혹한 형벌일 뿐, 거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절규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대목에서 한 작가의 위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자신만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오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보인 집요한 관심과 애정은 잘 알려져 있는 터. 내가 오에에게서 그때의 세례식 못지않은 숭고함을 느낀 이유이다.

언젠가 세례식을 지켜본 적이 있다. 의례적인 행사려니 하다 일순 감동하고 말았다. 그날 세례식에는 지적 장애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그 아이와의 만남에 대해 한동안 신을 원망했으리라. 왜 이런 가혹한 형벌을 하필이면 자신들에게 주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런데도 생명인자라 끌어안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아이를 신께 바치고 있지 않는가. 독신을 넘어서 신이 준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어떤 숭고함마저 느꼈다.

오에 겐자부로의 큰 아들이 지적 장애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나 수필이 여러 권 나왔는데, 미처 읽지 못하다 이번에 새로 번역된 《개인적인 체험》을 보았다. 오에의 작품을 읽겠다고 나서는 것은 남다른 결심을 요구한다. 번역된 글로 보더라도 그는 비문을 남발하고 있어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묘사도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장광설이기 일쑤다. 물론, 천천히 읽어 나가면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쓴 이 작품은 단문으로 쓰여 속도감도 있고 파격적인 장면을 세련되게 묘사하고 있어 흡인력도 강했다. 오래전 읽은 단편 《사육》에서 느꼈던, 젊은 오에를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주인공은 늘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고 싶은 열망에 휩싸인 학원강사. 그런데 아이가 뇌에 심각한 장애를 띠고 태어난다. 몽환적인 일상은 깨지고 끔찍한 비상이 시작된다. 새를 닮았다 해서 버드라는 별명이 붙은 주인공은 비상을 견디지 못하고 옛 애인과 벌이는 광적인 섹스를 돌파구로 삼는다. 수술하면 살릴 수 있다는 아이는 불법으로라도 죽이고 싶어 안달이다.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한 생명을 놓고 벌이는 치졸하고 추잡한 일탈이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할 만한 대목이 여럿 있다. 그럼에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도피이자 포기가 된다. 그는 이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버렸던 경험이 있다. 자식을 어린 괴물이라 부르던 그가 마음을 바꾼다. 늘 도피하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운명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섬뜩할 정도의 감동을 안게 되는 대목이지만, 못내 아쉽기도 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된 이유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말해지지 않아서다. 이런 불만은 이미 있었던 모양이다. 번역자의 해설을 보니, 평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비판했단다. 그렇다고 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흠이 갈 정도는 아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가? 자기 상처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 다른 이

의 상처를 측은히 여길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작가는 이 상황이 끔직한 것이 어떤 보편적인 의미나 상징을 띠지 못하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이어서라고 말한다. 가혹한 형벌일 뿐, 거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절규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대목에서 한 작가의 위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자신만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오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보인 집요한 관심과 애정은 잘 알려져 있는 터. 내가 오에에게서 그때의 세례식 못지않은 송고함을 느낀 이유이다.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 체험》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그 책을 읽으며 떠오른 한 장면이 없었더라면, 이 글은 쓰지 못했을 터입니다. 그것을 모티프로 개인적 감상과 책의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며 한편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어른스러운 독후감이 무엇인지 감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이니만치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편지 형식이라든가, 가상 인터뷰 형식 등 말입니다. 쓸 때 즐겁고 누군가 읽는다면 공감하기도 편할 터이니까요.

다른 독후감

젊은 날에는 송고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압도적 자연을 보며 느끼는 전율로서 송고가 아니라 그 결과가 비극임을 알면서도 투신하는, 그러니까 신념에 바탕을 둔 비극적 행위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문득, 다른 것에 은근히 동의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것을 일러 초탈이라고 할까 하다, 그러기에는 너무 현실도피적인 듯싶어 다른 말을 찾았다. 그러다 위화가 쓴 《인생》을 읽으며 걸맞은 용어를 찾아냈다. 고상함. 위화가 말한 고상함은 “품위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하다”는 사전식 뜻풀이와 다르면서도 같다. 먼저 다름은 위화가 말한 고상함이 “일체의 사물을 이해한 뒤에 오는 초연함, 선과 악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동정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같음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이는 결코 속되지 않고 훌륭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송고는 역사를 만드는 삶이다. 낡고 타락하고 오염된 것을 부수는 행위다. 그 도전이 어찌 성공하겠는가. 가치 있고 의미 있으니 담벼둔다. 그렇게 살아야 하거늘 살지 못하니 동경했을 터다. 고상함은 역사가 만든 삶 일 터이다. 휘몰아치고 할퀴고 내동댕이치고 난 다음의 모습이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내가 그 삶의 한복판에 서 있다. 새롭게 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 무엇에 휘둘리다 겨우 벗어나고 있는 삶 말이다. 처음에는 타협이고 변절이고 순응인 줄로만 알았다. 애써 부정하고 멀리 하고 싶었다. 그런데 부끄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화가 알려주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결국 우리가 놓일 자리는 고상함의 자리다. 소설을 읽으며 내내 고민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일까? 아니다. 그럴리가 없다. 부끄럽고 남사스럽다면 고상함이라 이를 수 없다. 젊은 날 송고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고상함의 자리에 이르러 애써야 한다.

《인생》의 주인공 푸구이를 보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분을 못이긴 아버지는 초가집으로 이사한 날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병이 위중해져 의원을 부르러 갔다 어처구니없게 국민당의 군인으로 끌려갔다. 천신만고 끝에 이년만에 돌아왔건만 딸은 귀가 먹었다. 마음 먹고 사는데 아들이 헌혈하다 죽고만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던 딸은 출산 후유증으로 죽는다. 아들과 딸이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죽었다. 이 무슨 기묘한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이번에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푸구이를 지켜주었던 아내가 유명을 달리한다. 남은 것은 사위와 손자뿐. 그러나 운명의 손은 가혹했다. 사위가 사고를 당했다. 이미 죽었지만, 그 병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난리쳤다. 그러나 사위의 주검은 그 병실에 놓여 있었다. 먹을거리가 너무 없었다. 열병 앓는 손주에게 콩을 쑤어주고 일하러 나갔더니, 그새 콩을 너무 많이 먹어 죽고 말았다.

불운하고 불행하지만 하지는 않았다. 땅을 잃었기에 혁명기에 목숨을 건사했다. 권력이 없었기에 문화혁명 때 치도곤을 당하지 않았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애면글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손바닥 만한 밭땀과 늙은 소, 원망과 저주만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푸구이에게 그런 건 없다. 못 식구를 앞세웠기에 서럽고 원통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이들을 자신이 묻었기에 안심이 된다. 역사를 거슬러서, 또는 잘 올라타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개인이 그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 맞설 수 없다. 당연히 맞서고 거스르고 잘 타는 송고한 이들이야 있지만, 대다수는 휩쓸린다. 송고하지 않은 삶은 그렇다면 의미 없을까? 아니다. 고상함의 자리에 가면 된다. 지난 삶을 해학과 풍자로 회고하며 남은 삶을 낙낙하게 살아가면 된다. 푸구이가 그랬다.

대선이 끝났다. 송고한 시민의식이 낳은 역사적 결과다. 세상은 여전히 송고함의 가치를 요구하고, 이 힘에 기대어 발전한다. 그런데 나는 이제 고상함의 자리로 자꾸 가고 싶다. 너무 빨리 늙어버렸거나, 그 만큼 내 삶이 신산했다는 뜻일 테다.

독후감의 변형

정헌에게서 지천명의 뜻을 읽다

나이가 오십 줄을 넘어서 지 한참 지났다. 살아가는 꼴을 보면 아직 20대인줄 알고 천방지축이지만.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모양이다. 《논어》에 나온 지천명(知天命)이라는 구절을 자주 곱씹는다. 이 말에 저항감이 있었다. 천명이라 하면 이미 정해진 그 무엇이 있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여기기에 십상이다. 천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무게감을 느껴서일 테다.

지천명을 달리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 책이 있다. 강상중의 《구원의 미술관》이다. 이 책에 보면 디아스포라 예술가 이야기가 나온다.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 유랑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도에 가였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하며 강상중은 ‘받아들이기’를 말한다. 도에가는 자신의 예술혼으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빛은 자기를 가마에 넣고 구울 때다. 가마에서 꺼냈을 적에 그 작품이 성에 차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 강상중의 받아들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숩 버리고 다시 빛어 가마에

넣고 또 굽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니 디아스포라 도예가의 삶은, 아 놀라워라, 그들의 예술과 상동하다. 산산이 부서진 삶을 받아들이다, 그 가혹한 운명에 무릎 꿇지 않고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가로 거듭났으니까. 강상중의 책을 읽으며 나는 천명을, 진인사(盡人事)하되 대천명(待天命)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진인사하는 시시포스적 삶이라 판단했다.

동양에서 천명은 본디 하늘과 왕자의 관계방식을 가리켰다. 은나라 시절까지 천명은 일방성이었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왕조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왕조가 교체되면서 천명은 일방성에서 쌍방성으로 바뀌었다. 백성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천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으니, 신정근은 이를 "명은 하늘과 왕자가 사물과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속과 단절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풀이했다. 이를 흥미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명과 관련한 낱말을 훑어보는 일이다. 다시 신정근의 글을 인용하자면, "명의 방향과 정체를 아는 것이 지명(知命)이고, 알게 된 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명(順命)이고, 주어진 명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위명(委命)이다. 주어진 명을 어기는 것은 위명(違命)이고,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명에 거스르며 맞서는 것이 역명(逆命)이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현재 정당한 명을 뒤엎고 새로운 정당한 명을 만드는 것이 혁명(革命)이다."

명에 관련한 낱말 다발을 보면 그것은 결국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최대치를 해내게 하는 범위"를 뜻한다는 신정근의 풀이에 동의하게 된다. 살면서 우리는 삶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래서 좌절과 고통을 겪었지만 오늘 나의 삶을 일구어냈다. 그런데, 곱씹어 볼 문제가 있다. 지천명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내뿜은 공자의 나이가 50이었다는 점이다. 그때도 그는 한계를 돌파하는 것만을 지천명의 뜻으로 풀이했을까? 사(士) 계급 출신이지만 대부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파하려고 중국 땅을 주유했다. 환대받기도 차별받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했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그 숱한 영욕의 세월을 거친 50의 나이에 공자가 말한 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나이가 지나보니,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한계를 아는 것, 강상중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참된 공부란 무엇인지 고민한 엄기호의 글에서도 나와 비슷한 깨달음을 발견한 기쁨을 누렸으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선불리 나서서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물론 그 한계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 너머를 보며 성장을 도모한다"라 말했다.

우리 테니스 역사에서 최초로 그랜드슬램 4강에 오른 정현은 부상 탓에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없자 기권했다. 그에게서 공자가 말한 지천명의 뜻을 읽는다.

서평 쓰기

첫째, 서평 대상 도서를 제대로 분석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분석할 때는 지은이의 핵심주장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드러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그 책에 담긴 지은이의 독창적인 해석을 잘 드러내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평이라면 미리 책을 읽는이(프리뷰어)로서 미덕을 보여주어야 하는바, 책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요약해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평가를 할 적에는 그 책의 미덕과 한계를 균형 있게 드러내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지적해주어야 하며 분석이나 설명에 오류가 있다면 이 또한 말해주어야 합니다.

일곱째, 저자가 펴낸 기왕의 저서에 대한 정보, 이를 통한 저자의 특성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여덟째, 독자의 선택과 이해를 돕는 데 서평의 일차적 목적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홉째, 같은 주제를 다루거나 입장이 다른 책을 소개해주어야 합니다.

열번째, 저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한결같이 겸손한 자세로 서평을 써야 합니다.

| 유혹하는 서평

“모르면 짚고 까불지 말고, 이것부터 철저히”

“선배, 《십자군 이야기》 서평 써줄 수 있어요?”

띠랑~. 휴대전화에 문자가 뜬다. 문화부에서 출판을 맡고 있는 신문사 후배가 보낸 것이다. 퇴직한 선배를 챙겨준다고 매주 글을 부탁해온다. 그런데 《십자군 이야기》? 아, 시오노 나나미의 신작? 국내 출판사를 옮긴 데다 선인세가 높다고 해서 출판가에 작은 화제가 됐던 그 책. 얼마 전에 각 신문에 나란히 서평이 실렸던 책.

십자군 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알고 싶던 테마였다.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것과 달리 추악한 면이 있는 걸 알고는 이런저런 책에서 토막 난 이미지를 갖던 터였다. 지은이도 신뢰가 가기에 서평을 보고는 읽어야지 하고 버려던 참인데 잘됐다. 책이나 원고의 분량도 그리 부담되지 않으니 얼른 오케이 답장을 보낸다.

한데 왠지 몸이 오글거린다. ‘서평’이란 말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원고를 청탁하는 쪽에선 뭐라 부르든 서평을 쓴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서평이라기엔 한참 모자라니 책 소개 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당연히 도서평론가니 출판평론가란 타이틀을 자처하지도 않는다.

신문사를 떠난 후 출판과 관련된 글을 쓰는 일로 인생 이모작의 방향을 정한 뒤 직함(?)을 뭐라 할까 고민

할 때도 '평론가'는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독서컨설턴트 등을 고민하다 두루뭉술하게 북 칼럼니스트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외래어가 그럴듯해 보여서는 절대 아니다).

나대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겸손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내가 이런 방어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책이 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2001년 펴낸 《신문의 북 리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이다. 제목이 시사하듯 신문의 출판 면을 비평하는 글을 모은 것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을 좀 길게 인용해본다.

“서평은 '도서 평론'의 약칭으로, 도서에 관련된 내용과 형식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도서를 이용자에게 제시하려는 방법과 문체를 말한다. 즉, 서평은 도서의 저술 동기와 목적, 성격, 이론적 배경, 발견된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 내용의 범위, 결론, 제언 응용 등을 간결하게 기술하여 독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평은 독자들에게 신간도서나 참고도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고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각 분야의 새로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와, 그 정보의 논리적 접근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2차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평은 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굳이 이 책을 들먹이지 않아도 평론은, 시답잖은 정치 평론을 제외하면, 대상을 해석해 새로운 의미를 들춰내고, 가치를 재어 수용자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 일종의 창작이다. 그러니 서평을 제대로 하려면 지은이의 전작(前作)을 모두 읽거나 저술 혹은 연구 방향을 잘 아는 것은 물론 책이 다른 분야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서평 대상이 된 책의 특징과 핵심 포인트, 미덕과 한계를 보여주면서 저자의 특성, 더 알고 싶거나 비교해볼 만한 책을 귀띔해주는 것이 좋은 서평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런 서평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책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온갖 분야의 책이 나온다. 그런 만큼 도서평론가든 교수이든, 직업적 책 비평가는 상상하기 힘들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이 관심 있는 책 또는 저자의 글을 재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서평론가' 또는 '서평전문가'란 타이틀을 지닌 이들로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400쪽짜리 책을 이틀 안에 읽고 1000자 정도의 글로 소개하는 경우에 이르면 교과서적인 도서 평론은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정도의 희귀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나를 포함해 책 소개 글을 쓰는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서평에도 다양한 종류, 등급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서평(Descriptive Book Review)'이란 게 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비평적 서평'과 달리 대중매체에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평가보다는 요약, 소개에 비중을 둔 형태이다. 그리고 실제 대중매체에 실리는 대부분의 서평은 글쓰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기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좋은 '서평'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함이라고 믿는다. 다르게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서평의 목적은 책의 평가가 아니라 독자의 선택과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여겨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독자나 나아가서 저자의 머리 위에서 품 잡는 서평을 쓸 사람은 많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공연히 서평이랍시고 책에 대해 찢고 까부는 서평은 마땅치 않다. 서평자는 지식을 과시하는 대신 파일럿이 되어야 한다. 물길 안내인처럼 책에서 가치 있는 대목은 무엇이고, 어떤 의견은 무슨 책과 더불어 읽어보는 것이 좋다는 등 책 읽기에 대한 안내에 치중하는 편이 낫다.

다음은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 어차피 '서평'은 책에 비해 분량이 턱없이 적다. 기계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심을 골라내 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서평'을 읽고 무언가 하나라도 얻게 해주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든, 학설이든, 일화든 심지어 조크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물론 중립이니 객관성이니 하는 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그래야 한다. 이는 저자나 출판사를 위한 글이 아니라 독자를 위한 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서평을 읽고 해당 책을 읽으라는 뜻을 담는 게 아니라 해당 책을 읽는다면 이런저런 점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을 하겠다는 자세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거의 모든 평론에 쏟아지는 '주례사 비평'이란 비난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다시 《십자군 이야기》(송태욱 옮김, 차용구 감수, 문학동네, 2012)로 돌아가자. 가장 이상적인 서평자는 누굴까. 우선 서양사, 바람직하기는 중세 유럽사나 중동사를 전공한 이가 좋겠다. 그래야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학문적 성과와 연계지어 이 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싶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시오노 나나미의 작품을 많이 읽어 그의 성향과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글을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주눅이 든다. 이 조건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다. 그렇지만 마음을 추스른다. 종합지의 일반 독자를 위한 글이다. 분량도 1000자에 불과하다. 이 정도 마당이면 지식의 다과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 자위한다.

키보드 앞에서 잠깐 고민한다. 뭘 담을까. 작품의 의의? 십자군 전쟁이 황권과 교권이 대립한 가운데 정치적 책략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십자군 전쟁이 교과서와 달리 성전(聖戰)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식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 한계는? 기억을 되살리느라 장서 목록을 뒤진다. 6,000여 권의 '볼 만한내 기준'으로 책을 지은이, 분야, 한 줄 요약 등을 엑셀로 정리한 것이다. 아, 있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아침이슬, 2002). 이른바 성도(聖徒)들의 만행에 놀랐던 책이다. 함께 읽으라고 이걸 알려줘야지.

저자 소개, 이건 필요 없다. 전작 《로마인 이야기》가 밀리언셀러고, 지은이도 몇 차례 방한하면서 다양한 인터뷰가 실린 바 있다. 한 줄로 그치자. 그런데 주경철이 《테이레시아스의 역사》(산처럼, 2002)에서 시오노의 시각에 대해 비판한 글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니 이걸 언급할까.

잠시 고민하다 접는다. 균형 잡힌 읽기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서평 분량도 적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주례사 비평'이란 비난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굳이 단점을 시시콜콜 들춰 식견을 과시할 게 아니라 수많은 책 중에 다른 좋은 책을 골랐어야 하는 것 아닐까. 출판사가 아니라 독자를 위해 쓴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되지 싶다. 결국 한계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뭘 앞세울까? 종교를 빙자한 세력 다툼, 그 와중에 나타난 인간 욕망의 파노라마, 이를 압축해 보여주는 구절이 나온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전쟁을 제창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호소에 부응해 나온 말이다. 이게 좋겠다. 이걸 던져놓고 '그것'의 검은 속심을 뒤져내면 책의 의의는 충분히 전하겠다.

얼개가 섰다. 토닥토닥.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청년, 괴물이 되다

"청년세대여, 자신을 탓하지 말라.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틀에 순응하지 말고 거부해라. 청년세대의 반역이 부재하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 드리워진 어둠을 거두고 희망을 다시 세울 자는 젊은 이들이다."

설핏 보면, 7,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불온문서의 한 구절인 듯하다. 이 글은 작금에, 그것도 경제학자인 장하성이 쓴 책에 나온 한 구절이다. 오늘의 청년문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는 데 두루 동의한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치고 대학에 들어가나, 그곳에서는 이른바 스팩쌓기에 몰두한다. 그러나 취업의 문은 매우 좁은 데다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는 난망한 상황에 몰려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쏟아져 나오는 청년담론은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담았다. 3포세대라는 말이 이미 철지난 말이 될 정도다. 몇개를 포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청년세대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는 뻔하다. 그럼에도 좀처럼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담론의 공통점은 오늘의 문제가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한 것이라 분석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청년세대가 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보다는, 개인능력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는 데 있다. 이 현상은 청년세대가 현실을 지배하는 담론에 포획당했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의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최대 피해자인 청년세대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 사회적으로 해소할 능력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청년이라는 낱말에 이토록 절망적인 기운이 깃든 적은 없어 보인다.

오찬호가 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는 일그러진 청년세대의 초상화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이십대는 늘 시대의 열외적 존재였고, 약간은 당돌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저항했기에 나름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도 있었다." 당연하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바로 이런 청년 이미지가 일구어냈다. 그런데 지은이는 그 구절에 이어 바로 다음처럼 말한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 한마디로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터다. 지은이는 먼저 오늘의 청년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힌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 통제적 자기계발"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경영학은 조직적응의 차원에서, 심리학은 개인의 자아치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학은 평생 학습"이라는 의미에서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성과에 주목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하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자기계발의 목표가 오로지 취업준비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계발은 "당연히 외국어 공부,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봉사활동, 공모전 참가, 체력관리, 외모가꾸기(심하면 성형도 불사), 자기소개서 작성연습, 프리젠테이션 및 스피치 훈련"을 가리킬 뿐이다.

청년세대의 자기계발이 드러낸 문제점은 "그 결과가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데도 다른 대안이 없어 그저 '계속해나가고만 있다는 데 있다.' 이 점이 바로 사회구조적인 면을 문제삼아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객관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주체의 성실성을 문제삼고 있다는 말이다. 지은이는 이런 특징이 중국에는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자기만족'에 이르는다고 분석한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이라는 충격적인 책의 부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이다.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청년세대와 심층면접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한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청년들은 충격적인 답변을 한다. 만연된 불평등 현상을 대체로 긍정한다.

"즉, 남들보다 시간관리를 더 잘해온 사람이 사회적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가치있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급의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의 근거가 정당하므로, 해고당하거나 비정규직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차별도 정당한 것이다. 이걸 뛰어넘는 요구가 나오면 이십대들은 의아해 한다. 게다가 자기들 생각에는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할 사람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감히 부족한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개탄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자기계발의 논리로 무장한 청년세대의 고유한 특징으로 세가지지를 꼽는다. 그 첫째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기이다. 두번째는 특정대상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더 강화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패자에 대한 편견의 이면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무의식이 자리잡은지라 비교적 안전한 '기존의 길'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분석은 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한, 청년세대의 대학 서열주의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원인에 대한 해명도 뒤따라야 마련이다. 지은이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다른 무엇보다 IMF의 추억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충격은 청년세대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외의 꿈들을 당연히 거세"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대학의 기업화이다. 마지막으로 before/after의 뒷이다. 지은이가 보기에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것은 "불안한 현대사회를 사는 '같은 이십대'가 성공하는 '다른 사례'를 분명히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 변신프로그램의 'Before' 상태일 뿐이기에, 열심히 하다보면 분명 'After' 상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지은이가 '괴물'이라 명명한 청년세대의 의식세계를 엿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청년의 이미지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은이가 말하듯, 이 책에 소개된 청년들의 이야기가 전체 청년의 모습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역시 지은이가 말했듯 청년세대를 사로잡은 압도적인 시대정신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학 박사논문을 다시 쓴 책이라는 한계는 드러난다. 오늘 청년들이 놓여있는 삶의 맥락이 가능한 경제적 요인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최소한, 한 칼럼에서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를 인용해 청년문제를 쓴, 다음과 같은 김병익 정도의 문제의식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을 촉진한 계기가 외환위기가었고 이때부터 가계저축이 줄어들고 기업저축이 크게 늘어난다. 기업은 소득을 노동비용으로 공정분배하기보다 기업유보금으로 축적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 재하청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는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노동자는 소속 기업의 대, 중, 소 규모에 따라 심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했고 그나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잘못된 임금구조는 더욱 왜곡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형성 경로와 자본축적 과정이 남다른 뿐 아니라" 단기간의 급성장을 이룬 압축성장의 성급한 발전이 재벌 중심의 경제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것은 "한국의 자본들이 아직 자본 외적 권력이나 질서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하성은 따진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더 커진다면 성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불평등은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은 추상적인 철학논쟁이 아니라 지

금 한국의 현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오늘의 청년문제를 낳은 주범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권력구조의 개편을 꾀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터다. 답답한 일은, 지은이의 분석에 따르면, 자기계발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청년세대는 객관적 현실을 교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청년세대가 빠진 깊은 늪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지은이는 책의 말미에 청년세대가 우리사회에 세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권한다. 기회는 균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 질문만큼 불운한 것이 무에 있으랴. 그럼에도 청년세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답만 찾으라 강요한 기성세대의 탓이 크다. 오늘의 청년문제는, 그러므로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하려는 전세대의 노력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세대착취나 세대논쟁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장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다.



자서전 쓰기

*나의 이야기 쓰기

되돌아보면 나의 전성기는 ()를 하던 때였다.

어렸을 때의 꿈과 비교해보면 그 일은 ()하게 여겨진다.

나는 결혼에 대해 ()라고 생각했다.

나의 결혼상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었다.

그 시절 나는 무엇보다도 ()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시절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였다.

그 시절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였다.

그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였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까닭은 ()였다.

그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면 ()이다.

그 시절 내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이다.

그 시절의 일 중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다.

그때 ()만 했더라면 내 인생을 달라졌을 터.

그 시절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다.

그 시절 주위 사람들은 나를 ()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나는 ()를 꿈꾸었다.

그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가 있었다.

그 꿈은 청년기 이후 나의 인생에 ()한 영향을 끼쳤다.

그 시절의 나를 지금 생각해보면 () 평가를 내리게 된다.

1. 내 생애 최고의 순간
 -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자
2. 내가 사랑하는 것
 -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 관계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3.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 나의 트라우마를 솔직하게 드러내자
4.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
5. 나를 둘러싼 것들
 - 학연, 지연, 혈연 등
 - 한국의 정치구조, 경제논리, 사회적 특이성과 문화적 속성 등
6.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들이 마치 거센 바람과도 같이 나를 이리 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 위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 그 첫째 이유는 사랑이 희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 기쁨의 몇 시간을 위해서라면 남은 여생을 모두 바쳐도 좋으리라 종종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외로움—이 세상 언저리에서, 저 깊고 깊은 차가운 무생명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몸서리치도록 만드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인들과 시인들이 그려온 천국의 모습이 사랑의 결합 속에 있음을, 그것도 신비롭게 축소된 형태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추구한 것이며, 비록 인간의 삶에서 찾기에 너무 훌륭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는 결국 그것을 찾아냈다.

내가 똑같은 열정으로 추구한 또 하나는 지식이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다. 하늘의 별이 왜 반짝이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유전너머에서 수들이 힘을 발휘한다고 설파한 피타고라스를 이해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는 많지는 않으나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

사랑과 지식은 나름대로의 범위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늘 연민이 날 지상으로 되 돌아오게 했다. 고통스러운 절규의 메아리들이 내 가슴을 울렸다. 굶주리는 아이들, 압제자에게 핍박받는 희생자들, 자식들에게 미운 짐이 되어버린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외로움과 궁핍과 고통 가득한 이 세계 전체가 인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를 비웃고 있다. 고통이 덜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나 역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다시 살아볼 것이다.

- 러셀 | 철학자

일반 공모 1 - 구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를 탄생시킨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모이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작은도서관 통로' 관장님이 "이거 한 번 해 봅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네요." 했던 것이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도서관들도 참여하게 합시다."로 발전해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리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구리시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짧지 않다. 그러나 20여 년 전 꿈을 안고 시작했던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다가 구리시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2,3년 사이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생겨나기 시작해, 지금은 사립작은도서관이 10개가 되었다.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도서관도 한두 개 있다.

지금까지 구리시 사립작은도서관은 어려운 형편의 도서관 운영에 급급해 서로 연대하거나 소통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경민대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협력멘토링 사업을 알게 되어 4개의 도서관이 멘토링으로 연결되어 모임을 하게 되었다. 멘토링 도서관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4개의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되었다. 역시 모이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작은도서관 통로' 관장님이 "이거 한 번 해 봅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네요." 했던 것이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도서관들도 참여하게 합시다."로 발전해서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리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덕분에 구리시에 작은도서관협의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 한 일이다. 혼자라면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일이 복잡해질 것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한다고 하니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게다가 각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가진 재능이 다양해서 좋은 점이 많았다. '산마루 도

서관' 관장의 예리한 조언들과 '꿈꾸는 도서관' 관장의 추진력과 긍정의 에너지, '통로' 도서관 관장의 따뜻한 배려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들이 만나는 횡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커져만 갔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에너지도 약한 나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의 기쁨과 더불어 이제 우리 사립작은도서관도 연대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이 느껴졌다.



"스스로 아카데미" 첫 모임을 애기똥풀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오랫동안 책과 도서관의 일에만 매달려 오신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구리시 구석구석 숨어있던 작은도서관 관장님들과 실무자들 10여 명이 찾아와 주었다. 이들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던 강의였다.

두 번째 모임은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창립했고, 어린이도서 연구가로 활동하시는 조월레님을 모시고, "날아라, 작은도서관"라는 제목으로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들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주관하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교육위원장인 김자영 선생님이 오셔서 도서관 실무자들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간담회도 하였다.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꾸준히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온 '늘푸른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고, 관장님과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세 번째 모임은 갈매동에 있는 '산마루 작은도서관'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단장으로 계시는 박정숙 관장님을 모시고, "작은도서관 협회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협의회가 탄생할 수 있는 거름이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구리시의 작은도서관들에게 뿌려졌다.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하는 동안, 구리시장님과의 면담도 요청해서 작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밀착형 사랑방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구리시립도서관 관장님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사립과 공립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들은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발족식을 위한 워크숍을 '꿈꾸는작은도서관'에서 몇 개의 도서관들이 출석해서 나와 주어 협업의 힘을 보여주었다. 드디어 11월 28일, 이번 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가 또 지금까지 살아남아 지켜온 작은도서관들의 수고가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를 탄생하게 했다. 시장님과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최향숙 회장님 등 구리작은도서관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1,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공립사립 합해 1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20만의 인구를 가진 구리시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복합문화공간이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이 골목마다 생겨나길 꿈꿔본다. 작은도서관이 골목과 골목을 연결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길 원한다.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는 경기도 다른 시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는 구리시에 작은도서관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돕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연대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마을과 이웃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책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불빛이 마을을 따스하게 비출 수 있도록 구리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함께 해 주길 바란다.



일반 공모 2 - 양산

'스스로' 아카데미의 시작

양산시 3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2018년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인근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의 만남)인근의 작은도서관에서 각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서로 정보 공유할 시간과 계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18 '스스로' 아카데미' 공모사업 공고를 보게 되었고, 천성리버 작은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으로 가서 관장님들과 운영진분들께 공모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좋은 기회이니 같이 참여하자고 설득을 하였다.

하지만 각 도서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달랐기에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었다. 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힘든 점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갈수록 줄어드는 도서관 이용객들과, 정작 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원 활동가들은 책 한권 마음 편히 읽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이 좋아서,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던 자원 활동가들도 어느 순간 도서관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정말 도서관이 좋아서 오는 자원 활동가들에게도 힐링이 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교육연극'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힐링 이었다.



〈스스로 아카데미의 진행과정 : 8월~11월〉

주제를 정하고 나서 수업에 관한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되었다. 기존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다같이 만들어 나가는 아카데미였기에

모두들 의욕적으로 각자의 좋은 의견들을 제시 하였고, 홍보와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주제는 우리 스스로의 힐링이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아카데미가 되기를 모두가 원했고,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교육연극을 통하여 도서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몸으로 하는 연극을 통해서 책에 대해 깊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구체적인 수업일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각각의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8월부터 월 1회 씩 총4번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8월 첫 번째 수업은 대동이미지 작은도서관에서 진행 되었다. 늘 수업을 진행하고 준비를 하다가 타 도서관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였고, 새롭고 신선하기도 하였다. 대동이미지 도서관에 도착하니 관장님과 자원활동가분들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였던가? 우리 도서관보다 잘 갖춰진 점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공간이 효율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었고, 설비들도 잘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입대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들의 공통의 문제점이 이용객들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관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홍보와 꾸준한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나니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더욱 친밀한 분위기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첫 시작은 늘 그렇듯이 각자 소개를 하고, 도서관에서 어떻게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오게 되었고, 자주 오다보니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원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고 점점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서 더욱 새롭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자원활동가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모두가 공감 가는 내용 들이었다.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며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자기소개 시간이 되었다.

사실 지방에서 교육연극을 접할 기회가 거의 드물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교육연극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사실 전문가가 있다고 하여도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하여 소중한 것을 배우고 같이 무언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강사님 소개까지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육연극이 과연 어떤 것 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인 연극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연극이 어떤 것 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하기에 더욱 궁금하고 기대도 되었다.



하였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 교육연극이 어렵지 않고,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쉽게 교육연극의 예를 들자면 '풍당 풍당 게임' 이 있는데 감정단어를 노래에 맞춰서 전달하고, 걸리는 사람은 얘기를 한다.(그 감정 그대로 자기 소개하기) 직접 게임을 하면서 교육연극을 해보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었다. 기본 개념을 이해 한 후에는 교육연극의 핵심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산용어’ (Umbrella term)

- 교육관 (pedagogy) : 나의 교육철학, 내가 지향하는 교육의 의미, 가치에 대한 관점과 방향
- 드라마(drama) : 연극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연극적 허구와 역할을 중심으로 즉흥적이고 과정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 중심적이고 참여적인 상호작용 행위 (학교, 교실, 워크샵 등 다양한 공간에서 대상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만남)
- 피어터(theatre) : 공연예술의 ‘상연적’ 성격을 지닌 연극행위. 관객의 존재가 있다.

교육연극의 특성 : 인간인 지닌 감정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실제경험 과 대리적 체험, 생생한 체험과 이입을 통한 상상력과 감정), 학습자/참여자 중심 & 과정중심(주체적, 주도적 배움과 발전, 과정의 부산물), 체험을 통한 대화와 질문 (정답 찾기가 아닌 더 많은 질문과 토론, 정서적, 인지적으로 깨어있기,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다’), 즐겁고 자발적인 성장 (다양한 문화가치 관점포용, 개인적, 주관적 관점 존중)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서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았고 결국은 스스로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아카데미의 첫 수업이 이렇게 큰 즐거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9월은 두 번째 수업시간으로 본격적으로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달이었다. 오전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도서관이 분주 하였다. 늘 그렇듯이 도서관에 새로운 이용객들이나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마음이 들뜨고 행복하였다. 타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분들께서 오신다고 하니 즐겁고 몸으로 직접 연극을 한다고 하니 기대도 되었다. 오전 일찍 진행된 수업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와 주셔서 감사했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담소도 나누었다.

교육연극의 기법 중 우리가 진행할 수업은 타블로 (Tableau) 기법 (정지동작, 스틸이미지, 조각상 만들기) 개인 또는 모둠에게 어떤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맞게 하나 또는 두세 개의 정지장면을 신

체로 표현하는 것이다. 입체 사진을 만드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 예를 들자면, 계절이란 주제 제시- 장면 표현 몸으로-하나 둘 셋 찰칵-2~3개의 장면 연출)과 즉흥극 (Improvisation) : 미리 연습하지 않고 약간의 약속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을 말한다. 순발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표현 할 수 있다)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모두 무중력 상태라면 어떨까? 라고 가정하고 각자가 몸으로 그것을 표현 해 보았다. 어색하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표현하니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재미있었다. 신발에 개미가 들어간 사람을 몸으로 표현 할 때는 진짜로 신발에 개미가 들어간 것 마냥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모두가 아이가 된 것 같고 실제처럼 느껴서 매우 흥미로웠다. 제일 재미있었던 상황은 발은 모기에 물렸다고 가정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표현하기가 쉬우면서도 모두가 다르게 표현해서 기발하기도 하고 즐거웠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이나 행동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몸으로 상황이나 대상을 표현하니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가 밝아지고 더욱 친밀해지는 걸 느꼈다. 모두가 깔깔깔 웃으며 행복한 수업을 하게 되었다. 더 오랜 시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다음 수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는 9월이었다.

다시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10월엔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스스로 아카데미 수업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휴식이자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늘 기다려지고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수업 전에 먼저 그림책 '은빛 까마귀'를 각자가 천천히 읽어보고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의 그림책 '미운오리 새끼'와 비슷한 내용 이라고 생각 했는데, 한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으니 처음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와 닿았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은빛 까마귀에서 화자는 꼬마까마귀를 놀리던 까마귀 중에 한 마리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작고 깃털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 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꼬마까마귀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지만, 친구들은 달까지 날아갔다 오면 놀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달까지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다 갔다 왔어!" 그날 밤 꿈속에서 꼬마까마귀가 달까지 힘차게 날아갔다 오는 꿈을 꾸다. 다음날 아침 쓰러져 있는 꼬마까마귀가 눈을 뜨면서 "난 실패 했어" 라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그동안 놀렸던 것에 용서를 구하며 함께 놀자고 한다. 은빛까마귀가 날개를 활짝 펼치는 순간, 날개에서 은빛 (달빛같은..) 깃털이 반짝인다. 현실에서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만으로 배척한 적은 없는지 나를 돌아켜 보게 되었다.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 하였는지?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옳은 일에 정진 하였는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그림책 이었다.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 후에 각자가 마음에 드는 배역을 정하기로 하였다. 선뜻 나서지 않아 주인공인 은빛까마귀는 작고 호리한 체격이지만 마음은 가장 넓은 자원활동가분이 맡게 되었고, 평소 자신의 까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은빛까마귀를 놀리는 친구 중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엄마 역할은 평

소에도 조용하고 온화한 자원활동가분께서 맡았고 나머지 분들은 친구역할을 맡았다. 각자가 배역을 맡고 나서 그림책에 나오는 대사들 중에서 약간의 각색을 하여 연극을 진행 하였다. 교육연극의 기법중 하나인 '타블로(Tableau)'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장면을 정하고 한 컷 씩 정지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표정이나 대사도 너무나 어색하여 서로 깔깔깔 웃기만 하였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하자 표정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되었고 진지하게 연극에 몰입하게 되었다.

각자의 배역에 몰입하니, 꿈속에서 은빛까마귀가 죽은 것이 정말 우리 때문인가? 하고 독백하는 부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 한 적은 없을까? 나의 상식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나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친구 까마귀들과 은빛까마귀가 서로 안으며 진정한 친구가 되는 장면인데,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더 큰 울림을 주었고, 극 속에 몰입이 되어서 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진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셔서 스스로 아카데미가 진정한 힐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더운 여름이었는데 벌써 스스로 아카데미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고 겨울이 되었다. 11월 한 달은 도서관에서도 일 년 중 가장 바쁘고 치열한 한 달을 보내고 있었다. 워크샵, 각종 보고서 마무리 작업, 도서관 행사 준비로 숨 가쁘게 보내고 있었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아카데미 수업 시간이 왔지만 걱정이 앞섰다. 11월에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협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지만 마지막 수업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내었다. 지난 시간에 연극을 할 때 소품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수업 때는 은빛까마귀 날개도 직접 그려서 만들고 배경 그림도 그림책을 보고 직접 그리고 색칠도 하였다. 멋지게 그림과 소품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은빛까마귀 그림책을 다시 한번 읽고 주요 장면들을 몸으로 표현해 보았다. 직접 날개를 달고 연극을 하니 진짜로 은빛까마귀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쁜 까마귀 역할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며 적극적으로 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멋지고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자원활동가분들을 보니 뿌듯하고 몽클했다. 마지막 신까지 열정을 불태우고 나니 드디어 마지막 '컷' 소리와 함께 우리의 스스로 아카데미 수업은 끝이 났다.

누구보다 우리가 새롭고 다양한 문화의 향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개월의 스스로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고, 나누게 되고 또한 각자가 내제되어 있는 최대의 능력을 이끌어 내어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4개월간 같이 수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스스로 아카데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 과연 도서관에서 일하는 우리가 힐링 할 방법은 없을까?
- 도서관에서 책에 대해 깊이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 문화를 직접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

이러한 물음들로 시작한 양산 3개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진행한 스스로 아카데미 이제는 새로운 숙제를 가지게 되었다.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한탄 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선구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우리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과 양질의 문화 활동을 같이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작은도서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 양산의 3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는 꾸준한 만남을 통하여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작은도서관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운 많은 것들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스로 아카데미가 끝나고 난~뒤: 연극이 끝나고 난~뒤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감..)

- 연극은 학창 시절에 무대에서 몇 번 서보고, 스텝도 되어 보면서 재밌는 추억들을 쌓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교육연극'이라는 것은 처음 접해 보았다. 그래서 어떤 것일까? 더욱 궁금하기도 하고 지루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근데 연극이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몸을 통한 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수업이 진행 될 수록 더욱 기대되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게 될지 궁금해졌다. 연극은 재미있는 것 그래서 연극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 하면서 좋았던 것은 대사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연극의 다양한 여러 기법들을 배우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대사를 내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다. 항상 무엇인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은 나를 들뜨게 하고, 죽어가는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한다.

(기획자님) ★★★★★

-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은 서로 낯설고 어색한 3개의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몸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나 재능을 발견해 나간다는 게 정말 재밌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언제나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주인공님) ★★★★★

- 바쁜 일상에 쫓겨 한번쯤 나를 다시 돌아볼 시간들이 필요한데,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림책 한권도 여유 있게 읽지 못하는 현실이 늘 답답하고 슬펐다. 과연 다른 도서관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인데 괜찮을까? 하는 나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 했다는 것을,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다. 서로 눈을 보고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힘이 되었다. 진작에 이러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후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스스로 아카데미였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OOO 관장님) ★★★★★

- 스스로 아카데미? 이름조차 생소한 프로젝트였다. 과연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였다. 이렇게 신선할 수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프로젝트.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 되었지만 3개의 작은도서관이 힘을 뚫뚫 뭉치니 없었던 능력까지 레벨업 되는 느낌. 너무 좋았다!! 재미있었다. 신선했다!! 힐링만땅!! (OO자원활동가님) ★★★★★

- 평소에도 웹툰을 보고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이 취미였는데, 도서관에서 나의 취미활동이 큰 도움이 되어서 너무나 기뻐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취지의 수업들이 많이 진행되어서 도서관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OOO자원활동가님) ★★★★★

- 새로운 형태의 아카데미가 더욱 많이 생겨서 양질의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

일반 공모 3 - 인제

인제군 사립작은도서관 실무자 교육 아카데미 '작은도서관학교'

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

1. 인제군 작은도서관협의회 소개

인제군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용대리 솔방울도서관, 귀둔리 산책작은도서관, 인제읍 작은도서관 숲으로 3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의 모임입니다. 인제군의 6개의 군립, 사립작은도서관의 의견 전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도서관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책읽는인제시민모임을 만들었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도서관 분야 정책제안을 군수후보자들께 전달하여 약속이행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이후 7월부터 인제군의원과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발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 도서관 중에 하나인 솔방울도서관은 2년 동안 운영 중단상태에서 협의회 도움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전체의 도서관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제군도서관정책포럼을 만들어 민과 관의 관계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회는 인제군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건강한 도서관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문제와 해결을 위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스스로아카데미 기획배경

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는 지난 2월에 발족하여 지금까지 인제군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황을 알리고, 지방선거 정책제안을 드리고, 담당부서에 끊임없이 실제 현실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드디어 일자리사업으로 사립작은도서관 실무자를 1인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실무자가 고용이 되어 기본활동을 고민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집중하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교육이 필요함을 느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일자리지원사업 청춘맘 직원 등 인제의 도서관 실무자들이 모여 도서관에 대한 철학과 이론, 실무, 지역사회와 연결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공부하며 인제군의 건강한 도서관 문화와 구조를 만드는데 기초 작업이 되리라 봅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인제군 사립작은도서관 실무자교육 아카데미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이 있어 행복한 마을,
인제군의 작은도서관이 마을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운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알찬 배움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9월 5일부터 ~ 11월 14일까지(총10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대상 : 인제군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실무자, 그 외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 내용 :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작은도서관 이론 및 철학, 실무교육)
- 형태 : 강의와 책읽기, 초청강연 및 현장탐방, 워크숍 등
- 장소 : 인제읍 작은도서관 숲으로
- 문의 : 070-7721-2841 (010.4606.4650)
- 주최/주관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인제군작은도서관협의회
- ♣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필수교육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자 | 세 부 내 용 | 수업방식 |
|-------|---|------|
| 9/5 | 환영식 | 이론 |
| 9/12 | '작은도서관 개념'의 이해 | 이론 |
| 9/19 | '작은도서관 조직과 운영' 이해 | 현장실기 |
| 10/2 | ♣ 춘천 담작은도서관 탐방: 장서계획과 자료관리 | 탐방 |
| 10/10 | 협회 자문단 질의 응답 | 이론 |
| 10/17 |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활동 기획과 실제' 이해 | 이론 |
| 10/24 | '작은도서관 재정' 이해 | 이론 |
| 10/31 |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이해 / 작은도서관과 책 | 이론 |
| 11/6 | ♣ 초청강연: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른도서 / 한상수 대표님 | 강연 |
| 11/7 | ♣ 초청강연: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린이도서 / 수원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최은희 회장 | 강연 |
| 11/14 | 살아있는 우리 도서관 만들기 - 개별 작은도서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안 찾기 인제군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발표 | 워크숍 |

3. 운영내용

'작은도서관 학교' 라는 이름으로 실무자들의 기본교육의 형태로, 책읽기와 도서관 탐방, 초청강연, 마무리 워크숍 등의 형태로 총 10여회 진행하였습니다.

- 1) 책읽기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기본 이해
 - (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서 출간한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책을 구성원들과 나누며, 작은도서관의 개념, 책, 조직과 운영, 문화예술활동 기획과 실제, 재정, 네트워크의 이해 등 실무에 대한 기본 이해의 교육
 - 방법 : 매주 책읽기모임과 개념 및 실전 적용의 참고
 - 기간 : 2018년 9~10월
 - 매주 1회 책읽기 모임 총6회
- 2) 도서관탐방과 초청강연: 배가 및 장서분류, 장서개발 등의 실전 공부
 - 현재 인제군 사립작은도서관 내의 도서검색 및 대출반납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열악한 실정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도서검색의 편의와 도서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사전교육의 차원
 - 도서 분류와 배가, 장서개발 등의 방법
 - ① 도서관탐방 : 춘천 담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배가의 방식을 살펴보고, 장서개발의 고려사항 등의 설명을 듣는다.
 - ②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른책과 어린이책 구분하여 강연)
 - 기간 : 2018년 10월-11월
 - 도서관탐방 1회와 초청강연 2회
- 3) 워크숍 : 도서관별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진단하고, 실제에 적용하여 활동계획 작성
 - 작은도서관학교를 통해 배운 이론과 실무의 예들을 바탕으로 각자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상태를 살펴 앞으로 진행할 작은도서관의 문제와 해결을 진단해 보고 활동을 계획해 본다.
 - 방법: 지역의 특징을 살피고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세우기
 - 기간 및 횟수 : 11월, 1회

4. 앞으로의 계획

아카데미 이후, 실무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좋은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공부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제군에서 작은도서관이 진행해야 할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 활동에 실무자들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마을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연계한 좋은 그림책 순환도서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활동을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그림책을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의 책에 대한 안목과 직업적 능력을 키우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전하는 작업을 해나간다면 긍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5. 소감

스스로아카데미 과정은 보람과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실무자들이었기에 업무 초기에 기본교육에 대한 부분을 모든 도서관에서 고민하고 있었으나 막상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이 교육을 통해 협의회에서 대리하여 진행하였기에 만족스러워 하였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진행상에는 초기에 책읽기의 방식을 바꾸면서 혼란이 다소 있긴 하였으나 초중반쯤부터 수정하여 차분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실무자들의 집중과 열정이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였기에 실무자 선생님들의 만족도 높았고,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후속모임을 꾸려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사례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선생님들의 평가를 들으며 작은도서관 학교를 진행한 보람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라는 연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성장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이 가능하게 지원해 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강의 원고

작은도서관 어른책 장서 개발 어떻게 할까?³⁾

(사)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한상수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아이를 둔 주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책을 구입할 때 어린이책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이 마을 책 문화의 중심이 되고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이용하는 보편적인 도서관을 지향한다면 어린이책 장서 개발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어른책 장서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깨어있는 시민을 키우는 일이다. 디지털 시대에 마을 책 문화를 이끄는 본거지로서 평소 책과 덜 친한 비독자 주민들을 독자로 만드는 일도 간과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의 핵심 역할이다. 이런 측면도 어른책 장서 개발의 중요성을 더한다.

어른책 장서 정책에서 고려할 점

작은도서관의 어른책 장서 정책에서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이용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의 책들이다. 도서관에 자주 오는 이용자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수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같이 오는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들 책만 빌리고 본인들 책은 빌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들을 수서하고 추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서 정책을 세울 때 지역의 인구구성이나 주요 직업군, 주민들의 관심 분야 같이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 비이용자들을 이용자로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도서관 비이용자들에게는 이용자를 매개로 책과의 스킨십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에게 책을 빌릴 때 도서관에 오지 않는 가족들 책도 같이 빌리라고 권해보자. 이때는 만화나 요즘 상영되는 영화의 원작, 베스트셀러나 화제가 된 책처럼 부담이 적고 읽어볼 마음이 생길 만한 책들을 추천하면 좋다.

3) 이 원고는 <동네책방동네도서관> 2018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노인 독자는 작은도서관의 블루오션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작은도서관들도 노인 독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태극기 부대'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령층에게 사회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어르신들끼리 유통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책 읽는 노년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들을 수서 목록에 많이 넣었으면 한다. 건강과 취미 활동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줄 수 있는 사회 관련 책이나 시사 잡지도 함께 수서하면 어떨까 싶다.

어른책 정보 어디서 찾을까?

작은도서관에서 수서할 만한 어른책 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책 정보가 가장 잘 정리된 곳은 인터넷서점 사이트이다. 대형 인터넷서점들은 장르별로 정리가 잘 되어있고 신간 정보도 가장 빠른 곳이므로 여러모로 유용하다. 인터넷서점은 분야별로 분류가 잘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분야들은 정기적으로 살펴보며 수서 목록을 작성하면 좋다.

신문의 북색션이나 서평 잡지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 요즘은 예전보다 지면이 많이 축소되어 아쉽지만 주 1회 금요일이나 토요일 자 일간신문들에 신간 서평 기사가 실리니 도서관 성격에 잘 맞는 신문은 매주 챙겨보도록 한다. 종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네책방동네도서관』 『기획회의』 『출판저널』 『책 Chaeg』 『비블리아 Biblia』 같은 서평 잡지에는 나름대로 엄선된 책 정보가 실리니 이 중에서 자관의 성격에 맞는 잡지는 정기 구독해 참고하면 좋다. 이 밖에 오마이북(book.ohmynews.com)이나 프레시안북스(pressian.com/news/books.html), 채널예스(ch.yes24.com) 같은 인터넷 서평지에도 다양한 책 정보가 많이 실려 있다.

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사이트도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독서IN(www.readin.or.kr)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독서IN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독서 운동 단체들이 추천하는 추천 도서 목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인기도서, '한 도시 한 권 읽기' 선정도서 목록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사이트에서 '사서 추천도서' 페이지로 들어가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한 책 목록들이 장르별로 구분되어있다.

이 밖에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하는 스마트폰 앱도 여러 종 나와 있어 참고할 만하다. '플레이스토어'나 '맥 앱 스토어'에서 검색어로 '책추천'을 입력하면 관련 앱이 검색된다. '행복한독서' 앱을 설치하면 독서운동 단체인 행복한아침독서가 발간하는 4종의 독서 관련 정보지 - 『월간그림책』 『초등아침독서』 『중고등아침독서』 『동네책방동네도서관』- 를 무료로 볼 수 있어 유용하다.

책방 활용한 현장 수서

작은도서관에서 수서 목록을 작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책방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많이 생긴 큐레이션형 동네책방은 책방 운영자들이 엄선한 책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수서에 최적의 공간이다. 이런 동네책방은 기본적으로 큐레이션이 일상화된 공간이므로 도서관 근처에 이런 동네책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책방 운영자들과 친해지면 좋은 책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책방이 없다면 도심에 있는 큰 서점에 정기적으로 나가 책을 실물로 검토하고 수서하도록 한다. 작은도서관은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야 하므로 자관의 이용자들에게 맞는 책을 엄선해서 고르는 게 필수적이다.

행복한 책 고르기가 되기를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작은도서관에서 괜찮은 어른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운영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고 자관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길 바란다. 한 가지 기대한다면 수서 목록을 만드는 과정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책 고르는 일만큼 큰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작은도서관, 어린이책 장서개발 어떻게 할까?

- 어린이 자료 중심으로 -

수원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해님달님작은도서관 수서팀장 | 최은희

작은도서관과 책

책은 도서관의 심장이다. 장서가 탄탄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자료 제공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접근성이나 이용자와의 친밀도가 공공도서관보다 낫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심을 책에 두지 않을 경우 다른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변하기 쉽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선된 장서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이라면 지역의 이용자 파악이 중요한데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경우 먼저 좋은 어린이책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과 가까이 접할 따듯한 공간으로 건강한 책놀이터를 위해 구비하여야 할 장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린이책 장서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장서 내용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원활동가들로만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린이책의 분류에 대한 고민, 주제별 목록에 대한 정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어린이자료에 대한 연구와 제한된 수서 공간에 적합한 전략적 장서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도서관서비스의 기본인 자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선정도구와 신뢰할 만한 목록 파일 제공 단위가 요구되고 있다.

2017년 전국 9개 작은도서관 사례 연구

전국에 어린이책을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 공립 작은도서관을 자료 조사하였다. 6년 이상부터 20년 가까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고, 장서 선정 기준을 밝히고 있고 평소에 장서점검과 장서연구를 하고 있는 곳,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최신자료로 엑셀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 가입 한 9개소 작은도서관들이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제주) |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인천) | 모퉁이도서관(대전)
 초롱이네도서관(청주) | 은행나무도서관(서울) | 책놀이터도서관(고양)
 책돌이도서관(광주) | 천일웃는책도서관(서울) | 해님달님작은도서관(수원)

어린이책 단행본 중심으로 9곳이 모두 공통으로 보유한 책은 총 451종이었다. 9곳 모두 보유하고 있는 책이 과연 좋은 책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어린이책 수서에 대한 고민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표본도서관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책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본도서관 9곳의 공통 도서 보유수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본도서관 장서 내용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1곳만 보유하고 있는 17,517종이라는 데이터는 9개 표본도서관이 각각 다양한 책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많은 곳에서 수서한 책이 과연 신뢰할만한가 의문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보편적으로 알려진 좋은 책의 기준에 부합하는 책들이 9곳 목록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9곳 보유도서 451종은 대부분 오랜 시간 이용자의 관심을 받으며 책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책이었다. 하지만 절판된 책이 다수 있었고 또 지식정보책의 경우 변화해 온 시대를 담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책들도 있었다. 시간을 이겨내고 오래 사랑 받고 있는 책이 현재는 절판되어 기본 장서 최종 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9개소 중 5곳의 도서관 장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1만 여 권의 규모로 자관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작업을 직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폐기도서 관리를 상시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장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 공통적 의견이었다.

| 내용 \ 도서관 | A | B | C | D | E |
|-------------------|-----------------------------|--|--------------------|-------------------------|-----------------------------------|
| 장서 규모 | 12,000권 | 9,566권 | 24,000권 | 13,000권 | 10,378권 |
| 도서관리 프로그램 | 책꽂이 3.0 | 책꽂이 3.0 | 엑스리스 | 코러스 → 책꽂이 3.0 변경(2016) | 책꽂이 → 코러스 변경 (2017.8) |
| 분류 방법 | 비십진분류 | 십진분류 | 십진분류 | 십진분류 | 십진분류 |
| 별치기호 | 사용 안 함 | 사용 안 함 | 사용 | 사용 | 사용 |
| 대상 구분 | 유아만 다른 방 | 그림책과 어린이문학(3층) 문학 외 책과 성인책(2층) | 유아책방 만화책방 구분 | 영유아 국내창작그림 외국창작그림 | 그림책 아동도서 청소년(성인) 방 마다 구분 |
| 등록, 분류작업 주체 | 직접 | 직접 | 직접 | 직접 | 직접 |
| 분류기준 도구 | 자관 분류 | 국어청 분류 참고 도서관리프로그램 | 도서관리 프로그램 | 도서관리 프로그램 | 국어청 분류 |
| 2016년 장서구입 현황 | 3백만 원 | 3백40만 원 | 5백만 원 | 5백만 원 | 7백50만 원 |
| 장서 구입 주기 | 분기별 | 분기별 | 분기별 | 분기별 | 분기별 |
| 선정위원회 구성 모임 횟수 | 없음. 상근자가 구입 | 있음. 연 6회 | 있음. 연 5회 | 있음. 연 6회 | 있음. 연 6회 |
| 선정도구 | 인터넷 서점 어린이책잡지 아침독서 신문 | 행복한아침독서 학교도서관저널 오픈키드, 출판사 목록 알라딘, 교보 등 | 어도연 추천목록 한겨레 신문 | 어도연 추천목록 웹진 나비 | 인터넷 정보 |
| 장서 점검 | 안 함 | 연 1회 | 2년에 1회 | 2년에 1회 | 2년에 1회 |

| | | | | | |
|--------------------|-------|---------------------------------------|---------|---------|-----------|
| 장서 점검 | 안 함 | 연 1회 | 2년에 1회 | 2년에 1회 | 2년에 1회 |
| 폐기도서 관리 | 상시 관리 | 상시 관리 | 상시 관리 | 상시 관리 | 상시 관리 |
| 도서목록 선정과 구입시 어려운 점 | 예산 부족 | 추천목록 신뢰성 참고자료 부족 선정자의 전문성 부족 | 참고자료 부족 | 참고자료 부족 | 추천목록의 신뢰성 |

장서 선정 기준과 선정도구

표본도서관 9곳 모두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였으나 선정 기준은 뚜렷했다. 전집보다 양질의 단행본 위주로 장서를 구성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하여 전집과 학습만화는 기증도서라도 기증자에게 공지한 후 폐기하거나 기증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간 도서는 장서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별하여 입고하고 있었다. 선정도구 또한 다양한 매체와 서평지, 추천 목록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개관 초 기본 장서 선정도구로 사용한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었다.

표본도서관들의 기증책 처리 기준과 장서 구입 기준을 살펴보았다.

| 기증책 처리 기준과 장서 구입 기준 | |
|---------------------|---|
| A | 전집과 만화류는 기증받지 않음 |
| B | 단행본 깨끗한 책 그림책 위주 |
| C | 전집, 학습만화 기증 받지 않음 재기증, 폐기가능 공지 |
| D | - 기증 받을 때 전집보다는 단행본 위주의 책 2000년 이후 출판된 책 - 구입 할 때 · '이런 책 구입해 주세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 목록 · 어도연에서 추천하는 책 · 자원활동가들이 추천하는 책 · 도서관에 수서팀장이 있어 취합된 목록 중에서 자기개발서, 시류에 편승해서 나온 책, 전집은 자체해서 구입함 |
| E | 전집, 학습서, 지식위주 책은 배가 하지 않음 |
| F | - 기증받을 때: 폐기,이관 할 수 있음을 기증자에게 고지함 5년 이내의 책만 기증 받는 원칙 (자료가치 있는 작품은 예외) - 구입 할 때: · 2차 도구(각종매체, 창비어린이, 동화읽는어른 회보)에 의거해서 수서팀원들이 제시한 목록 과 희망도서를 참고해 수서팀장이 주문 |

| | |
|---|---|
| F | · 어도연 좋은 책 기준에 부합하는 장서를 구입 · 전체장서구성비율과 이용자 연령(비율)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은 집중수서 · 권수에 신경 쓰지 않고 비싸서 단 한 권만을 사더라도 좋은 책을 사며 월세는 밀리더라도 매달 책은 산다는 원칙 · 눈감고 꺼내도 좋은 책만 팔려 나오는 도서관을 지향 |
| G | 되도록 기증받지 않음 자료선정기준: 최신성, 문학성(문학작품의 경우), 적절성(연령대, 지역정서 고려), 활용율, 미학적 즐거움, 다양한 가치의 제시 |
| H | - 도서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위+장서팀 - 책추천 : 그림책동아리 중심 - 책사회,어도연,오픈키드,행복한아침독서목록 참고 - 성인책 정보 취약하여 2016년 과산숲속책방 도움으로 분야별 추천도서 일괄 구입하여 도서 다양성 높임. 동물, 과학 분야에 집중 도움 받고 진행, 이용자들 반응 좋아짐 |
| I | 전집, 학습만화 기증 받지 않음 재기증, 폐기 가능 공지 |

장서 수집과 선정 기준을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 장서 수집의 원칙 〉 * F 도서관 장서 선정 기준

- ① 월 20만원 이상 신간 중심으로 구입한다
- ② 어린이책 60% 성인과 청소년 책 40% 비율을 지키되, 청소년책을 20%이상 구입한다.
- ③ 되도록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을 구입하고, 외국작가 책은 50%를 넘지 않는다.
- ④ 전집류는 되도록 피하고, 단행본으로 수집한다.
- ⑤ 문학류를 우선하고, 그 외에 다른 주제 책들을 수집한다. (시, 수필 책 포함)
- ⑥ 학년별로 골고루 수집한다.
- ⑦ 장서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추천서를 우선해 수집한다.
- ⑧ 학습만화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역사 문화 사회 관련 만화는 엄선하여 구입한다.)
- ⑨ 전집이나 만화류는 기증받지 않는다
- ⑩ 복권은 되도록 구입하지 않는다.
- ⑪ 월 20일 전후 장서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집할 도서목록을 정한다.

〈장서 선정 기준〉

- ① 지은이, 번역가가 뚜렷한 책을 우선한다
- ②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하되, 작은 출판사 책들도 눈여겨 본다
- ③ 사회적으로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치를 담은 책을 우선한다.
- ④ 재미있지만, 말초적인 재미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책을 우선한다.
- ⑤ 앞뒤 맥락이 잘 연결되는 문학성 있는 책을 우선 한다
- ⑥ 정보가 정확하고, 그 정보가 객관적인 책을 우선한다.
- ⑦ 우리말을 살려 쓴 책을 우선한다.
- ⑧ 번역이 잘 된 책을 우선한다.
- ⑨ 그림책의 경우,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잘 구성된 책을 우선한다.
- ⑩ 시리즈물은 신중하게 고른다.
- ⑪ 지은이나 번역가 등이 뚜렷하게 적혀있는 책은 되도록 배제한다.
- ⑫ 전문성을 앞세워 재미가 떨어지거나 너무 재미만 추구한 지식정보책은 배제한다. 축약본은 배제한다.
- ⑬ 왜곡된 사실을 담거나 왜곡될 수 있는 그림이 담긴 책을 배제한다.
- ⑭ 발행 목적이 지나치게 학습적인 책을 배제한다.
- ⑮ 1988년 이전 책은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한다.
- ⑯ 자극적인 그림이나 좋지 않은 표현이 담긴 책은 배제한다.
- ⑰ 대상연령에 맞지 않게 구성된 책은 배제한다.
- ⑱ 문장력이 허술하거나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책은 배제한다.
- ⑲ 지나치게 인물을 우상하는 책은 배제한다.

어린이 자료의 유형

어린이 자료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구분기준 | | 세부 유형 | | | | |
|------|--|---------------------------|-------|------------|--------------|------------------|
| 매 체 | | 단행본(장난감 책 포함), 정기간행물, 비도서 | | | | |
| 내용 | 구성 형식 | 글책 | | 그림책 | 만화책 | 캐릭터 카툰 코믹스 |
| | | | | 그림 이야기책 | | |
| 픽션 | 산문 | 전래동화/소설 (옛이야기, 전승문학) | 민담/전설 | 이야기그림책 | | 이야기만화 |
| | | | 우화 | | | |
| | | | 신화 | | | |
| | 창작동화/소설 | 환상동화 | | | | |
| 사실동화 | | | | | | |
| 역사동화 | | | | | | |
| | | 아동극 | | | | |
| | 운문 | 동요, 동시 | | | | |
| 논픽션 | 지식정보책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과학, 예술, 역사/전기) | | 정보그림책 | 개념그림책 | 학습(정보) 만화 | |
| | | | | | | |

위 표와 같이 어린이자료의 유형을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책을 수서한다면 어린이 이용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 십진분류가 어린이도서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 선행 자료에서도 문제 제기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별치기호를 두거나, 제한된 수서 공간과 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제별, 제목별, 작가별, 출판사별로 분류하여 배가하기도 한다.

어린이책에서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책이나 동화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 유아책의 경우 호기심을 갖는 사물 중심의 공룡,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 구분하거나 관계나 생활 중심의 친구, 가족, 인성 등에 관한 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의 경우 하위 갈래를 사실동화와 판타지동화, 역사동화 등으로 세분류하여 나라별, 작가별로 분류하고 있는 현재 대분류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몰라도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때 어린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가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책은 일상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실제 공공도서관의 만화책 수서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만화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학습(정보)만화만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그림책작가와 만화작가의 경계가 점점 없어져 만화 형식을 갖춘 어린이책 출간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자들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 형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어린이독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어린이가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어린이가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라도 책 읽어주기이다. 책소개를 북토크 형식으로 하고 어른들이 먼저 읽어주는 걸로 다가가면 훨씬 친근하게 책을 접하게 된다.

다음에는 함께 읽기, 나눠읽기, 돌아가며 읽기, 서로 읽어주기로 책놀이 형식을 말한다. 세 번 째는 동네 동생에게 읽어주는 거 지켜봐주기이다. 아이들이 직접 읽어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서 빠뜨〉(2017 재미마주 발간)를 인용하자면 좋은 문학작품을 통한 제대로 된 책읽기는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서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한다. 마을의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문학작품을 구비하고 어린이와 함께 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도서관과 어린이책!

작은도서관에 가면 재미있는 책이 있다!
책을 읽어주는 어른이 있고, 함께 읽는 즐거움이 있다.
어린이책을 함께 읽는 따뜻한 어른들이 있다.
'읽어라'가 아니라 '함께 읽자!'
어른들의 책모임, 나를 위한 책모임!
자꾸만 눈이 가고, 손이 가는 북큐레이션!
책표지로 말없이 말걸기!

일반 공모 4 - 인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문화기획 어떻게 할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1.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소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04년 “어린이도서관운동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며, 회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한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1.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립 운동
2. 지역의 독서문화운동 등 작은도서관운동을 하며
3.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강연회와 캠페인
4.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
5.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교육
6.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펼쳐 나갑니다.

어린이도서관 발전방향과 모색을 위한 공청회, 어린이날 행사, 부평구 책놀이 마당 등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확대,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어린이도서관 실무자교육, 어린이사서캠프, 찾아가는 북스타트, 유아6주 프로그램 “책이랑 놀아요” 등을 운영하며 2011년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인천 각 구의 15개 작은도서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교회 등 다양한 관중과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조직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비록 그 가입 도서관의 수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작은도서관학교, 지역 책축제, 정책제안 등 다방면에서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2018년 지자체선거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제안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먼저 인천 작은도서관 현황을 조사, 각 구별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인천작가회의, 인천서점조합, 출판관계자,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인천지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과

함께 정책제안토론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 토론회의 방향과 고민의 지점을 공유하고 분야별 정책을 정리하여 상반기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인천, 독서생태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독서문화조례 제정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015년 책의 수도'로 선정된 인천이지만 아직까지 독서문화진흥조례조차 없었기에 인천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독서문화진흥조례제정준비위원회'(인천서점조합, 인천작가회의,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천지부 사서분과, 인천출판조합)를 구성, 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이 최종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인천 시민의 행복한 독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시민이 책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독서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독서문화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 독서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독서문화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에 동참하였고 이후 함께 한 주체들과 인천독서문화포럼을 구성하여 월 1회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획 배경

2004년 창립 이후 14년 동안 인천의 작은도서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온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17년 '책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작은도서관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책읽기와 작은도서관 본연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회원도서관과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나열되는 1회성 교육이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끌어내는 교육을 위해 강무홍 작가의 책읽기 3강을 중심에 두고, 독서동아리의 구성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박미숙 책놀이터 관장님의 강의를 앞뒤로 배치해서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습니다.

2018년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상반기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인천, 독서생태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고, 독서문화조례 제정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 학교도서관, 작가회의, 출판, 어린이도서연구회 등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고,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 하였습니다. 만남이 이어질수록 고민은 깊어집니다. 조례제정 이후 실질적인 독서문화정책이 구현되는 경우,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인천에는 어떠한 독서

문화정책이 필요할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은 무엇일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를 위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이번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공부해 보려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흐름에 대해 공부하고, 이것을 '인천'에 맞게 적용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공부해보려 합니다.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자와 활동가, 그리고 인천서점조합, 인천작가회의, 출판, 학교도서관 사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등 네트워크들과 함께 준비하고, 공부하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려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독서문화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단위만의 고민이 아닌 정책제안을 통해 넓어진 관계망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넓혀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격월로 공동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원도서관과 함께 하는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각 도서관의 관장, 혹은 사무국장과 공동운영위원회가 결합하는데, 주 대상은 이들입니다. 거기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한 인천서점조합, 출판관계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인천작가회의,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학교 교장선생님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지역의 독서문화정책은 작은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독서생태계를 받치고 있는 도서관, 서점, 출판, 사서, 독서문화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서 함께 준비해야 정책도, 제안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기에 아카데미부터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번 아카데미는 인천의 독서생태계를 되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뿌리를 찾아내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홍보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해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교육청 관계자, 인천의 문화예술인 등 외연을 넓혀 월 1회 독서문화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도서관의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웹자보를 만들어 공유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일시도 변경하였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지원사업

2018 '스스로' 아카데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문화기획 어떻게 할까?

- 대상**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 및 작은도서관 활동가
인천독서문화진흥조례준비위(가)
- 일시** 2018. 11. 1. ~ 11. 15. (매주 목) 10:00 ~ 12:00
11. 28. (수) 19:00 ~ 21:00
- 장소** 꿈땅도서관 미래클센터 4층

프로그램 안내

- 1회 11.1.(목)** 독서문화기획이란?
강상구(성동문화재단:독서문화기획자)
- 2회 11.8.(목)** 독서문화기획의 실제
강상구(성동문화재단:독서문화기획자)
- 3회 11.15.(목)** 지역과 독서문화기획
박미숙(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독서문화기획자)
- 4회 11.28.(수)** 총평회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문의 032.766.3092
010.7558.6250
꿈땅도서관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996
전화 070-7878-6026

4. 운영 내용

인천시의회에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에도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를 근거로 인천시의 독서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 필요한 독서문화정책은 무엇일지, 어떤 제안을 하여야 할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무엇을 기획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편성될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현실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의 목표는 인천시 독서문화 정책제안과 실행을 위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와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준비위원회의 학습과 성장, 인천시 내 독서생태계 네트워크의 공고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획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8월 말부터 전체 독서문화의 판과 경향을 알려줄 강의, 그리고 독서문화기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획 강의 등 두 번의 전문가 강의를 월 1회씩 진행하고, 그 사이는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내용을 깊이 있게 하고, 현실성 있게 만들어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조율과 강사 섭외 등의 문제로 실행시기를 연기하게 되었고 좀 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가 있어 독서문화기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문화기획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획에 대한 개괄적 개념을 공부하고 독서문화기획으로 내용을 넓히는 강의, 두 번째로 실제로 독서문화기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지역에서 이뤄진 독서문화기획과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3강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독서문화운동을 위한 방향, 독서문화진흥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총평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기획자 강상구 선생님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문화기획'과 '디자인'입니다. '문화란 사람과 공간의 인위적이고 반복적인 관계 맺기로 지극히 의도되고 축적된 모든 것'이며 '기획은 목표를 조율하는 일'로 '문화'와 '기획'이 만난 '문화기획'은 기획자의 깊은 의도성과 조정 능력이 섞인 융합 과정의 총체로 특정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기획은 관계 맺기와 내면화를 통해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든 것인 디자인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작품인 '책'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서관이야말로 일상 문화의 유기적 공간이며 문화예술공간으로 관계 맺기로 작동하는 작은도서관은 문화기획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독서문화기획의 실제입니다.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양태를 기획자의 생각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문화기획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실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문화기획이 실제로 이뤄지는 지역과 작은도서관의 사례였지만 문화기획자이

며 작은도서관 운영자인 박미숙 선생님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주제로 ‘우리는’ ‘왜?’ ‘)’ ‘지금’ ‘나는?’ ‘일상’ ‘책읽기’ ‘혁신’ 등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은도서관과 활동가들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바라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총평회에서는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조례 내용을 공유하고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과정을 보고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서문화기획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천 독서문화기획의 문제는 무엇?’ ‘일상에서의 기획’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의 기획’ 등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5. 앞으로의 계획

인천독서문화진흥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독서문화운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수립되는 독서문화정책에 대해 그 방향을 고민하고 책의 수도라는 위상에 적합한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독서문화포럼으로 만나는 각 분야의 독서생태계의 주체들과 그 여정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문화기획은 무엇일지 간담회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기획을 생산하고 실행, 공유하려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입니다.

6. 소감문(스스로 아카데미 총평)

- 내가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 뿌듯했다.
- 들은걸 바탕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 5년 동안 해온 게 헛되지 않았다
- 새로운 강의라 들으니 좋았다
- 도서관과 사람...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고, 다른 도서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 목표가 불분명해졌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다. 목표를 잃어버린 일상 활동에 대한 생각을 했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에서 도서관이 왜 변화발전 해야 하는가...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내용과 형식의 고민이 된다.
-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같이 하는 사람이 흥미를 못 느끼고, 불만도 생기고, 나만 좋아하는 것을 하나 싶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하자니 재미가 없었다. 지치고 뭘 하지? 하는 고민이 든다. ?가 짊어진 느낌이다.
- 독서문화기획이 와 닿는 사람은 아니다. 도서관이지만, 도서관만의 역할에 대해 방점을 찍지 않는다.
- 참여하는 사람의 수에 신경 쓰지 않는다. 평가 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려면 관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하고 싶은 것을 고민해서 해보는 것은 좋겠다. 기획해가는 과정을 갖고 싶다.
- 그때가 틀리고 지금이 맞을 수도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
- 조례 제정을 이번 정책제안 토론회의 목표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협의회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 인천독서문화포럼이 만들어졌는데 작은도서관도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 ‘스스로’ 아카데미는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까지 함께 한 과정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토론회를 준비하며 처음으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룬 인천의 독서문화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그 주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인천의 수많은 작은도서관과 그 과정을 만들어가지 못한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습니다. 인천의 작은도서관 중 15개가 회원인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인천시와 협의의 주체로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수적인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정량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기에 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작은 우리 스스로가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작은도서관의 지금의 모습을 직시하며 작은도서관의 요구만이 아닌 인천의 독서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이를 위한 시작입니다.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파주시 4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처음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을 통해 도서관의 활동가를 키워내서 도서관 운영을 좀 더 잘해보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는 파주북부의 작은 도서관 몇 곳을 소개받아 연락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그쪽 도서관도 프로그램 만들고 자원봉사자들 모으기 많이 힘드시죠?

도움 될 만한 지원사업이 있대요. 우리 같이 공모사업 신청할까요?

같이 강사도 부르고 교육도 받고 일단 같이 만나서 얘기라도 해봐요”

공동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만든 마을공동체 내의 도담작은도서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 지켜낸 동문그린 작은도서관.

아동 사회복지 시설인 평화원 안에 있는 비전평화 작은도서관.

LH임대 아파트 단지 안의 빛나요 작은도서관.

모이고 보니 어찌면 이렇게도 다양한지 공모사업 준비보다는 서로 어려운 점, 아쉬운 점, 혼자서는 못하던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의욕들도 넘쳐났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좀 일으켜보자고 각 도서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의견과 인맥을 동원해 강사 섭외도 척척 진행되고 장소 섭외도 진행되니 어느새 스스로 아카데미를 꾸려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에 그 동안 왜 주위의 도서관과 같이 하지 못했을까 반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모르고 혼자서 속 끓이고 힘들다 한탄하며 지냈던 시간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 구분 | 일정 | 내용 |
|-------------------------|--|---|
| 사전모임 | 9월 6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동문그린 작은도서관 | 김장성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각 도서관마다 관련 도서 찾아보고 가져오기 |
| 김장성 작가와의 만남 | 9월 13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문산도서관 1층 강의실 | 그림책의 이해 1강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 |
| | 9월 20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문산도서관 1층 강의실 | 그림책의 이해 2강 -그림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 책과 하는 놀이 워크숍 강사: 김지현 | 10월 10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문산도서관 1층 강의실 | ‘그림책 파헤치기’ 1차 그림책의 이해와 책속 등장인물에 공감하기, 내용 흐름에 따른 상상 활동, 감상 공감하기 * 참고도서 : <작은 새>, <몽당>등 |
| | 10월 17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문산도서관 1층 강의실 | ‘그림책 파헤치기’ 2차 그림책의 이해와 책속 등장인물에 공감하기, 내용 흐름에 따른 상상 활동, 감상 공감하기 * 참고도서 :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두 사람>등 |
| 자체 워크숍 | 11월 5일 오전 10시~12시 장소: 동문그린 작은도서관 | 각자 좋아하는 동화책과 같이 하고 싶은 놀이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하기 |

첫모임 9월 06일(목요일)

강의주제를 그림책으로 정하고 강사로 김장성 작가님을 섭외하고 보니 준비하는 우리들이 먼저 공부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하시는 강사님의 책부터 같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인 김장성 작가의 대표작 '민들레는 민들레'는 자기존중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보는 할배'는 2009 한국출판문화대상 수상작으로 목탄그림으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해서 더 아련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김장성 작가님의 책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른들이 더 감동받고 옛 추억에 젖어 힐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장성 작가님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감에 강의날짜가 기다려졌습니다.

**김장성 작가 강의 요약****그림책의 이해 1강 9월 13일(목요일)**

그림책은 언어와 이미지로 말하고 보여준다. 지나가다 보는 돌멩이도 집어서 살펴보면, 여러 상상을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 어린이와 더불어 산다고 여기는 자세가 좋다. (어린이를 대상화하지 말자.)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에는 어린이, 여성

에 대해 따로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다.

어른, 남성은 번호가 따로 없이 그냥 일반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어째서 어린이, 여성은 따로 번호를 매겨야 하는 걸까? 제도와 통념이 어린이와 여성은 일반이 아니고, 어른과 남성은 일반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애쓰는 그림책들이 있다. 그런 그림책은, 그림책이라는 예술 형식이 갖추어야 할 것을 담기보다 통속화의 위험이 있다. 그림책을 문학이라고 여기면 문제가 생긴다. 그림책은 언어와 이미지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만이 아니다. 그림책은 그림책이라는 매체로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그림책은 형식 자체가 내용이다.

-사례 그림책 <아무도 지나가지 마> 등

그림책 <책>을 보고 아이에게 '넌 대체 꿈이 뭐니?' 하고 물으며 꿈을 강요하지 말자. 목표를 설정해서 가라고 강요하지 말자. '과정과 이야기'에 주목하자.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쌓아가도록 격려하자.

그림책 <거울 속으로>는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자기 모습'이 다를 때 성숙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준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아닐 때 거울을 깨버리는 퇴행이 담겨 있다. 자기와 자기 이상의 불일치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림책이다.

그림책을 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들을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을 쓸 수 있다.

그림책의 이해 2강 9월 20일(목요일)

1. 소리 내어 읽기 - 음성언어는 그 현장의 분위기, 감정을 담아 문법이 틀리더라도 재미가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읽는다면 정말 재미있을 "고구마구마"

2. 보는 자리 (시점) - 시점, 관점 본다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이다.

-그림책 <딸기> : 표지 그림 가득 딸기가 그려져 있다. 우리가 알던 딸기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시적인 표현으로 딸기의 성장과 생명력을 인상 깊게 보여준다.

-그림책 <수도꼭지를 틀면> : 흔한 수도꼭지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위대해 보인다. 수도꼭지를 틀고 떨어지는 물과 함께 놀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앎과 생각 - 사실은 정보이고, 정보는 지식이며, 지식은 철학이다. 철학은 곧 사상이다.

4. 상상하기 - 작가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책

-<이상한 집> : 이상한 집들이 모여 재미난 마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한다.

-<평화란 어떤 걸까?> : 아이가 위를 보고 있다. 어른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서 좋다고 느끼도록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5. 은유와 상징- 지식과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은 그것이어야 한다. 은유에서는 그것이 그것이어서 만은 안 된다.

-<민들레는 민들레> : '민들레'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라.

6. 마음을 전하기- 미디어는 메시지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림책에 어떤 메시지(마음)가 담겨있을까

7. 질문하기/발견하기

-<플릭스>: 과연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 이 그림책은 헨드캡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란 조화롭게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

■ 질의응답

사회자 :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작품이 유명하다. 이 그림책을 어떻게 해서 구상하게 되었나?

김장성 작가 : 작가로 생활하다가, 아이가 돌이 되어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다행히 사계절출판사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 편집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림책은 보통 책 하나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린다. 그러다 보니 편집자 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작가야? 편집자야?” 하고 물었다. 그러다가 자유로 중앙선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보게 되었다.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다.’ 하는 생각을 했다. <민들레는 민들레>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책과 하는 놀이 워크숍

김지현 강사 10월 10일(수요일)/10월 17일(수요일) 강의 요약



* 그림책 읽으며 서로 이야기하기

- 작은 새 : 작은 것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작은 모래가 모여 빌딩도 짓고, 튼튼한 다리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해 무심합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 대부분은 벌이 열심히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퍼뜨려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잘 실리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 두 사람 :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모녀나 모자 또는 부자나 부녀 사이일 수도 있으며, 형제나 자매 사이일 수도,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친한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종종 서로가 어떤 사이인지 전혀 생각지 않고 지내곤 합니다. 마치 물이나 공기가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잊고 지내듯 말입니다. 어쩌다가 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생겨 서로 멀리 또는 오래 떨어져 있거나, 감정에 금이 가거나, 또는 아예 헤어져 버리게 되면,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사이에 대해 생각하고 깨달아, 혹은 후회하고 혹은 보람을 느끼고 혹은 새 각오를 다지게 되곤 한다.

* 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말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계속하고 싶은 것, 함께 하는 것, 어린 시절 추억, 쉬~ 쉬는 시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놀이는 주변에 언제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지나치기 쉬운 공기, 흙, 물처럼 놀이(쉽)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뻘뻘한 일상과 핸드폰 등에 지쳐 놀 시간도 없을 뿐 더러 놀 기회, 놀 공간, 놀 친구가 없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감정표현도 힘들다. 놀이를 통해 운동능력뿐 아니

라 사고력, 창조력, 연구, 판단력, 사회성, 정서가 함양된다 한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외치는 소리를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 사례 - 스토리가 있는 실뜨기, 진 치기, 호랑이굴, 아기새어미새, 공기놀이, 고누 등등 직접 놀아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뛰고, 도망치고, 웃고, 소리치며 함께 노는 것이 얼마나 관계에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워크숍 11월 05일 (월요일)

지난 9월에 시작하여 11월 초까지 총 5회의 모임을 통해 각 도서관마다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편하게 소소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거리가 좀 더 가까웠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하는 모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어렵지만 각자 도서관에서 좋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참여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보았습니다.



각 도서관들의 향후 계획으로 그림책을 읽으며 하는 공예수업, 책과 함께 밖에서 하는 생태 수업, 어른들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림책 운동모임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해주었습니다. 벌써 겨울부터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발 빠른 곳도 있고 내년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준비에 차이는 있지만 다 잘하실 거라 믿음이 갑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마무리 하며.....

유난히 더위로 힘들었던 지난여름 끝자락에 ‘스스로’ 아카데미를 만나서 여러 도서관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만났습니다. 새로움을 배우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큰 행사도 스스로 기획해보고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스스로 아카데미를 보면서 존경스러움과 부러움을 한 가득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작은 도서관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경험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같이하면 더 멀리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값진 시간이라 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전에는 내 아이에게 읽어주기만 하던 그림책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며 가르치기보다는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다. 김지현 강사님의 마지막 수업의 한마디를 새기며 지난 5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해본다. 머리로 배우면

가르치게 되고 몸으로 배우면 나누게 된다! - 도담 작은도서관

☆ 그림책은 애들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책은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나를 위로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리버펠리스 작은도서관

☆ 놀이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많이 생각 날 것 같아요. - 빛나요 작은도서관

☆ 요즘 아이들의 빠빠한 일상에 지쳐 놀 시간도 없을 뿐더러 놀 기회, 놀 친구가 없다. 핸드폰 게임으로 감정표현도 힘들다. 놀이를 통해 운동능력 뿐 아니라 사고, 창조력, 연구, 판단력, 사회성, 정서성이 함양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과 더 잘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며 이렇게 1차, 2차 그림책 워크숍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놀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김장성 작가님 김지현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며 좋은 그림책과 놀이로 신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합니다. - 동문그린 작은도서관

☆ 김장성 작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동화책의 작가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림책을 문학의 한 분류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진짜 '그림책=동화책' 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림책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고 싶네요.^^ -도담작은도서관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가장 긴급한 부문을 지원하고자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지원받기는 어려운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는 작은도서관 '사람'과 '공간' 그리고 '장서',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은 경쟁적 공모이기보다는 지역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눔 공모이기를 희망합니다.

-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공고문 중

전국 50개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했습니다. 선정자교육과 전체교육, 실사를 통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노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는 이름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사업 이후에도 씩씩하게 작은도서관 운동의 길을

나아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